



COVER STORY

새로운 시선, 차세대 예술
2021 부산신진예술페스티벌

COLUMN

무명배우에게 바치는 글

골목에서 만나다. 생활 속 문화공간
동구만화체험관



오충근의
즐거
한
콘서트Ⅲ

고 고 한 콘 서 트

노자와 베토벤

차이콥스키 현을 위한 세레나데 C장조 작품48
P. I. Tchaikovsky Serenade for Strings in C Major, Op.48 I.

베토벤 현악4중주 제13번 B^b 장조 작품130 '카바티나'
L. v. Beethoven String Quartet No.13 in B^b Major, Op.130 V. Cavatina

베토벤 로망스 제2번 F장조 작품50
L. v. Beethoven Romance No.2 in F Major, Op.50

브리튼 단순 교향곡 작품4
B. Britten Simple Symphony Op.4 III. IV.

2021년 9월 2일(목) 오후 7시 30분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예술감독 오충근 지휘 | 특별출연 최진석 첼학자 | 협연 김주영 바이올린 | 연주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BSO)

| 주 최 |  금정문화회관

| 입장권 | R석 4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 입장연령 | 만 7세 이상

| 예 매 |  금정문화회관  인터파크

| 할 인 | 50% 국가유공자, 장애우(동반 1인), 의사자, 의사자 유족, 기초생활수급자(본인)

| 공연문의 | 051.519.5661~4

20% 20인 이상 단체, 정기회원(본인)

www.art.geumjeong.go.kr

*예매는 1일 전 오후 5시까지, 공연 당일 잔여좌석에 한해 1시간 전부터 현장 구매 가능합니다.

XXL
레오타드
안나수이
손거울



XXL 레오타드 안나수이 손거울

2021.9.9(목)-10(금)
목 오후 7:30 | 금 오후 2:00,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작	박창규	무대	박상봉	주최	(재)부산문화회관
연출	전인철	조명	최보은	제작	극단 들파구
출연	안병식	음악	박민수	관람연령	중학생 이상(만 13세 미만 입장불가)
	오혜영	안무컨셉	황수현	입장료	R석 3만원, S석 2만원
	윤미경	조연출	김유림, 황성현	예매문의	부산문화회관 051)607-6000(ARS 1번)
	김민하	기획	황성현		www.bscc.or.kr
	유동훈	홍보	P:d		
	조어진				



프리마돈나

부산시립합창단 여성 성악가들의 유쾌한 도전

PRIMA DONNA

2021.8.27 | 금 |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챔버홀

소프라노 강태경 김수린 노연수
이진영 한예린

알토 배효영 양민영

피아노 이승윤 이경미

프로그램

마스네 | 오페라 “마농” 中 ‘저기 부르는 소리 들어라’

생상스 | 오페라 “삼손과 데릴라” 中 ‘사랑의 신이여, 나를 도우소서!’

웨버 | 뮤지컬 “캣츠” 中 ‘기억(Memory)’

실베스터 | 뮤지컬 “모차르트” 中 ‘황금별’ 외 다수

문화공감
방방곡곡

「방방곡곡 문화공감」 구문예회관·예술단체 공연콘텐츠 공동제작 프로그램

한연극 A MIDSUMMER NIGHT'S DREAM 한여름밤의 꿈



2021. 8. 20.(금) 오후 7:30 / 8. 21.(토) 오후 4: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2021. 8. 27.(금) 오후 7:30 / 8. 28.(토) 오후 4:0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2021. 9. 3.(금) 오후 7:30 / 9. 4.(토) 오후 4:00 영도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주최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주관 Haeundae 해운대문화회관 을숙도문화회관 영도문화예술회관 프로젝트팀 이틀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동제작 Haeundae 해운대문화회관 을숙도문화회관 영도문화예술회관 프로젝트팀 이틀 문의 해운대문화회관 051-749-7651, 을숙도문화회관 051-220-5814, 영도문화예술회관 051-419-5571-4

예매 각 공연장 홈페이지 WEB2.0GEM 티켓 일반 2만원(각 공연장 별 좌석 및 회원 등급에 따라 할인 요율이 상이함. 각 공연장 홈페이지 참조) 관람연령 6세이상 관람가

'한여름밤의 꿈'은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의 일환으로 사업비의 일부를 문예진흥기금으로 지원 받아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삶에 플러스가 되는 인문학

BSCC 인문학+콘서트

향연

21.3.26(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행복의 조건



문화심리학자 김정운
여러가지문제연구소장

21.4.30(금)

어디서 살 것인가?



건축가 유현준
유현준건축사사무소 대표 건축가

21.5.28(금)

진정성의 시대



빅데이터 전문가 송길영
다음소프트 부사장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오전 11:00

전석 20,000원

연주

부산시립예술단

예매 및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www.bscc.or.kr
고객지원센터 Tel. 051-607-6000

21.7.30(금)

명작의 조건과 장인정신



미술사학자 유홍준
명지대 석좌교수

21.9.24(금)

영원한 광대 김명곤의 풍류정담



공연예술인 김명곤
세종문화회관 이사장



BUSAN CULTURAL CENTER
부산문화회관

21.10.29(금)

뇌과학에 묻다, 예술의 미래는?



뇌과학자 김대식
KAIST 교수

CONTENTS

08

월간문화예술정보지



부산문화회관의 정보를 담은
QR코드입니다.

예술의 초대 August 2021 Vol.356

2021년 8월호 통권 356호

발행처 (재)부산문화회관
48534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76번길 1
Tel. 051 607 6000

발행인 이용관

편집인 최용부

편집위원 동길산(위원장), 권은영, 이상현, 정두환, 정봉석, 채영희, 홍동식

홍보팀장 서정환

편집장 정복엽

발행일 2021년 7월 25일

디자인·제작 효민디앤피

08 Cover Story

새로운 시선, 차세대 예술
2021 부산신진예술페스티벌

16 Column

무명배우에게 바치는 글

18 거꾸로 보는 미술사 ①

용을 무찌른 기사는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을까?

22 골목에서 만나다_생활 속 문화공간

성북시장에 펼쳐진 만화세상
동구만화체험관

25 Preview

28 Issue

2021 제12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32 Review

40 Program Guide

53 New Book

54 BSCC News

56 정주임의 24시

(재)부산문화회관의 스토리텔러
홍보팀

SUN	MON	TUE	W
1	2	3	4
		부산시립예술단과 함께하는 기술 입은 문화예술 교육 'Art Project A to Z' 14:00 사 (사)부산시립예술단 공연사업팀(607-3113)	부산시립예술단과 함께하는 기술 입은 문화예술 교육 'Art Project A to Z' 14:00 사 (사)부산시립예술단 공연사업팀(607-3113)
8	9	10	11
		아트뱅크코리아 초청 '소리나 피아노 듀오 리사이틀' 19:30 중 전석 2만원/아트뱅크코리아(442-1941) 부산시립예술단과 함께하는 기술 입은 문화예술 교육 'Art Project A to Z' 14:00 사 (사)부산시립예술단 공연사업팀(607-3113)	2021년 브니엘 무용 예술제 19:00 대 무료/브니엘예술고등학교 부산시립예술단과 함께하는 기술 입은 문화예술 교육 'Art Project A to Z' 14:00 사 (사)부산시립예술단 공연사업팀(607-3113)
15	16	17	18
제76주년 광복절 경축식 10:00 대 부산광역시(888-1926)		(재)부산문화회관 2021 부산신진예술페스티벌 백팩퍼스테이지 '코마' 19:30 사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과르뫼트 아르디토 제3회 국제음악콩쿠르 19:00 대 무료/과르뫼트 아르디토 재단
22	23	24	25
UKO 오케스트라 신예 유망주 음악회 17:00 대 UKO(988-3087) (재)부산문화회관 2021 부산신진예술페스티벌 조곤댄스 '갑자기' 17:00 중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다시 부르는 거리의 노래들 19:30 중 초대/부산지휘자합창단(513-1009) ANK Flute Ensemble 'Doppler & Gary Schocker와의 만남' 19:00 캠 7천원-5천원 ANK Flute Ensemble(010-5406-4779)	부산예술고등학교 무용공연 19:00 대 초대/부산예술고등학교 창단 35주년 기념 부산신진예술페스티벌 연주회 19:30 중 전석 2만원/부산시립예술단(607-3113) 모차르트 코막오페라 '코막오페라' 19:00 캠 전석 2만원/아지무스(010-5406-4779)
29	30	31	9월 1일
2021 학엿농크! 페스티벌_콘서트 오페라 '람메르무어의 루치아' 17:00 대 15만원-12만원-9만원-6만원 (사)세종솔로이스츠(02-584-5494) 제38회 KBS부산무용콩쿠르 예선 10:00 중 KBS부산방송총국(620-7327)		곽소정 귀국 피아노 독주회 19:30 중 전석 2만원/아트뱅크코리아(442-1941)	'코로나19' 사태로 공연이 취소, 휴무, 연기된 공연관람 전 반은 하시기나 (재)부산문화회관(www.bscc.or.kr)에 문의 바랍니다.

Busan Cultural Center & Busan Citizen's Hall Schedule of Performances

WED	THU	FRI	SAT
4	5	6	7
<p>하는 기술 입은 문화예술 교육 'Z' 14:00 공연사업팀(607-3113)</p>			<p>부산시립예술단과 함께하는 기술 입은 문화예술 교육 'Art Project A to Z' 10:00,14:00[비대면] 사 (사)부산시립예술단 공연사업팀(607-3113)</p>
11	12	13	14
<p>술제 19:30 학교(513-9710)</p> <p>하는 기술 입은 문화예술 교육 'Z' 14:00 공연사업팀(607-3113)</p>	<p>이정현 첼로 리사이틀 19:30 첼 5만원-3만원/취스태이지원(02-780-5054)</p>		<p>◆(재)부산문화회관 2021 부산신진예술페스티벌 Tiger Dance Project 'Fantasy Vlog' 17:00 중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비올리스트 최영식 초청 리사이틀 17:00 첼 (사)디솔로이스츠(010-4214-1339) 부산시립예술단과 함께하는 기술 입은 문화예술 교육 'Art Project A to Z' 10:00,14:00 사 (사)부산시립예술단 공연사업팀(607-3113)</p>
18	19	20	21
<p>정기연주회 19:30 (010-2992-6063)</p>	<p>◆(재)부산문화회관 2021 부산신진예술페스티벌 청춘나비 '살 그자' 19:30 중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재)부산문화회관 2021 부산신진예술페스티벌 드림콘서트 '최저인간' 19:30 사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재)부산문화회관 2021 부산신진예술페스티벌 현대무용단 자유 '적정온도' 17:00 대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박지연 피아노 리사이틀 17:00 첼 전석 2만원/아트뱅크코리아(442-1941)</p>
25	26	27	28
<p>제33회 무용정기공연 학교(515-8106)</p> <p>인코리아타 제101회 정기 니에타(010-8519-0448)</p> <p>지 판 투테' 19:30 오페라단(010-8520-4649)</p>	<p>제54회 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멀리 있는 연인에게...' 19:30 대 2만원-1만5천원 (사)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626-8081)</p> <p>오순도순 정다운 노래여행 1st Concert 19:00 중 초대/문동환(010-4628-3098)</p> <p>피아니스트 원재연 전국 투어 리사이틀 19:30 첼 5만원-3만원/취스태이지원(02-780-5054)</p>	<p>2021 제12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메인콘서트 I '개막콘서트' 19:30 대 (사)부산마루국제음악제조직위원회(516-8293)</p> <p>UKO 오케스트라 사랑나눔 음악회 19:30 중 UKO(988-3087)</p> <p>◆부산시립합창단 2021 스타프로젝트 '프리마 돈나' 19:30 첼 전석 1만원/(사)부산문화회관(607-6000)</p>	<p>제33주년 2021 부산주니어발레컴퍼니 정기공연 'Color Of Ballet Gala' 19:30 대 전석 2만원 부산주니어발레컴퍼니(010-7389-3005)</p> <p>제38회 KBS부산무용콩쿠르 예선 10:00 중 KBS부산방송총국(620-7327)</p> <p>양은정 바이올린 독주회 17:00 첼 초대/양은정(010-5661-8314)</p>
<p>대 장기화로 예정되었던 공연은 연기되고 있습니다. 드시 공연 주최 측에 문의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bcc.or.kr)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p>부산문화회관 전시실</p> <p>(재)부산문화회관 기획전 매그넘 인 파리 6월 28일(월)-10월 10일(일) 관람시간 : 오전 10:00-오후 6:00 (일정미감 오후 5:00) 입 장 료 : 일반 1만5천원, 청소년 1만3천원, 어린이 1만원 문 의 : 가우디움어소시에이츠 (070-7779-8990)</p>	<p>부산문화회관 야외극장</p> <p>(재)부산문화회관 2021 부산신진예술페스티벌 야외공연 입 장 료 : 무료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 8월 21일(토) 오후 5:40 루츠리듬 '정신' 오후 6:00 킬라몽키즈 'Future Crane' 오후 6:20 포스(Force) '아슬' 오후 7:00 서커스 디랩 '또 다시 서커스'</p>	<p>오후 8:00 첼로가야금 '胡蝶之夢 : Butterfly Dream'</p> <p>■ 8월 22일(일) 오후 5:40 씨드네이처 'Shape of wind' 오후 6:00 포스(Force) '아슬' 오후 6:40 서커스 디랩 '또 다시 서커스' 오후 7:40 첼로가야금 '胡蝶之夢 : Butterfly Dream' 오후 8:20 페트라아트랩 '다벤저스'</p>

•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구매하십시오
• 위 공연 전시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정보는 www.bscc.or.kr에 접속하세요
• 초대(무료)공연은 반드시 주최 측에 문의 바랍니다.

SUN	MON	TUE	W
<p>1</p> <p>가족뮤지컬 '호두까기 인형' 11:00, 14:00 대 전석 4만원/동그라미그리기(1577-4868)</p>	<p>2</p>	<p>3</p>	<p>4</p>
<p>8</p>	<p>9</p>	<p>10</p>	<p>11</p>
<p>15</p> <p>◆ (재)부산문화회관 2021 부산신진예술페스티벌 극단 시지프 '달밤' 17:00 소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16</p>	<p>17</p>	<p>18</p>
<p>22</p>	<p>23</p>	<p>24</p>	<p>25</p>
<p>29</p>	<p>30</p>	<p>31</p>	<p>9월</p> <p>'코로나19' 새 공연이 취소, 휴 공연관람 전 반 하시거나 (재) (www.bscc. 합니다.</p>

Busan Cultural Center & Busan Citizen's Hall Schedule of Performances

WED	THU	FRI	SAT
4	5	6	7 2021 제7회 부산국악축제 18:00 대 (사)부산국악협회(644-5211) 광복절 76주년 기념콘서트 '노래여, 겨레의 노래여' 15:00 초대(사전예약) 전문예술단체 음악풍경(987-5005)
11	12	13	14
18	19	20	21 2021 경향음악콩쿠르 09:00 초 경향아트(895-7107)
25	26	27 2021 동백대상국제음악콩쿠르 09:00 초 동백엔터테인먼트(201-0222)	28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21 디즈니 인 콘서트' 17:00 대 10만원-8만원-6만원-4만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 2021 동백대상국제음악콩쿠르 09:00 초 동백엔터테인먼트(201-0222)
대 장기화로 예정되었던 혹은 연기되고 있습니다. 드시 공연 주최 측에 문의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www.bshc.or.kr)를 확인하시기 바	부산시민회관 전시실 요람에서 무덤까지 8월 1일(일)-8월 7일(토) 제1전시실 류정순 010-3584-2477 제29회 부산한국화전 8월 9일(월)-8월 13일(금) 제1, 2전시실 (사)부산미술협회 632-2400 아름다운 규방공예전 8월 16일(월)-8월 22일(일) 제1전시실 이신자 010-4581-2907	제30회 동합전 8월 27일(금)-8월 31일(화) 제1전시실 부산동구청 440-4065	

-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구매하십시오.
- 위 공연 전시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정보는 www.bscc.or.kr에 접속하세요.
- 초대(무료)공연은 반드시 주최 측에 문의 바랍니다.



2021 NEW EY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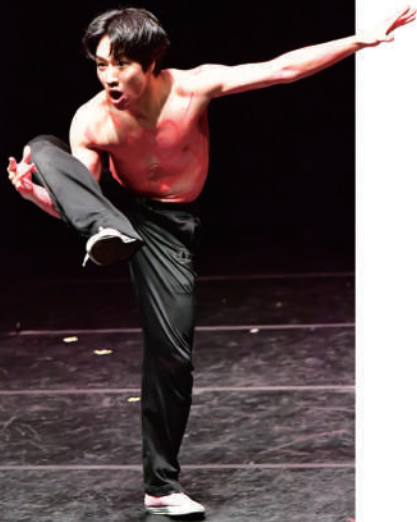
새로운 시선, 차세대 예술

2021 부산신진예술페스티벌

8. 14^토 ~ 22^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중극장·사랑채극장·야외마당,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전석 2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630-5200



Tiger Dance Project

신진예술인을 위한 본격적인 등용문이자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발굴하기 위한 실험적인 공연축제 '2021 부산신진예술페스티벌'이 8월 14일부터 부산문화회관과 부산시민회관에서 펼쳐진다. 지난 2019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격년제 축제인 '2021 부산신진예술페스티벌'은 지역의 잠재력 있는 신진예술인들의 공연예술 작품을 발굴, 부산의 대표적 인 레퍼토리로 개발함으로써 지역 유망예술인들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키는 한편 시민을 위한 축제의 장으로 자리매김해오고 있다.

축제 첫해인 '2019 부산신진예술페스티벌'에서는 연극, 무용, 다원예술 등 총 36편의 응모작 중 심사를 거쳐 선정된 8편의 작품이 무대에 올랐다. 이중 한국 전래동화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풀어낸 극단 오오씨어터의 뮤지컬 '토장군을 찾아라'가 신진작가의 초연작임에도 높은 완성도와 안정적인 추진이 돋보인다는 심사위원들의 평가를 받아 최우수작으로 결정됐다. '토장군을 찾아라'는 이듬해인 2020년 (재)부산문화회관 시즌 프로그램으로 다시 무대에 올라 시민들과 만났으며, 최근 들어서는 2021 김천국제가죽연극제 공식초청작, 2021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DIMF) 특별 초청공연, 2021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에 선정되는 등 전 지역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2회째를 맞는 올해는 개최 시기를 8월로 옮기고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 지역 9개 팀과 타지역 5개 팀을 선정하여 전국의 신진 예술가들이 교류할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하는 한편, 부산시민들이 보다 다양한 작품을 즐길 수 있는 한여름의 공연예술축제로 진행된다. 또한 지난해와 달리 야외공연을 추가함으로써 무대공연과는 다른 혁신적, 실험적



씨드네이처

NEXT WAVE

공연들을 관객들에게 선보인다. 월드뮤직, 컨템포러리 서커스, 퓨처국악, 버티컬댄스, 스트리트댄스 등 누구나 편안하게,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즐길 수 있는 야외공연은 8월 21일과 22일 이틀간 부산문화회관 야외광장에서 펼쳐진다.

올해 참가하는 공연팀은 모두 14개 팀. 우선 현대무용의 획일화된 안무 스타일에서 벗어나 혁신적인 현대무용 스타일을 추구하는 Tiger Dance Project 'Fantasy Vlog', 코로나 시대 지친 우리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전하는 극단 시지프의 음악극 '달밤',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빅픽처스스테이지의 범죄 스릴러극 '코마', 대한민국 격동의 시기였던 1980년을 배경으로 그 시대의 향수를 담은 청춘나비의 창작뮤지컬 '살그시', 전 세계 인구 80%가 잠비가 된 가상현실세계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드렁큰씨어터의 스릴러극 '최저인간',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와 주변환경에 의해 혼돈을 겪는 현대인의 모습을 그려낸 현대무용단 자유의 '적정온도', 춤과 마술, 서커스가 어우러져 관객에게 가깝게 다가가는 조군댄스 '갑자기' 등 7개 작품은 무대공연으로 만날 수 있다.

야외공연으로는 동서양의 콜라보레이션 퓨처국악을 표방한 월드뮤직을 선보일 루츠리듬의 '청신(淸神)', 부산의 B-boy 스트리트댄스 단체로 장르에 국한되지 않는 공연을 선보여온 킬라몽키즈의 'Future Crane', 한국무용을 기반으로 공중, 고층건물 등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그 화려함을 선보이는 씨드네이처의 버티컬댄스 'Shape of Wind'와 무더운 여름밤을 화끈하게 장식할 페트라아트랩의 '마벤저스'가 공연된다. 여기에 평소에 접하기 힘든 컨템포러리 서커스 작품인 포스(FORCE)의 '아슬'과 서커스 디 랩의 '또 다시 서커스가 관객과 만나며, 홀로그램 속에서 만나는 동서양의 꿈을 표현한 첼로가야금의 '胡蝶之夢: Butterfly Dream'도 우리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준다.

무대공연

Tiger Dance Project 'Fantasy Vlog' [현대무용]

8월 14일(토)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안무와 연출, 그리고 교육자로 활동영역을 넓히고 있는 조현도 대표를 중심으로 현대무용의 획일화된 안무 스타일을 벗어나는 혁

AFIN EYES

신적인 현대무용 스타일을 만들고자 올해 1월 창단한 신생무용단 Tiger Dance Project의 창작무용 'Fantasy Vlog'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세상 밖으로 나온 의문의 인물들, 그들과의 신비롭고 운명적인 만남이 관객들의 눈앞에서 펼쳐진다.

극단 시지프 '달밤' [음악극]

8월 15일(일) 오후 5: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한국 단편소설의 대가 이태준 선생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못난이 신문 배달원 황수건의 순박한 모습을 통해 코로나 시대 지친 우리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전하는 음악극 '달밤'. 작품 속 배경이 되는 일제강점기, 그 시절 유행한 대중음악을 현대적인 감성으로 리메이크한 곡들로 관객들을 그 시절로 이끈다. 극단 시지프는 지난 2017년 이미 쌍방향 온라인 실시간 공연인 'BJ 파우스트'를 제작, 2017 서울미래연극제(ST-Future)에서 2개 부문 수상했으며, 이듬해 같은 작품으로 마케도니아 국제공연예술제(MOT-Festival)에 국내 최초로 무대에 선 바 있다.

빅픽처스테이지 '코마' [연극]

8월 17일(화)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사랑채극장

제3회 부산창작희곡 공모에서 금상을 수상한 범죄 스릴러극 '코마'. 지난해 부산예술제 '수수한 연극 초청전'에 선정되면서 초연무대를 가진 바 있는 '코마'는 몸이 불편한 엄마와 함께



산 속 별장에 사는 주인공 앞에 정체를 알 수 없는 한 남성이 나타나면서 벌어지는 스릴러극으로,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되는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작품이다.

청춘나비 '살.그.시' [뮤지컬]

8월 19일(목)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대한민국 격동의 시대였던 1980년, 한 골목시장을 배경으로 당시 시장 상인들의 애환을 그린 뮤지컬 '살.그.시'. '살.그.시'는 원작 연극인 '살고싶다, 그림처럼, 시처럼'을 새롭게 각색한 창작뮤지컬로, 원작인 연극은 지난 2011년 초연 후 그 해 밀양여름공연예술축제에서 희곡상, 남자연기상, 여자연기상을 수상했으며, 이듬해 2월에는 대학로 게릴라극장 무대에 올라 전화매진을 기록하면서 지역 창작연극의 힘을 느끼게 해주었다. 특히 이번 뮤지컬 '살.그.시'는 원작의 표현기법인 '풍경극'을 음악적 효과와 문학(시)의 시각적 표현을 통해 확장하고, 1980년대 당시 사실적인 시대적 모습과 개성적인 캐릭터들의 앙상블로 무대를 채운다.

드렁큰씨어터 '최저인간' [연극]

8월 20일(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사랑채극장

정체 모를 바이러스가 퍼져 전 세계 인구 80%가 좀비가 된





조군댄스

조군댄스 '갑자기' [현대무용]

8월 22일(일)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지난 2018년 창단 후 다양한 창작무대를 통해 현대무용의 기초 작업과 새로운 예술 형식을 창출함으로써 지역 무용계 발전에 기여하고자 꾸준한 활동을 펼쳐온 조군댄스의 무대. 조군댄스는 앞으로 야외공연, 기획공연, 페스티벌, 거리공연 등 다양한 무대를 통해 대중과 더욱 가깝게 만날 계획이다. 창작무용 '갑자기'는 자기반성에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다양한 방법으로 융합하여 춤과 마술, 서커스 등으로 쉽고 재미있게 표현한 작품이다.

야외공연

가상현실세계를 배경으로, 어느 한적한 공사현장의 컨테이너 박스 속에서 촛불에 의지해 간신히 살아오던 한 여자 앞에 생존자들이 하나둘 찾아오면서 일어나는 연극 '최저인간'. 전 세계가 초토화된 순간에도 물질적 가치, 권력, 정보, 거점 등을 놓고 싸우는 사람들을 보며 진정한 인간다움은 무엇인지 묻는 한편, 코로나19 시대를 살고있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다운지를 고민해보는 자리이다. '연극에 취하자!'라는 의미를 지닌 드렁큰シア터는 100% 창작극을 지향하는 극단으로, 새로운 희곡과 새로운 시도로 관객과 만나고 있다.

현대무용단 자유 '적정온도' [현대무용]

8월 21일(토)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지난 1995년 창단 후 부산을 기점으로 우수한 무용수와 레퍼토리를 가지고 국내외 왕성한 창작활동을 펼쳐온 현대무용단 자유의 창작공연 '적정온도'. 어느날 갑자기 멈춰버린 사회적 상황 속에서 '안전한 관계를 위한 적당한 거리, 적정온도는 무엇일까?'하는 의문에서 시작된 '적정온도'는 외부로부터 끊임없이 자극받는 우리들의 안전한 거리와 온도에 대한 물음,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공허와 혼돈을 겪는 우리의 모습을 표현해보고 '함께'가 가진 의미와 관계에 대해 되돌아본다.

루츠리듬 '청신(淸神)' [퓨처국악]

8월 21일(토) 오후 5:40 부산문화회관 야외광장

세계 각국의 전통장단을 연구하고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4인조 월드뮤직 트랜스 그룹 '루츠리듬'의 무대. 국악기로 서양 음악을 연주하는 평범한 퓨전국악 프레임에서 탈피, 동서양의 콜라베이션으로 퓨전국악을 표방하는 실험적 예술단체로, VJ 멤버의 미디어아트/VR영상을 활용해 전통음악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이번 무대 '청신(淸神)'은 동해안별신굿을 재해석한 퓨전국악 공연으로, 한국 전통장단과 세계 각지의 전통리듬을 토대로 한 루츠리듬만의 음악을 통해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원초적 흥을 관객들과 공유한다.

킬라몽키즈 'Future Crane' [스트릿댄스]

8월 21일(토) 오후 6:00 부산문화회관 야외광장

2001년 창단된 스트릿댄스팀 킬라몽키즈의 무대. 킬라몽키즈는 힙합, 락킹, 팝핀, 비보잉 등 올드 스쿨 장르를 기반으로 컨템포러리한 스타일링을 지향하며, 장르에 국한되지 않은 실험적인 공연 콘텐츠로 관객과 만나오고 있다. 'Future Crane'는 스트릿댄스로 보는 동래학춤으로, 어디서도 만날 수 없는 독특한 무대를 선사한다.

포스(FORCE) '아슬(A:seul)' [서커스]

8월 21일(토) 오후 6:20, 22일(토) 오후 6:00

부산문화회관 야외광장

아크로바틱, 차이니즈 폴, 에어리얼 스트랩, 씨어휠, 지그 롤 등 다양한 서커스 기예를 펼치는 국내 최고의 종합 서커스 '아슬'. 무용, 음악, 연극 등 타 예술 장르와 결합하여 스토리와 테마를 표현하는 '컨템포러리 서커스'(Contemporary Circus)로, 다채로운 기예뿐 아니라, 서사와 사회성을 작품 속에 담고 있다. '아슬'은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흔들리는 청년들의 이야기로, 다양한 특정 공간에서 펼쳐지는 아슬아슬한 기예와 균형을 은유하는 구조물이 독창적인 조화를 이룬다.

서커스 디 랩 '또 다시 서커스' [서커스]

8월 21일(토) 오후 7:00, 22일(일) 오후 6:40

부산문화회관 야외광장

대한민국에서 손꼽는 서커스 기예자들의 집합체인 서커스 디 랩의 컨템포러리 서커스. 코로나19 사태로 무너져버린 일상과 그림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모습을 서커스로 풀어낸 작품으로, 각 퍼포머의 기량이 백분 발휘된 수준의 기예와 시놉시스에 어울리는 이미지가 돋보이는 장면들로 구성되어 있다. 서커스 작업의 특징인 신체와 움직임이 주가 되는 난버벌 형식으로 전체를 아우르는 건설 현장의 분위기가 관객을 압도한다.

첼로가야금 '胡蝶之夢 : Butterfly Dream' [월드뮤직]

8월 21일(토) 오후 8:00, 22일(일) 오후 7:40

부산문화회관 야외광장

오스트리아 출신의 첼리스트 김 솔 다니엘(Sol Daniel Kim)과 한국 출신 가야금 연주자 윤다영으로 결성된 첼로가야금의 무대. 첼로가야금은 동서양의 이색적인 어울림을 선사하는 음악으로 2016년 독일에서 창단한 이래 유럽 현지에서 꾸준히 주목을 받아왔다. 두 명이 들려주는 네 명의 꿈에 대한 이야기인 '호접지몽'은 각각 동양과 서양의 전통악기를 연주하는 두 연주자가 홀로그램 속 또 다른 자신과 마주하며, 네 명이 함께 만드는 음악 속에서 동양과 서양, 전통과 현대, 무대와 영상이 꿈 속의 장자와 나비처럼 서로의 경계가 흐려지고 하나의 확장된 세계를 만든다.

씨드네이처 'Shape of wind' [버티컬댄스]

8월 22일(일) 오후 5:40 부산문화회관 야외광장

2018년 창단한 한국과 미국의 미시건을 베이스로 활동하는 버티컬댄스(등반 장비 및 기술을 사용해 고층빌딩의 외벽, 암벽, 자연의 일부를 무대로 몸을 통해 표현하는 예술장르) 그룹 씨드네이처의 무대. 씨드네이처는 예술감독 김동희를 주축으로 한국무용의 움직임과 철학을 기반으로 공중과 수중, 무대, 고층건물 등 장소의 경계 없이 암벽기술, 디지털예술, 미디어아트 등 다른 장르와의 실험적인 협업을 통해 공연예술의 무대와 가능성을 확장해오고 있다. 특히 지난 2019년 15인의 버티컬 댄서가 100m 높이의 건물에서 공연한 '견딜 수 없는 아름다움'은 국내 최초 최다 인원, 최고 높이의 버티컬댄스 공연으로 평론가들의 극찬과 미디어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페트라아트랩 '마벤저스' [다원예술]

8월 22일(일) 오후 8:20 부산문화회관 야외광장

더운 여름 더욱 화끈하고 화려하게 만드는 마벤저스의 쇼킹 화이어! 이열치열로 더운 여름을 화끈하게 날려버리는 페트라아트랩의 '마벤저스'.

첼로가야금

2021



한여름 밤에 만나는 공연의 바다

2021 부산신진예술페스티벌

이상헌 춤 비평가, 부산신진예술페스티벌 운영위원



현대 예술계는 수많은 콘텐츠가 눈 깜빡할 사이에 나타나고 사라지는 곳이다. '새로움'은 이제 일상이 되었다. 수용자 입장에서 선택의 폭이 넓어진 것이지만, 창작하는 입장은 야생 정글에서 살아남기와 다를 바 없다. 어떤 것이 살아남아 '새로움'으로, '창작'으로 인정받을지 예측할 수 없기에 온갖 시도를 해보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하지만 시도하기도 쉽지는 않다. 기성 예술계의 은근한 견제와 반발, 고착화한 인식, 낯선 것을 꺼리는 분위기 같은 외부 요소와 어디까지 벗어나야 할지 모호한 기준, 새로운 시도 앞에서 솟아나는 자기 검열 같은 예술가의 고민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시도가 묻혀거나 시작조차 하지 못한다. 누군가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게 격려하고, 그 가치를 인정해 준다면 우리 예술계는 지금보다 더 풍성하고 윤택해질 것이다. 부산신진예술페스티벌은 이런 문제의식으로 (재)부산문화회관이 2019년 부산 공연 예술계 활성화를 위해 시작했다.

올해로 두 번째인 2021 부산신진예술페스티벌(이하 '페스티벌')은 애초 목적과 같이 새로운 작품을 발굴해 레퍼토리화하고, 신진 예술가의 창작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오는 8월 14일(토)~22일(일)까지 부산문화회관과 부산시민회관에서 개최한다. 페스티벌의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 'New Eyes Next Wave'는 형식적으로 새로운 작품을 넘어 공연예술계를 출렁이게 할 새로운 시각, 시선, 맥락을 담은 시도를 말한다. 올해도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연극, 무용, 음악, 다원 등 모든 장르를 포괄하는 혁신적이고 실험적인 공연예술축제를 지향한다. 이번 페스티벌에는 연극, 음악, 무용, 서커스에서 모두 14개 단체가 참가하는데, 조금 다가가 보면 기존의 장르 개념으로 포획할 수 없는 탈 장르적, 장르 확장적 성격의 단체와 작품이 많다. 페스티벌의 지향점이 참가 작품 하나하나에 녹아 있다. 2019년과 다른 점은 야외공연이 생겼고, 프린지 부문이 있다는 점이다.

2019년 페스티벌에서 주목할 성과 중 하나는 공연예술의 주변에 머물러있던 마술·서커스를 음악, 무용, 연극 등 주류 공연예술과 동등한 위치에 올려놓은 것이다. 이에 힘입어서인지 올해도 '포스(FORCE)'의 컨템퍼러리 서커스 '아슬', '서커스

디 랩의 '또 다시 서커스', '페트라아트랩'의 마술쇼 '마벤져스' 등 마술·서커스 부문의 약진이 뚜렷하다. 마술·서커스는 첫 페스티벌부터 단순한 기예를 보이는 데 그치지 않고 이야기를 입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태양의 서커스의 명성은 재미 있는 이야기 전개로 기예를 표현 방식으로 이용하면서부터였다. 다른 공연 예술 장르보다 상대적으로 활성이 덜 된 마술·서커스가 스토리라는 날개를 달아 흥미를 더해가는 모습을 이번 페스티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무용은 'Tiger Dance Project', '현대무용단 자유', '조군댄스' 등 현대무용 3개팀과 스트리트 댄스 크루 '킬라몽키스' 그리고 '버티컬댄스'라는 독특한 장르로 주목받고 있는 '씨드네이처'가 참가한다. 'Tiger Dance Project'는 단체 결성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안무자 조현도가 안은미 컴퍼니에서 수년간 활동한 경력이 있어 주목할 만하다. '현대무용단 자유'는 자타가 인정하는 부산의 대표적 현대무용 단체이다. 동문 단체 성격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폭넓고 깊이 있는 작품을 선보여 왔다. '조군댄스'는 무용수로 활발하게 활동한 조현배를 중심으로 한 무용단으로 기량이 출중한 출연자로 구성되어있다. 부산 스트리트 댄스 크루의 대표격인 '킬라몽키스'는 배틀 형식에서 벗어나 무용극, 댄스컬 등으로 활동을 확장하고 있어, 동래학춤을 모티브로 한 참가작 'Future Crane'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다. '씨드네이처'는 프린지 부문 초청단체로 평범하지 않은 춤을 시도하는 단체다. 2019년, 2020년 영도 라발스 호텔 벽면을 오르내리면서 공연한 버티컬댄스는 관객과 언론의 호응이 뜨거웠고, 평단의 반응도 좋았다. 야외 공연에 특화된 장소 특정적 공연을 만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올해 무용 부문은 춤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기회라고 해도 무방하다.

연극은 극단 시지프의 뮤지컬드라마(음악극) '달밤', 빅픽처 스테이지의 스릴러물 '코마', 청춘나비의 뮤지컬 '살그시', 드림큰씨어터의 소동극 '최저인간' 등 4편이다. 2019년에는 극단 오오씨어터의 가족뮤지컬 '토장군을 찾아라'가 최우수작으로 선정되었는데, 올해도 연극 부문의 강세가 이어질지 두고 볼 일이다.

음악은 '첼로가야금'이 동서양,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胡蝶之夢 : Butterfly Dream'을 준비했고, 동해안별신굿 음악을 재해석한 '루츠리듬'의 '청신(淸神)'이 눈길을 끈다. 동해안별신굿은 국가무형문화재로 굿 음악 중에 난이도가 매우 높고 독특해 외국에도 깊은 음악성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음악을 어떻게 해석할지 기대가 크다. 페스티벌을 주최한 (재)부산문화회관은 부산시립교향악단 협연자 공모를 비롯해 챔버페스티벌, 마티네 콘서트, 오페라 제작 등을 통해 음악 분야에서 많은 신진예술인들을 이미 발굴해왔고, 향후 오페라 하우스, 국제아트센터 콘서트홀 건립 등 부산문화예술계의 지형 변화를 고려해 음악 장르에서는 기악, 성악 이외의 형식을 선정했다. 올해는 우연찮게 국악 단체 두 팀이 올라와 흥미를 더한다.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부산 지역 단체를 70% 선정했다. 첫 회 참가 단체가 모두 부산에 연고를 둔 것에 비하면 큰 변화이다. 타 지역 30%는 국내외를 포함한 것으로 팬데믹 상황이 진정된 후 해외 단체 초청까지 염두에 둔 포석이다. 전 국민이 백신 접종을 시작하면서 팬데믹이 조금씩 진정 기미를 보이다가 다시 확산하기를 반복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면 여름휴가도 제대로 즐기지 못할 수도 있다. 페스티벌이 시작하는 8월 중순이면 상황이 좋아지리라 믿고, 여름밤 공연의 바다에 빠져 보기를 권한다.



2019년 최우수작 '토장군을 찾아라'

WAVE 2021 부산 신진예술 페스티벌

8월 14일(토) ~ 22일(일)

주최 | KCA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Korean Culture and Arts Centers Association

주관 | BUSAN CULTURAL CENTER
부산문화회관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티켓 | 전석 2만원

<극장공연>

- 8. 14.(토) 5:00pm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Tiger Dance Project 「Fantasy Vlog」
- 8. 15.(일) 5:00pm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극단 시지프 「달밤」
- 8. 17.(화) 7:30pm 부산문화회관 사랑채극장 빅픽처스테이지 「코마」
- 8. 19.(목) 7:30pm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청춘나비 「살.그.시」
- 8. 20.(금) 7:30pm 부산문화회관 사랑채극장 드림큰씨어터 「최저인간」
- 8. 21.(토) 5:00pm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현대무용단 자유 「적정온도」
- 8. 22.(일) 5:00pm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조군댄스 「갑자기」

<야외공연> - 부산문화회관 야외광장

- 8. 21.(토) ~ 22.(일) 6:00pm 부산문화회관 야외광장
포스 「아슬」, 서커스디랩 「또 다시 서커스」,
첼로가야금 「胡蝶之夢:Butterfly Dream」

<부산신진예술페스티벌 프린지> - 부산문화회관 야외광장

- 8. 21.(토) 5:40pm ~ 킬라몽키즈, 루츠리덤
- 8. 22.(일) 5:40pm ~ 씨드네이처, 페트라아트랩

무명배우에게 바치는 글

정봉석 연극평론가, 동아대학교 한국어문학과 교수



매년 5월이면 프랑스 남부의 해양도시 칸에서는 세계 최고의 영화축제가 열린다. 그런데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공식 행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칸영화제는 1946년에 출범한 이래, 1948년부터 1950년까지 예산 부족으로 개최되지 못했고, 1968년에는 5월 혁명으로 영화제 도중에 중단한 적은 있지만, 바이러스의 창궐로 전면 취소된 것은 유례없는 일이었다. 올해 5월에도 칸영화제는 개막이 불투명했으나, 다행히 7월에 개최되었다. 봉준호 감독이 개막선언을 하고, 배우 송강호가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였다. 2019년 황금종려상 수상에 대한 예우 차원이었지만, 새삼스럽게 감회가 일었다.

한국영화가 칸영화제에 첫발을 디딘 것은 1984년, 이두용 감독의 <여인잔혹사-물레야 물레야>가 '주목할 만한 시선' 부문에 처음 초청되었다. 2000년에 임권택 감독의 <춘향전>이 경쟁 부문에 진출하였으며, 2002년에 <취화선>으로 감독상

을 수상하였다. 2004년에는 박찬욱 감독이 <올드보이>로 그랑프리에 해당하는 심사위원대상을 받았다. 이후 한국영화에 대한 칸의 문호가 넓어졌다. 이창동의 <밀양>(2007)이 여우주연상(전도연)을, 박찬욱의 <박쥐>(2009)가 심사위원상을, 이창동의 <시>(2010)가 각본상을 수상하였다. 본선 경쟁은 아니었지만, 홍상수의 <하하하>(2010), 김기덕의 <아리랑>(2011)이 해를 이어 '주목할 만한 시선'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였고, 문병곤 감독의 <세이프>(2013)가 '단편영화' 부문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하였다.

잠시 숨을 고른 뒤, 칸의 정상에 향한 본격적인 도전이 이어졌다. 2016년에는 박찬욱 감독의 <아가씨>가, 2017년에는 봉준호 감독의 <옥자>와 홍상수 감독의 <그 후>가 레이스를 이어갔다. 관심을 모았던 <옥자>는 넷플릭스 스트리밍 시스템에 대한 프랑스극장협회 측의 거센 반발에 부딪치기도 하였다.

2018년에는 이창동 감독이 다시 도전장을 내밀었다. <버닝>에 언론들이 집중되어 황금종려상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었으나, 결과는 고레에다 히로카즈의 <만비키가족>에 영광이 돌아감으로써 고배를 마셔야 했다. 일본의 경우 기누가사 데이노스케가 <지옥문>(1954)으로 정상에 오른 이래, 구로사와 아키라의 <카게무사>(1980), 그리고 이마무라 쇼헤이의 <나라야마 부시코>(1983)와 <우나기>(1997)에 이은 다섯 번째의 수상이었다. 중국만 해도 1993년에 천카이거가 <패왕별희>로 칸을 정복했었던 사실을 상기할 때, 한국영화 팬들이 <버닝>에 걸었던 기대와 상실감은 커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도전 끝에 마침내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으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것이다. <괴물>(2006)이 '감독주간' 부문에 초청된 이후, <도교>(2008)와 <마더>(2009)가 '주목할 만한 시선' 부문에 초청된 것을 포함하면, 개인적으로는 다섯 번째 진출 끝에 이룬 승리이며, 한국영화로는 35년 만에 거둔 결실이다. 게다가 작년에는 아카데미영화제에서 4관왕의 영광마저 차지함으로써 한국영화 100년사에 빛나는 최고의 기념비를 세우게 되었다.

그러나 이 글은 칸의 중심에 서게 된 감독이나 배우를 기리려는 것이 아니다. 이 글을 촉발시킨 것은 제60회 칸영화제 여우주연상에 빛나는 <밀양>에 바쳐진 비평의 다음 한 구절이다.

“우연인지 어찌면 의도인지 송강호를 제외하면 전도연과 유괴범 박도섭 역을 맡은 조영진만이 <밀양>에서 전문배우다.”

이 말의 취지는, 유괴범에게 아들을 잃은 '신애'(전도연)의 고통을 관객들이 허구(Fiction)적으로 감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독이 의도적으로 조연들을 비전문배우로 기용하였을 거라는 것이다. 즉 무명배우들의 연기 덕분에 영화에서 실재적(Real) 분위기가 살아날 수 있었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밀양의 감각을 날 것 그대로 재현해낸 이들 무명배우들이야말로

대단히 연기력이 뛰어난 전문배우들이라는 역설이 성립된다.

실제로 <밀양>에 등장하는 조연급 배우들은 지역에서는 내로라하는 연극배우들이다. 신 사장 역의 김종수, 장로 역의 이윤희, 목사 역의 오만석, 종찬 친구 역의 김영삼 등은 울산의 배우들이고, 김 집사 역의 김미향, 주방장 역의 이성민은 대구의 배우들이다. 부산의 연극배우들은 <밀양>의 전반에 포진되어있다. 양장점 주인 역의 김미경은 1986년도 가마골소극장 창단 때부터 활동해온 중견배우이다. 지역 유지 역의 박상규와 상가 아줌마 역의 김혜정은 극단 시나위의 대표이자 간판배우이며, 형사반장 역의 고인범은 부산연극협회 회장을 역임하였고, 오 집사 역의 백정임은 극단 도깨비의 간판배우이다. 따지고 보면 유괴범 박도섭 역을 맡은 조영진도 스크린 데뷔 전에는 극단 연희단 거리패의 배우장이었으며, 송강호 또한 부산 출신의 연극배우였다.

다소 장황스러울지라도 이들 연극인들의 이름을 애써 열거하는 이유는, 한국영화가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하게 된 데에는 이러한 연극배우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임을 말하기 위함이다. 부산의 연극인들 중에는 김윤석, 조진웅, 유재명, 이재용, 김하균, 박지일, 김영웅 등 스크린으로 나아가 유명배우가 된 이들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극인들은 묵묵히 무대를 지키고 있다. 그들에게 왜 연극을 하냐고 물으면 대답은 한 가지, '그냥 좋아서'이다. 그것은 <밀양>의 도입부에서 '신애'가 밀양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냐고 물을 때, 하등의 고민 없이 답하는 '종찬'(송강호)의 모습과 닮았다.

“뜻요? 뭐 우리가 뜻 보고 삽니까. 그냥 사는 거지.”

<밀양>을 완성시킨 건 '신애'의 곁을 묵묵히 지키는 송강호의 연기라고 입을 모으지만, 가난한 연극판을 묵묵히 지키고 있는 우리의 '무명배우'들에게도 한번쯤 격려의 박수를 보냈으면 하는 것이다.

용을 무찌른 기사는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을까?

허나영 한국연구재단 연구교수

공주와 왕자가 나오는 동화의 끝은 대부분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이다. '진정한 사랑의 키스로 목에 걸린 독 사과를 빼준 왕자와 백설공주, 유리구두 한 짝의 주인을 오매불망 찾은 왕자와 신데렐라, 우여곡절 끝에 꽃의 요정 나라의 왕자와 결혼한 엄지공주 등 많은 공주들이 운명적인 단짝을 만나 결혼하면서 영원한 행복을 얻게 된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현실을 강조할 것도 없이, 이미 많은 소설이나 영화 등에서 이러한 '영원한 사랑'이 허구임을 이야기하고 있다. 영화 <슈렉>에서는 용이 지키는 성에 갇힌 피오나 공주를 백마 탄 기사가 아닌 '어쩌다' 구하게 되는 오우거(괴물)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 그 공주 역시 '진정한 사랑의 키스로' '오우거'가 된다. 과거의 낭만적인 이야기는



지금에 와서 조금 더 현실적으로 혹은 과연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상대적인 관점으로 보여주기도 한다. 그렇다면 수렛의 사랑인 피오나 공주가 어린 시절부터 꿈꿨던 용에게서 자신을 구해줄 프린스 차밍과의 사랑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 먼저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중세 유럽으로 가보자.

중세의 인싸, 성 조지

유럽의 중세는 기독교를 중심으로 모든 사회제도, 문화, 생활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돈과 권력을 가진 왕과 귀족도 스스로를 과시하기 위한 궁전이나 저택보다는 화려하고 웅장한 교회를 위한 후원을 해야 칭송을 받았다. 대표적으로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이 있으며, 성당 내외부에는 다양한 조각과 공예 그리고 그림이 장식되었다. 그렇기에 중세의 시각예술은 대부분이 종교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회화의 경우에도 성경의 교리뿐 아니라 수많은 성인들의 모습도 담겼는데, 이를 상징적 이미지인 ‘이콘(Icon)’이 담겼다고 해서 ‘이콘화’ 혹은 ‘성상화(聖像畵)’라 한다. 이러한 성상화에는 예수나 성모마리아뿐 아니라, 종교를 위해 순교한 여러 성인(聖人)도 표현이 된다. 그중 오늘날의 기사 이야기와 관련이 되는 성인이 있다.

이 성인은 항상 은빛이 반짝이는 멋진 갑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있는 멋진 기사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성 조지(Saint George)이다. 웬지 성인이라 하면 검박하게 기도를 하다가 장렬하게 순교를 당했을 것 같지만, 성 조지는 번쩍이는 갑옷을 입은 기사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성 조지에 관해 전해온 이야기 때문이다. 성 조지는 초기 기독교의 대표적인 성인 14인 중 한 명으로, 대중적인 인기가 높았다. 그만큼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한 버전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중 13세기 이탈리아의 성직자 바라지네(Jacobus de Varagine, 1228-1298)가 엮은 <황금전설(Legenda Aurea)>(1290년경)에서는 이렇게 전한다.



- 1 모네 마르티니와 리포 엠미, <수태고지>, 1333년, 나무에 템페라, 265×305cm, 이탈리아 피렌체 우피치 미술관 소장
- 2 단테 가브리엘 로제티, <성 조지와 사브레 공주의 결혼>, 1857년, 종이에 수채, 36.5×36.5cm, 영국 테이트 갤러리 소장

북아프리카 리비아에 당시 ‘시레나’라 불리는 지역에는 호수에 독을 뽑는 용이 있었다. 근처 마을 사람들은 용에게 제물을 바쳐야 했는데, 양과 같은 가축이 동이 나자 결국 젊은이들까지 제물이 되어 했다. 제비뽑기로 제물이 될 사람을 뽑다가 결국 왕의 외동딸이 제물이 되게 되었다. 그때 마침 성 조지가 말을 타고 지나가다가 이를 보고, 용의 입에 창을 찔러 제압하고 공주의 허리띠를 빌려 용을 묶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만한 뻘뻘한 결말은 이 공주와 성 조지가 결혼해서 이 나라의 왕이 되어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하지만 전해지는 이야기는 다르다.

성 조지는 성인이었던 만큼, 아름다운 공주와 한 나라보다는 종교적 믿음이 더 중요했다. 그래서 왕에게 자신이 잡은 용을 죽이고자 한다면, 백성들을 모두 기독교로 개종하게 해달라고 한다. 오랫동안 골치였던 용이었기에 왕은 흔쾌히 수락했고, 성 조지는 약속대로 용을 죽인 후 ‘쿨하게’ 그 나라를 떠난다. 그리고 계속 포교활동을 하다가 결국 다른 이교도 왕에 의해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것으로 끝난다.



다소 동화 속 해피엔딩은 아니지만, 이렇듯 <황금전설>에서 전하는 것처럼 창을 쓰고 빛나는 갑옷을 입은 용맹한 기사로 묘사된 성 조지는 이후 중세의 기사문학과 결합되었다. 그래서 성 조지는 백마를 탄 은빛 갑옷의 기사로서 무서운 용에게서 공주를 구하고 행복하게 사는 전형적인 인물로 그려졌다. 그렇지만 실제 성 조지의 본래 이름은 라틴어로는 게오르기우스(Georgius)로, 순교한 날이 303년 4월 23일인 로마제국 시기에 살았던 인물이다. 그렇기에 중세의 기사일 수는 없다. 하지만 로마의 군인이기는 했다. 성 조지는 예루살렘 근처 도시 리다에서 기독교 귀족집안에서 태어나 믿음을 갖고 있었지만,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의 명으로 기독교인으로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죄로 순교하였다. 그래서 성 조지를 그린 초기의 이콘화에서는 중세 기사의 모습이 아닌 로마 군인의 모습이였다.

그렇지만 중세에 들어서면서 십자군 전쟁 등으로 기사의 수가 늘어났고, 기사와 관련한 여러 문학작품이 발표되었다. 그러면서 성 조지의 이야기 역시 아름다운 공주와의 사랑을 쟁취한 모험으로 변하게 되었고, 그만큼 대중적인 인기도 높아졌다. 그래서 프랑스의 초기 국가를 세운 메로빙거 왕조는 자신들이 성 조지의 후손임을 자처하기도 했다. 이렇듯 성 조지는 그만큼 믿음이 강한 종교적 인물을 넘어서 중세인들에게 유명한 매력적인 캐릭터였다. 요셋말로 인싸였다.

중세 이후 성 조지는 점차 은빛 갑옷을 입고 백마를 탄 전형적인 모습으로 그려졌다. 원근법과 사랑에 빠진 예술가로 유명한 초기 르네상스의 화가, 파올로 우첼로(Paolo Uccello, 1397-1475)가 그린 성 조지의 모습도 그렇다. 검은 구름을 몰고 온 듯한 기사가 반짝이는 은빛 갑옷을 입고 뒷발로 힘차게 뛰어오르는 백마를 타고 긴 창으로 달려들며 용을 찌르고 있다. 왼 문양이 있는 박쥐 날개를 가지고 있는 초록빛의 용은 날카로운 송곳니와 발톱을 써보지도 못하고 금빛 창에 찔려 고개를 숙이고 피를 흘린다. 확실한 성 조지의 승리다. 이제 이 백마 탄 기사는 금발의 분홍 옷을 입은 아름다운 공주를 구하면 될 것이다. 이러한 낭만적인 사랑은 이전에 없던 새로운 감정을 유럽인들의 마음에 심었고, 이후 더 다양한 예술 속에서 꽃 피웠다. 그리고 로마 제국 시대에 살았던 초기 기독교를 대표하는 순교 성인이었던 성 조지는 예술 속에서 은빛 갑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달려가 용맹하게 무서운 용을 쓰러뜨리고 고귀한 여성의 사랑을 얻은 기사로 예술 속에서 남게 되었다.

3 <성 조지>, 15세기 경
 4 <성 조지>, 동로마 시기
 5 우첼로, <성 조지와 용>, 1456년, 캔버스에 유채, 57×73cm, 영국 런던 내셔널 갤러리

미술사를 거꾸로 들여다보기

역사를 승자의 기록이라 한다. 그런 점에서 미술사 역시 각 시대의 주요한 권력을 가졌던 이들을 위한 미술, 혹은 후대의 관점에서 우수하다고 평가된 예술들을 중심으로 주로 기술된다. 그렇지만 미술 역시 인간의 삶과 함께하기에, 특정한 경향이 나 취향에 맞는 것만이 한 시대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개개인은 저마다 다른 삶과 취향을 갖고 있으니 말이다. 그러한 점에서 그동안 기술되어 오던 미술사의 흐름에서 약간 벗어난, 그렇지만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의미 있을 법한 이야기들을 앞으로 풀어보고자 한다. 그래서 이미 미술사라는 무대에서 조명을 받던 주연들의 이야기가 아닌 그 뒤에서 이야기를 받쳐주는 썬스틸러들의 이야기가 될 것이다. 불을 뿜는 무서운 용에게서 공주를 구해내는 기사 이야기로 확장된 성 조지의 성화에 관한 이야기도 종교를 떠나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의 욕구가 표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 전 세계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누릴 수 없었다. 그래서 사랑하는 이들과 소중한 시간을 보내지 못한 아쉬움과 같은 우울한 부분도 많았지만, 한편으로는 그저 무비판적으로 따르기만 했던 편견에서 과감하게 탈피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다. 얼마 전 미국의 대표적인 영화제, 일명 오스카 시상식이라 불리는 미국 아카데미시상식의 분위기 역시 그랬다. 한국의 윤여정 배우가 조연상을 탔기에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인종주의 타파와 소수의 문화를 인정하고 다양성을 긍정하는 방향을 지향하고 있었다. 이렇듯 지금 멈춰서서 기존에 알던 미술사를 뒤집어 보고 그 속에서 빛나는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앞으로 함께 풀어보고자 한다.

※ 본 글은 허나영의 <다시 쓰는 착한 미술사>(타인의 사유, 2021) 중 일부를 발췌 및 수정한 것입니다.



6 티토레토, <성 조지와 용>, 1558년, 캔버스에 유채, 157.5×100cm, 영국 런던 내셔널 갤러리

☞ 이번 호부터는 기존에 알던 미술사를 뒤집어보고 그 속에서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의미 있을 법한 이야기들을 풀어보는 허나영의 <거꾸로 보는 미술사>가 연재됩니다. 글쓴이 허나영은 홍익대학교 예술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미술학박사를 취득했으며, 현재 한국연구재단 인문학술연구교수이며 목원대학교에서 강의하고 시각예술기획 인 대표로 다양한 미술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좋아하던 미술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미술에 대한 이야기를 글과 말로 풀어내고 있으며, 저서로는 <다시 쓰는 착한 미술사>, <모네-빛과 색으로 이룬 회화의 혁명>, <색으로 그린 그림>, <이야기로 엮은 서양미술사>, <이중섭, 떠돌이 소의 꿈>, <그림이 된 여인>, <키워드로 보는 현대미술>, <화가 VS 화가> 등이 있습니다.

성북시장에 펼쳐진 만화세상 동구만화체험관

박나무 자유기고가



<미생> <이태원클라쓰> <간 떨어지는 동거> <경이로운 소문> <모범택시> <송곳> <쌍갑포차> <치즈인더트랩> <타인은 지옥이다>... 이런저런 TV 채널에서 인기리에 방영된 드라마임을 아셨다면 당신은 드라마 애호가. 나아가 원작이 모두 드라마만큼 혹은 그보다 더 인기 높았던 웹툰임도 눈치 채셨으리라. 예전에는 소설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가 다수였다면 이제는 웹툰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책을 붙들고 있기보다는 스마트폰을 쳐다보는 사람이 대다수이며, 그들 중 상당수는 웹툰을 보고 있다. 만화방에서 혹은 교실에서 여러 사람 침 묻허가며 둘러보느라 너덜했던 만화책이 이제 저마다의 스마트기기 속으로 들어온 셈이다.

이번 호에서는 만화에서 웹툰으로 변천하는 과정을 잘 보여주는 동구만화체험관(Cartoon Center)을 찾았다. 부산시 동구 수정동과 좌천동, 그리고 범일동이 마주한 산북도로에 자리 잡은 성북시장은 웹툰이바구길로도 잘 알려져 있다. 각 상점의 간판마다 웹툰의 주인공들이 등장하고 외벽에도 판매하는 물품과 유관한 장면들을 그려두었다. 문을 열면 상인들이 청소를 하고 상품을 곱게 진열하며 손님들을 만나고, 문을 닫으면 내려진 셔터에 각종 캐릭터들이 등장해 배턴을 이어받는다. 점포마다 담겼을 이야기를 하나하나 짚어가다 보면 동구만화체험관을 만날 수 있다. 1~2층은 주차장이며 3층이 전시장, 4층은 옥상전망대로 구성되었는데,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어 몸이 불편한 분이나 어린이들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한 점이 먼저 눈에 띈다. 입장료도 받지 않으니 이래저래 친절한 공간이다.

3층에 들어서면 큼직한 또디와 단디가 입장을 환영한다. 또디는 정연식 작가의 인기작 <또디 동네 사람들>의 주인공. 인간이 되기를 소망했다가 학업과 직장에 치인 인간사를 못 이겨 다시 강아지로 돌아온 또디, 그리고 2020년 성북시장의 캐릭터로 태어난 검은고양이 단디. 흑과 백, 고양이와 강아지, 20년의 세대차를 극복한 두 친구가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지 싶다. 전시장에는 세대를 대표하는 만화들이 정성스레 자리잡고 있다. 근대만화 도입기의 <국제도시> <봉선아> <맹공이서당> <머털도시> 등은 아쉽지만 표지만 사본으로 있다. 그러나 1980년대를 풍미한 박수동 작가의 <월급쟁이 만세>, 김수정 작가의 <둘리>는 귀한 원본이 그대로 있고 또 꺼내볼 수도 있다. 녹진한 종이 냄새와 친근한 주인공들의 언어가 우리를 과거로 데려간다. 최근작들은 전집을 구비하고 독자를 기다리고 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그 날, 한 어린아이는 온도가 잘 조절된 체험관 소파에 배를 깔고 누워 만화를 보고 있었다. 평화롭다.

건너편에는 과거를 딛고 진화한 디지털 신기술들이 펼쳐진다. 태블릿PC를 캔버스 삼아 스타일러스로 그림을 그리고 저장도 할 수 있다. 디지털세대답게 아이들은 곧잘 그럴싸한 그림을 그려낸다. 대형스크린에선 관람객들이 그려낸 동물캐릭터

들이 3D로 재현되어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닌다. 채색을 위해 다양한 색연필들이 준비되어 있고, 아이들이 저마다의 색깔을 입히기 위해 분주히 펜을 움직인다. 이곳에서 재능을 발견하고 꿈을 키웠다는 웹툰 작가나 애니메이션 감독이 곧 나오지 않을까 싶다. 아이들의 꿈은 무한하고 직업의 세계는 다양함을 알려주는 공간으로 만화체험관이 힘을 쓸 수 있을 것 같다.

시민들에게 더 사랑받고 다시 찾고 싶은 곳이 되려면 좀 더 흥미로운 프로그램들이 기획되어야 할 것 같다는 아쉬움은 있다. 작가를 만나고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되면 좋겠다 싶고, 과거의 사료들도 수집하고 기증받는 노력을 기울여 성과가 있을 때마다 시민들에게 알려서 발걸음하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많이들 찾아주고 다양한 목소리를 보태면 가능한 일일테지만, 찾는 이가 없으면 이 정도의 공간을 유지하는 것도 위태할 수 있겠다. 코로나가 얼른 지나가길 바랄 뿐이다.

■문의 : 동구만화체험관(711-0233, 부산 동구 성북로 42-1)
 ※이용시간 : 화-일요일 오전 10:00~오후 7:00(월요일 휴관)

INVITATION TO THE ARTS

가온아트홀	1600-1601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663-5361
공간소극장	611-8518
국립부산국악원	811-0114
글로벌아트홀	505-5995
금정문화회관	519-5651
동래문화회관	550-6611
레몬트리소극장	626-0116
무대공감 전용극장	623-0678
무지크바움	070-7692-0747
부산메트로홀	1600-0316
부산광역시 학생예술문화회관	366-8114
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북구문화빙상센터	309-4681
부산민주공원	790-7400
부산시민회관	630-5200
부산예술회관	612-1372
성원아트홀	1899-5435
센텀시티 소향씨어터	950-6500
소극장 6번출구	625-2117
소민아트센터	991-2200
수아트홀	744-1415
신명천지소극장	515-7314
스페이스 움	557-3369
액터스소극장	611-6616
에저포소극장	852-9161
열린아트홀	527-0123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61
영화의전당	780-6000
용천지랄소극장	625-0767
울속도문화회관	220-5812
일터소극장	635-5370
차성아트홀	728-0993
청춘나비소극장	070-8241-2560
초콜릿팩토리	621-4005
축제소극장	070-4211-8879
한결아트홀	1588-9155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효로민락소극장	623-6232
AN아트홀 서면	070-4175-9035
BEXCO 오디토리움	740-7369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KBS부산홀	620-7181
MBC롯데아트홀	760-1177
SM아트홀	1600-1602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2021 스타프로젝트 프리마 돈나



강태경, 배효영, 양민영, 한예린, 노연주, 이진영, 김수린

- 부산시립합창단 여성 성악가들의 화려하면서도 서정적인 기교를 감상할 수 있는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프리마 돈나'가 8월 27일 부산문화회관 챔버홀에서 펼쳐진다.

이번 무대는 기량이 뛰어난 부산시립예술단 단원들과 부산 시민들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올해부터 새롭게 시도하는 '2021 스타프로젝트' 두 번째 무대로, 부산시립합창단 비상임 단원 강태경, 김수린, 노연주, 배효영, 이진영과 지역의 신진 예술인 양민영, 한예린 등 7명의 프리마 돈나가 관객과 만난다. 특히 평소 합창무대에서는 만날 수 없었던 단원 개인의 솔로리스트로서의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무대로, 우리 귀에 친숙한 오페라 아리아와 뮤지컬 넘버로, 연주자와 관객이 함께 소통하고 즐길 수 있는 무대로 꾸민다.

한양대학교 성악과와 이태리 파르마 국립음악원을 졸업한 소프라노 강태경은 'Premio Boni' 국제콩쿠르 1등, 'Franco Federici', 'Rinaldo Pelizzoni' 국제콩쿠르에서 입상하고 국립합창단 단원, 파르마 왕립극장 합창단 단원을 역임한 바 있다. 국립창원대학교 음악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 재학 중인 소프라노 김수린은 마산음협 전국음악콩쿠르 특상, 부산

음악협회 전국학생음악경연대회 2위에 입상했으며, 2020 라이징 아티스트로 창원시립교향악단과 협연한 바 있다. 동아대학교 음악과와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을 졸업한 소프라노 노연주는 제30회 글로벌 전국음악콩쿠르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사랑의 묘약'에 출연한 바 있다.

국립창원대학교 음악과를 졸업한 메조소프라노 배효영은 제59회 개천예술제 금상, 제61회 개천예술제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오페라 '리골레토', '사랑의 묘약', '정열공 최윤덕' 등 다수 오페라 무대와 솔리스트로 활동했다. 인제대학교 음악학과 및 동 대학원, 이태리 도니제티 아카데미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한 소프라노 이진영은 제58회 부산예술제 개막공연, 오페라 '라보엠', '피가로의 결혼' 갈라콘서트 등 다수 음악회에 출연했으며 현재 인제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에 있다. 소프라노 양민영은 인제대학교 음악학과를 졸업하고 국립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에 재학 중이며, 서울대학교 성악과를 졸업하고 현재 미국 맨하탄음대에 재학중인 소프라노 한예린은 제82회 조선일보 신인음악회를 통해 데뷔했으며, 제23회 성정음악콩쿠르 금상 등 다수 콩쿠르에서 입상한 바 있다.

일 시 8월 27일 금요일 오후 7:30 장 소 부산문화회관 챔버홀
입장료 전석 1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21 디즈니 인 콘서트



- 디즈니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심장을 뛰게 하는 꿈의 무대 '2021 디즈니 인 콘서트'가 8월 28일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디즈니의 애니메이션에 삽입되었던 히트곡들을 콘서트 무대에서 만날 수 있는 '디즈니 인 콘서트'는 꿈과 희망을 전하는 디즈니 공식 라이선스 프로덕션으로, 눈부시게 선명한 대형 LED 스크린에 펼쳐지는 디즈니 애니메이션, 지휘자 이병욱이 지휘하는 60인조 디토오케스트라가 만들어내는 웅장한 사운드와 화려한 조명, 그리고 미국 브로드웨이에서 활동하는 디즈니 콘서트 싱어즈의 강렬한 노래로 관객들을 사로잡는다. 디즈니의 음악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네이티브 싱어들로 구성된 디즈니 싱어즈는 실제 애니메이션 주인공과 흡사한 목소리, 생생한 재현과 퍼포먼스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디즈니 인 콘서트'는 그동안 미국, 영국 및 유럽, 일본, 홍콩, 대만, 카타르 등 세계 유명 공연장에서 150회 이상 공연해오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2014년 올림픽공원 잔디마당에서 열리는 크레디아 파크콘서트에서 첫 내한 공연을 가진 이후, 매년 호

평과 열광 속에서 흥행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 2018년부터는 실내 무대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일부 회차를 조기 매진시키며 디즈니 팬들의 결집력을 보여주었으며, 2020년 11월에 열린 내한 공연은 팬데믹으로 지친 한국의 관객들에게 잊을 수 없는 마법같은 시간을 선사하며 뜨거운 환호를 이끌어냈다.

부산에서 처음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영화 속 캐릭터들이 튀어나온 듯 실감나는 디즈니 콘서트 싱어즈의 연기와 노래로 '인어공주', '라이온 킹', '잠자는 숲속의 공주' 등 1900년대에 개봉해 오랜 시간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아온 고전 명작부터 2000년대에 개봉한 '모아나', '겨울왕국 1, 2'의 수록곡들까지 남녀노소, 전 세대가 모두 즐길 수 있다. 특히 2019년 개봉해 한국 관객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았던 '알라딘' 실사 영화에 삽입된 신곡 'Speechless'가 디즈니 콘서트 싱어즈의 내한 공연 최초로 선보일 예정이라 팬들의 기대가 더욱 크다.

일 시 8월 28일 토요일 오후 5:00 **장 소**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VIP 10만원, R석 8만원, S석 6만원, A석 4만원(5세 이상 입장 가능,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21 BSCC 제작공연 시리즈 MOTI/어디로부터



- 부산시립무용단 이정윤 예술감독의 신작 'MOTI/어디로부터'가 9월 3일부터 사흘간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특히 이번 공연은 (재)부산문화회관이 지난 2019년 연극 '울리우스 카이사르'에 이어 자체 기획, 제작으로 선보이는 두 번째 작품으로, 부산이 낳은 걸출한 무용가인 이정윤 예술감독이 연출과 안무를 맡았다.

작품명인 'MOTI'는 'Motivation(동기)'의 준말이자 모퉁이를 일컫는 경상도 사투리 '모티'를 가리키는 말로, 삶의 '모티'에 선 청년들의 비상을 향한 'Motivator'를 담고 있다. 지난해 갑작스럽게 발병한 코로나19로 그 누구보다 삶의 '모티'로 내몰린 청년들은 '어디에서부터, 누구로부터 내몰린 것인지 미처 질문할 새도 없이 맞닥뜨린 지리멸렬한 삶의 순간'을 살고 있다. 특히 거의 섣달은 되다시피 한 공연예술계의 상황 속에서 청년 예술가들 역시 극한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번 작품은 청년 예술가들이 지속적으로 예술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지역 생태계를 만드는 한편, 젊은이들이 꿈을 놓지 않는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기획된 무대이다. 지역의 젊은 예술가들이 직

접 참여한 Well Made Busan 작품으로, 지난 5월부터 약 2개월 간의 오디션 과정을 거쳐 선발된 지역의 젊은 무용수들이 무대에 선다. 특히 부산 출신으로 국내를 대표하는 무용가로 자리매김한 이정윤 예술감독의 경험과 불확실성의 시대에 극한으로 내몰려진 지역 청년 예술가들의 이야기들이 녹아들어 비상을 꿈꾸는 젊은 예술가들의 춤 랩소디가 한바탕 펼쳐진다. 이번 작품의 음악감독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김종욱 수석지휘자가 맡아 무대의 완성도를 더한다.

지난 2020년 8월 부산시립무용단 예술감독으로 취임한 이정윤 예술감독은 한국무용계의 간판스타로 2002년 국립무용단 입단 첫째 주역무용수로 데뷔한 후 국립무용단 대표 무용수로 자리매김하며 2014년 퇴단하기까지 수석무용수 겸 안무가로 활동했다. 2018년부터 대만 타이페이 국립예술대학 무용학과 교수로 특채 임용되어 재직하였으며 지난해 취임 공연 <소생 甦生>, 2021년 부산시립무용단 정기공연 <본색 本色>을 통해 독창적인 시공간과 무대 이미지를 선보이고 있다. 이번 작품 'MOTI/어디로부터' 또한 작품의 높은 완성도와 더불어 예술로 표현하는 사회적 화두에 대한 성찰의 메시지를 관객들에게 던진다.

일 시 9월 3일 금요일 오후 8:00, 4일-5일 토-일요일 오후 5:00 **장 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ARS 1번)

2021 제12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내 영혼의 친구여



8. 27^④~9. 26^①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민회관,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區 문화회관 외 부산 전역

(사)부산마루국제음악제 조직위원회 516-8293~4,
www.bmimf.co.kr



A LETTER FROM



BMIMF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문화도시 부산을 위한 최정상의 클래식 음악축제 '2021 제12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가 8월 27일 그 화려한 막을 연다.

'마루'는 '파도가 일 때 치솟은 물결의 꼭대기, 산 위의 정상'이라는 뜻을 지닌 순수한 우리말로, 부산마루국제음악제는 지난 2010년 첫 걸음을 내딛은 후 그동안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의 관심 속에 눈부신 성장을 거듭해 왔다. 올해 부산마루국제음악제는 지난해 발생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해외연주자들이 국내에 입국하기 힘든 상황이라 공연 규모를 축소하는 대신 보다 내실있는 무대로 관객과 만난다.

올해 부산국제마루음악제의 메인콘서트는 8월 27일 개막콘서트를 시작으로 '내 영혼의 친구여(A Letter from My Soulmate)'라는 주제로 4차례 펼쳐진다.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리는 개막콘서트의 주인공은 대한민국 최정상급 지휘자로 평가받는 지휘자 정치용이 지휘하는 BMIMF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와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인민 예술가이자 카자흐 국립 예술대학교 총장으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아이만 무싸하자예바(Aiman Mussakhajayeva)로, 말러가 무려 6년간에 걸쳐 삶과 죽음에 대한 철학적, 종교적 성찰을 담아 작곡한 교향곡 제2번 '부활'과 차이콥스키의 유일한 바이올린 협주곡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바이올린 협주곡 작품 35'를 들려준다.

개막무대를 화려하게 열어줄 지휘자 정치용은 뛰어난 바톤 테크닉과 곡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는 통찰력 있는 지휘로, 단원들을 이끌어나가는 품격 높은 음악인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동안 코리안심포니 오케스트라, 인천시립교향악단, 창원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 및 상임 지휘자를 역임했으며 현재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지휘과 교수로 후학양성에 힘쓰고 있다. 바이올리니스트 아이만 무싸하자예바는

1976년 유고슬라비아 베오그라드 국제콩쿠르, 1981년 이탈리아 파가니니 국제콩쿠르, 1983년 도쿄 국제콩쿠르, 1985년 핀란드 시벨리우스 국제콩쿠르, 1986년 모스크바 차이코프스키 국제콩쿠르에서 입상했으며, 2002년 World Honorary IBC의 '20세기 뛰어난 2000명의 음악가', 캠브리지대학 백과사전에 '20세기의 주요 음악인'으로 이름을 올린 바 있다.

메인콘서트 두 번째 무대인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연주회'는 9월 3일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이번 무대에서는 섬세하며 드라마틱한 지휘 테크닉으로 다양한 작품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과천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 서진이 지휘하고 정교하면서도 화려한 테크닉의 바이올리니스트 김현아, 따뜻하면서도 화려한 음색으로 청중을 매료시키는 비올리스트 에르완 리샤의 협연으로, 바이올린과 비올라의 애절하고 우수에 찬 이중주를 감상할 수 있는 모차르트 '신포니아 콘체르탄테 작품 364와 쇼스타코비치의 '운명교향곡'으로 불리는 '교향곡 제5번 작품 47'을 들려준다.

지휘자 서진은 2007년 한국인 최초로 크로아티아 제4회 Lovro von Matačić 국제지휘콩쿠르에서 Papandopulo 현대음악상을 수상하여 '진지한 음악적 해석과 테크닉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발전유공자 음악부문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을 수상했다. 현재 과천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 외에도 Cross Chamber Orchestra 상임지휘자, hello SEM오케스트라 지휘자 및 음악감독, 파주 헤이리예술마을 음악감독, Bring Up International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연세대학교 교수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김현아는 스위스 Tibor Varga 국제콩쿠르 입상을 비롯해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오디션 우승, 필라델피아 챔버 오케스트라 오디션 우승 등 세계적 무대에서 상위 입상, 우승함으로써 탁월한 기량과 풍부한 음악성을 인정받았다. KBS 교향악단 객원수석으로 수년간 활동하며 이미 국내 음악계에서 주목을 받으며 주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비올리스트 에르완 리샤는 유럽과 한국을 오가며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현재 에라토 앙상블, 현대음악앙상블 소리, 오푸스 앙상블, 코리아나 챔버 뮤직 소사이어티, 화음 챔버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있다.

따뜻한 감성과 열정으로 '보는 음악'의 즐거움까지 선사하는 지휘자 윤승업이 지휘하는 BMIMF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마련되는 메인콘서트 세 번째 무대는 9월 3일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펼쳐진다. 이번 무대에서는 계명대학교 교수로 있는 피아니스트 알렉 쉬친의 협연으로, 모차르트가 작곡한 마지막 오페라 세리아인 '티토왕의 자비' 서곡을 비롯해 브람스의 '전원교향곡'이라고 불리는 밝고 사랑스러운 '교향곡 제2번 작품 73', 그리그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피아노 협주곡 작품 16'을 들려준다.

지휘자 윤승업은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스페인 마드리드 왕립극장에서 개최된 제1회 Jesus-Lopes Cobus 국제지휘콩쿠르에서 입상했으며, 한국인 최초로 Karajan 협회에서 주최하는 Interaction Conducting Workshop에 2006년과 2007년에 우수지휘자로 선발되어 협회에서 주관한 Kritisch Orchester, Leipzig Hochschule Orchestra를 지휘하여 많은 호평을 받았다. 2012년부터 9년간 상임지휘자로 충남교향악단을 이끌었으며 현재 국립경찰교향악단 단장 및 상임지휘자로 재직 중이다. 피아니스트 알렉 쉬친은 1994년 러시아 '나제쥐다' 콩쿠르 입상을 비롯해 1997년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 국제콩쿠르 2위, 1998년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국제콩쿠르 1위 및 특별연주상 수상 후 1999년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 올해의 연주자로 선정되며 뛰어난 기량을 인정받았다.

메인콘서트 네 번째 무대는 콘체르토 컨피티션 갈라콘서트로, 9월 15일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에서 펼쳐진다. 콘체르토 컨피티션 갈라 콘서트는 국내외 연주자들의 경연을 통해 우수한 연주자를 발굴하기 위한 무대로, 본선에 오른 연주자들이 마지



막 우승을 놓고 실력을 겨룬다. 올해 무대에서는 강운서(마림바), 이현주(플루트), 문시은(바이올린), 임채문(더블베이스), 류지원(플루트), 김찬이(피아노), 이정혁(피아노)이 지휘자 김경희가 지휘하는 서울챔버오케스트라와 함께 무대에 선다. 섬세하고 깊이 있는 음악성과 따뜻한 인성으로 오케스트라를 이끄는 지휘자 김경희는 과천시립교향악단, 전주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 및 지휘자, (사)한국지휘자협회 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숙명여자대학교 교수로 있으며, 2012년 여성 지위 향상과 음악분야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바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라는 세계적 대유행 속에서 해외연주단체를 영상을 통해 만날 수 있는 '국제영상음악제'를 마련한다. 9월 16일부터 사흘간 영화의전당 야외극장에서 마련되는 이번 영상음악제에서는 지난해 영상제에서도 소개된 바 있는 우크라이나 국립교향악단(The National Symphony Orchestra of Ukraine)를 비롯해 홍콩의 구스타브 말러 오케스트라(Gustav Mahler Orchestra), 타일랜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Thailand Philharmonic Orchestra), 루마니아 바카우의 미하일 요라 필하모닉 오케스트라(Mihail Jora Philharmonic Orchestra Bacau) 등 4개팀을 만날 수 있다.

관객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기 위한 '프롬나드 콘서트'는 올해 4차례 진행된다. 9월 1일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에서는 지휘자 금난새가 이끄는 뉴월드 챔버오케스트라가 관객과 만난다. 1997년 서울국제음악제를 통해 데뷔한 유라시안 필하모닉에서 출발한 뉴월드 챔버오케스트라는 그동안 필하모닉, 챔버, 스트링, 앙상블 등 다양한 편성의 프로그램으로 매년 30여 개 지역, 100여 회의 연주를 성공적으로 마침으로써 명실상부 한국을 대표하는 오케스트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무대에

서는 비올리스트 에르완 리샤, 플루티스트 유재아, 클라리네티스트 백양지, 튜바 연주자 문지웅이 함께한다. 뉴월드 챔버오케스트라는 9월 8일 영도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또 한번 관객과 만난다. 이날 무대에서는 피아니스트 아비람 라이케르트, 바이올리니스트 김혜지, 하모니카 연주자 이운석, 첼리스트 최아현이 협연자로 뉴월드 챔버오케스트라와 호흡을 맞춘다. 앞서 9월 3일 동래문화회관 대극장에서는 지휘자 금난새가 지휘하는 KNN방송교향악단이 무대에 선다. 2016년 지역방송 최초로 창단한 KNN방송교향악단은 2018년 양경아 음악감독 체제로 새롭게 재편된 후로 국내 정상급 지휘자와 우수한 연주자들을 유치하여 부산경남의 대표적인 민간오케스트라로 자리잡았다. 피아니스트 강한솔, 정은혜, 플루티스트 이효권, 클라리네티스트 이환석, 마림바 연주자 김가빈이 협연자로 관객과 만난다. 프롬나드 콘서트 마지막 무대는 판도라 밴드의 무대로, 9월 16일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에서 펼쳐진다. 판도라 밴드는 지난 10년동안 이어져온 탄탄한 호흡으로 재즈 뿐 아니라 팝, 가요, 영화음악 등 다양한 장르를 연주해온 퓨전 재즈팀이다.

이밖에 초청연주자들의 환상적인 앙상블 무대를 만날 수 있는 '앙상블 콘서트', 부산연주자들의 무대로 꾸며지는 '부산음악인 시리즈', 차세대 오케스트라 육성을 위한 드림 프로젝트, 부산 지역 내 학교를 찾아가는 아웃리치 콘서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 음악제에서는 스페셜 콘서트로 부산시 마스코트 부기와 함께 떠나는 '부기! 오페라 나라의 무지개를 찾아줘!'가 열린다. 오페라를 동요로 편곡한 어린이 맞춤형 오페라 공연으로, 9월 18일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에서 두 차례 만날 수 있다.



서울챔버오케스트라

메인콘서트I [개막콘서트]

8월 27일(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지휘 정치용 연주 BMIMF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협연 아이만 무싸하자예바(바이올린)

양상블콘서트I 'BMIMF 양상블'

8월 31일(화)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연주 임승구(색소폰), 조규형(트럼펫), 박용인(혼)
 김성수(트롬본), 문지웅(튜바), 김미성(피아노)

프롬나드콘서트I '뉴월드챔버오케스트라'

9월 1일(수)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지휘 금난새 연주 뉴월드 챔버오케스트라
 협연 에르완 리샤(비올라), 유재아(플루트), 백양지(클라리넷)
 문지웅(튜바)

메인콘서트II

9월 3일(금) 오후 7:3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지휘 서진 연주 부산시립교향악단
 협연 김현아(바이올린), 에르완 리샤(비올라)

프롬나드콘서트II 'KNN방송교향악단'

9월 3일(목) 오후 7:30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지휘 금난새 연주 KNN방송교향악단
 협연 강한솔(피아노), 정은혜(피아노), 이호권(플루트)
 이환석(클라리넷), 김가빈(마림바)

프롬나드콘서트III '뉴월드챔버오케스트라'

9월 8일(수) 오후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지휘 금난새 연주 뉴월드 챔버오케스트라
 협연 아바람 라이케르트(피아노), 김혜지(바이올린)
 이윤석(하모니카), 최아현(첼로)

메인콘서트III

9월 9일(목) 오후 7:3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지휘 윤승업 연주 BMIMF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협연 알렉 슈친(피아노)

부산음악인시리즈_음악영재

9월 9일(목)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연주 박주영(마림바), 최예린(피아노), 김채현(피아노)
 이지혜(바이올린), 박하은(바이올린), 김이솔(첼로)
 허서영(바이올린), 박윤서(바이올린), 박소희(트럼펫)

부산음악인시리즈_라이징스타

9월 10일(금)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연주 유지영(피아노), 김민석(클라리넷), 정다연(소프라노)
 강재현(플루트), 박찬미(바이올린), 김성진(클라리넷)
 양지혜(피아노), 이정혁(피아노)

양상블콘서트II '부산음악인양상블'

9월 13일(월)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연주 양상블 루치아, 라움 트리오, 모아 트리오
 엔칸토 피아노 트리오

부산음악인시리즈_부산음악인

9월 14일(화)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연주 조민현(피아노), 강주희(플루트), 안수빈(첼로)
 김대훈(색소폰), 김우진(바리톤), 곽소정(피아노)

메인콘서트IV [콘체르토 컴피티션 갈라콘서트]

9월 15일(수) 오후 7:30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지휘 김경희 연주 서울챔버오케스트라
 협연 강윤서(마림바), 이현주(플루트), 문시은(바이올린)
 임채문(더블베이스), 류지원(플루트), 김찬이(피아노),
 이정혁(피아노)

프롬나드콘서트IV '판도라 밴드'

9월 16일(목)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연주 볼로킨 바실리(색소폰), 알렉세이 알렉스(트럼펫)
 노슬 알렉산더(기타), 박은주(피아노)
 오범석(베이스 기타), 김진철(튜바), 한동민(드럼)

국제영상음악제

9월 16일(목)-18일(토) 오후 7:30 영화의전당 야외극장

스페셜 콘서트 '부기! 오페라 나라의 무지개를 찾아줘!'

9월 18일(토) 오후 2:00, 4: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차세대 오케스트라 육성을 위한 '드림프로젝트'

9월 25일(토)-26일(일) 오후 1:00, 5: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MY SOULMATE

체홉으로 하나 된 의미 있는 기획

부산시립극단 제70회 정기공연 ‘벗꽃 동산’

◆ 허은 연극평론가, 전 경성대학교 연극과 교수

부산시립극단 2020 시즌 프로그램의 주제는 안톤 체홉(Anton Pavlovich Chekhov)이다. 2020년 7월에 <갈매기>(김지용 연출)가 공연되었고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 제68회 정기공연으로 체홉의 단편소설을 각색한 작품 <체홉 이야기>가 릴레이 형식으로 공연되었다. <벗꽃 동산>은 원래 2020년 4월 공연으로 기획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되었다가 우여곡절 끝에 해를 넘겨 2021년 7월 1일부터 3일까지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공연되었다.

곳은 날씨와 코로나19의 심술 속에서도 공연장은 모처럼 활기를 되찾았다. 비록 한 좌석씩 띄어 앉긴 했지만 1층은 거의 만석이었고, 극장 로비부터 관람객들로 붐볐다. 부산시립극단의 특별한 기획 덕분에 안톤 체홉의 명작을 모처럼 다양하게 감상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 공연의 우수성을 따지기 전에 부산시립극단의 최근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부산의 관객들은 의미 있는 선물을 받았다. 또 한편으로는 부산의 다양한 연출가, 작가, 연기가 하나의 주제를 통해서 함께 자리할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였다.

시즌 기획의 마지막 편이 된 <벗꽃 동산>은 <갈매기>, <바나 아저씨>, <세 자매>와 더불어 안톤 체홉의 대표작으로 알려져 있다. 20세기 초 러시아를 배경으로 한 이 작품은 막대한 빛으로 대대손손 관리해오던



영지를 팔아야 할 위기에 처한 여 지주(地主) 라네프스까야(김은희 분)의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한다. 과거의 영광을 버리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녀의 센터멘탈리즘이 지식인 드로피모프(김신호 분)의 이상주의와 신흥 상인 로빠힌(서보기 분)의 현실주의에 부딪히는 모습으로 격변을 겪던 당대 현실을 사실적으로 묘사한다. 동시대의 연출가이자 배우인 스타니슬랍스키는 체홉의 <벚꽃 동산>을 읽었을 때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다고 체홉에게 전했다고 한다.

연극사에 남겨진 명작들은 이미 유명세를 가지고 있고 관객에게 익숙해서 이를 무대화하는 경우 지금 이곳의 연출이나 배우들은 항상 긴장하기 마련이다. 이미 희곡 작품으로 명불허전 검증되었기 때문에 이를 새롭게 재탄생시켜야 한다는 강박 관념에 시달리기도 한다. 연출이나 배우가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명작의 품위가 훼손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명작의 품위를 지키면서도 새로운 해석을 통해 색다른 맛을 관객에게 선물하기도 한다. 원작은 그 작품이 살고 있었던 과거의 사회와 그 시대의 미학적 원리 속에 존재했지만 지금 이곳의 연출은 이 시대의 사회와 미학적 원리와 함께하고 있음이 바탕에 깔려 있어야 한다. 때에 따라서 연출은 원작의 재해석 보다는 원래의 향기를 그대로 전하는 경우도 있지만 새로운 해석이라는 이름으로 형식을 변용하기도 하고 비틀기도 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이곳, 이 시간의 관객에게 무대에서 발화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하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 무대가 말하고자 하는 것과 동시대 관객이 얻는 것이 균형을 이루어야 비로소 연극은 완성된다.

강성우 연출가는 그 균형점을 찾으려고 무던 노력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비록 무대가 주는 시각적 요인들이 다소 불편했지만 연출의 글에서 말하듯이 원작의 흐름을 그대로 살리는 데 집중하였고 걸로는 화려하고 아름답지만 몰락해가고 소멸해가는 삶의 근원적인 부질없음을 보여줌으로써 비극과 희극이 상징적으로 교차하며 주제 의식을 구현하는 데 집중하였다. 그러한 선언과 방향성을 위한 강성우의 연출력을 보여준 작품이다. 그러나 연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목적이 완전하게 달성되었다고 보기에 의문이 가는 부분이 군데군데 보인다. 연기자의 연기력은 뒤로하고라도 무대 전체를 지배하는 무대 장

치 등 시각적 요소들은 관객의 집중력을 흐리게 했고 연기자들의 공간 활용이나 소품, 소도구의 사용은 그것이 거기에 있기에 지문의 지시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라네프스까야의 집 아기 방에 놓여 있는 다양한 소도구나 소품들은 그 일가(一家)의 과거 기억들이며 결코 버릴 수 없는 추억들이다. 계단을 통해 오르게 되어 있는 작은 2층 공간은 그들의 중심 정서가 되는 중요 요소이지만 단지 연기자의 설정된 동선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버려진 공간이 되어 있다. 창을 통해 보이는 가상의 공간 역시 관객의 상상력을 자극하기에 너무 무미건조하게 처리되어 버렸다. 설정된 창문으로 보이는 벚꽃 동산은 이 작품을 지배하는 핵심 요소지만 가상의 공간에 대한 연기자의 반응 역시 너무 기계적이어서 여운을 남기지 못한다. 백 년 넘은 책장과 그 위에 꽂혀 있는 오래된 책과의 교감, 연기자의 반응은 무덤덤하다.

특히 마지막 장면의 음향과 모두가 떠난 뒤의 피르스(이혁우 분) 홀로 남는 공간은 극 전체를 지배하는 중요한 모티브임에도 불구하고 무대 위에서 내려오는 정체불명(?)의 구조물 때문에 여운이 남지 않는다. 과거의 모두가 떠난 텅 빈 방과 늙은 하인, 그리고 멀리서 들리는 아련한 뱃나무 치는 도끼의 둔탁한 소리를 통해 앞서 이 방에서 있었던 화려하면서도 희비극적인 무도회를 떠올리고 싶었던 기대는 지나친 것인가? 피르스만이 무대에 홀로 남아 고군분투하며 배역에 몰입할 뿐 그를 도와줄 환경은 거의 없다.

배우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무대 장치도 말하고 행동한다. 장치와 주요 인물의 연기가 교감하고 있다는 느낌을 세밀하게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장치는 장치대로 연기는 연기대로 따로였다. 소품이나 소도구들에 대한 보다 정밀한 배려가 있었다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특히 방 한편에 세워져 있는 100년 넘은 책장의 허술한 활용은 그 방의 주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 사상의 틀을 상징하기엔 부족함이 많았다.

이번 부산시립극단 시즌 프로그램은 분명 의미가 있었고 맛깔스러웠던 것이 분명한데도 과연 체홉의 작품 세계를 <벚꽃 동산>을 통해 연출의 의도만큼 만끽했느냐고 묻는다면 자신 있게 '그렇다'라고 대답하기엔 망설여지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공연을 복기(復棋)하면서 그 이유를 다시 생각해 본다.

생명력의 향연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연주회 ‘그대를 그리웁다’

◆ 이정호 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 교수

지난 7월 8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펼쳐진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스타 프로젝트 특별연주회 ‘그대를 그리웁다’를 보며 떠올린 생각은 바로 ‘생명력의 향연’이다. 주제에 깔린 모티브들은 ‘죽음’과 연관된 것이지만, 바로 그 ‘죽음’에 관한 연주를 통해 새로운 ‘생명력’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번 공연은 슬픔의 역사, 그중 6·25 한국전쟁을 주제로 삼았다. 전쟁으로 인해 부산으로 온 피란민의 삶, 한국전쟁의 참혹함과 아픔, 그리움들을 음악 언어로 표현한 것으로 인간 내면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이다. 프로그램을 보면 공연은 전체 4부로 구분하였다. 1부 ‘회상’에서는 이정호 작곡의 대금독주를 위한 <소나무>, 대풍류에 의한 실내악 <무화>가 연주되었다. 먼저 대금독주를 위한 ‘소나무’는 높은 산 위에 홀로 서 있는 외로운 소나무의 모습을 표현한 곡으로, 대금 연주자 손한별과 피아노 김보은의 연주로 들려주었다. 무대가 시작 하면 대금 연주자가 어둠 속에서 홀로 걸어 들어와 무대 앞쪽 끝에 걸터앉아 조용히 대금을 불기 시작하였고, 적막한 가운데 울려 퍼지는 묵직한 소리는 정적 사이사이를 지나 깊은 울림으로 관객들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이내 피아노의 화려한 반주가 시작되며 앙상블이 진행되는데, 대금의 높은 ‘창’소리는 마치 소나무의 기개를 표현하듯 곳곳하게 퍼져 나왔고, 피아노는 그 대금소리를 포근히 감싸주었다. 아름다웠던 추억을 ‘회상’하듯 진행되었다.

다음 무대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의 작은 유닛팀인 BMTO(거문고 주윤정, 가야금 하지희, 해금 강민정, 대금 안현영, 피아노 김보은)의 연주로 대풍류에 의한 실내악 <무화>가 이어졌다. 곡의 작곡자로서 설명을 조금 덧붙이자면, <무화(無化)>라는 제목은 프랑스의 작가이자 철학자인 장 폴 사르트르(Jean-Paul Sartre, 1905~1980)의 저서 <존재와 무, 자유를 향한 실존적 탐색>에서



소개된 무화(無化) 작용에서 가져왔다. '없어지는 현상'인 무화 작용을 통해 대풍류 주요 선율악기인 피리를 빼고 무화하는 작은 과정을 표현한 것으로, 유한(有限)한 것에서 자기 자신을 초월하고 무화하는 영원한 운동, 이것이 바로 무한성(無限性)으로 이어진다고 보았다. 또한 무용반주 및 굿에서 행해지던 '대풍류' 모티브에 의해 '무용의 꽃(舞花)'과 '무속의 꽃(巫花)'이라는 다양한 의미도 포함된다.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훌륭한 연주자들이 여기 모여, 더할 나위 없이 멋지고 귀중한 연주를 보여주었다.

2부-'전쟁 그리고 지옥'에서는 최정욱 구성의 타악합주 <Infernal>, 이정호 작곡의 거문고독주를 위한 <Burning>이 연주되었다. 먼저 <Infernal>은 최정욱, 이현서, 이충인, 전정현 등 4인의 타악연주자들이 서로의 에너지를 합하여 모두에게 전해주었다. 대북으로 포문을 연 뒤 여러가지 쇠소리 악기들로 만들어낸 직관적인 사운드가 좌중을 압도하였다. 이내 장구 솔로와 함께 더욱 몰아쳐가며 다양한 리듬을 표현해가면서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좋은 구성력과 네 명의 연주자가 만들어내는 호흡감은 충분히 훌륭하였고, 이에 객석의 관객들도 큰 박수로 이들의 연주에 화답하였다.

다음 이어진 <Burning> 무대에서도 에너지 넘치는 열정적인 연주가 이어졌다. 이미 이곡의 위촉초연자로서 많은 연주경험이 있는 송다솔 연주자는 이번 공연에서도 의심의 여지없이 깊이 있는 연주를 들려주었다. 전자사운드(MIDI)의 진행 위에 거문고 특유의 민속악적 선율주법이 진행되는데, 유명한 평론가의 말을 빌리자면 '송다솔 연주자는 <Burning>이라는 곡과 하나가 되었다'고도 표현한 바 있다. 이처럼 하나의 곡을 자기화시켜 연주한다는 것은 긴 연습시간이 아니고선 불가능한데, 깊은 연구와 연습을 통해 좋은 연주를 보여준 송다솔 연주자에게 작곡가로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3부-'죽음, 그리움'에 포함된 두 곡은 모두 노래곡으로 박성희 명창이 노래하였다. 먼저 <상여가 그대 다시 못 올 강을>에서는 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 작곡 석사과정 중인 차민영이 작곡과 피아노를 맡아 '상여소리'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감각적인 작품을 만들었다. 특히 피아노 인트로는 곡 전체적인 분위기를 전달하였고, 그 위에 대아쟁과 소아쟁을 넘나들며 멋진 연



주를 한 정선경의 아쟁연주도 빛났다. 애절하면서 격한 아쟁의 선율은 극한의 클라이맥스로 우리를 이끌었다. 이어서 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 작곡 박사과정 중인 이지영 작곡의 <시연가만단정화를 하고지고>는 '님을 그리워하는 노래곡'으로 가슴 절절한 가사와 노래선율이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고려속요 '가시리'와 판소리 춘향가 중 '갈까부다' 대목을 접목시켜 작곡하여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시간여행을 하듯 우리를 두 세계로 인도하였다.

4부-'Death & Rebirth'에서는 이정호 작곡 <Death, Rebirth, Cycles>가 전현진의 거문고 독주로 약 10분간의 긴 호흡으로 연주되었다. 오케스트라 사운드 위에 특수주법들이 표현되고, 연주자의 진지하고 멋진 퍼포먼스를 통해 죽음이 승화되는 과정을 그려냈다. '윤회'를 가정하며 쓴 이 곡의 곡 해설 중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죽음은 이내 깊은 어둠으로 빨려 들어가지만, 어느새 새 세상에 대해 다시 첫눈을 뜨며 호기심 어린 눈망울이 새 빛을 본다. 그렇게 또다시 길고도 짧은 한 일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 곡은 순환의 인생을 가정하며 삶과 죽음을 표현하였다.'

연출, 조명, 무대디자인, 영상 등 전체적인 무대연출이 아주 세련되었고, 연주회의 여러 곡들을 따로따로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뛰어난 하나의 작품을 감상하는 느낌을 받아서 좋았다. 거기에 연주자들의 멋진 연주도 한몫하였다. 이처럼 앞으로도 우리 국악이 다양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관객들과 소통하기를 바라고, 그 한가운데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 떠나는 여행

(재)부산문화회관 기획전
‘매그넘 인 파리(Magnum in Paris)’

◆ 장원 미술비평가, 예술학박사

이번 여름에는 사람들이 휴가나 여행을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실행에 옮기고 있을까?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에 따라 높아진 피로감과 느슨해진 경각심 사이로 침투한 변이 바이러스들은 무더위 속에서 숨 쉬기도 어려운 마스크 너머로부터 우리를 더욱 강력하게 위협하고 있다. 그럼에도 올 여름의 국내 여객기 예매율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다는 것은, 일상으로부터 벗어나 휴식과 자유를 누리고픈 우리의 열망이 그만큼 커졌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특히나 해외여행은 고사하고, 바다 건너편 인접 국가인 일본의 올림픽 경기마저 무관중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사람들의 피로감과 불안감은 우리를 그 어느 때보다도 위축되게 한다. 어떤 이들은 아마도 외출이나 여행 대신, 에어컨 바람을 쐬며 TV로 경기를 시청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가장 안전하고 자유로운 휴식이라고 일찌감치 마음을 정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번 여름부터 10월 초까지 부산문화회관에서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여행이 하나의 대안으로 마련되어 있다. 바로 <매그넘 인 파리(Magnum in Paris)>라는 사진 전시회이다. 타지로의 여행이나 외출이 불안하면서도 일상의 공간으로부터 벗어나고픈 열망이 강한 이들에게는, 어쩌면 이 전시가 안성맞춤의 기회일 수도 있다. 여기에서는 사진을 통해 프랑스의 파리라는 공간을 여행할 수도 있으며, 또한 시간을 거슬러 이 도시의 근현대사를 다양하게 살피는 여정에 오를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전시는 모든 관람객들에게 파리로 떠날 수 있는 비행기 티켓(전시 입장권)과 프랑스 입국에 필요한 여권을 제공한다.

‘매그넘’이란 원래 라틴어로, ‘크다’란 뜻과 여기에서 파생된 ‘중요한’, ‘대표적인’이란 사전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매그넘 포토스(Magnum Photos)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기록한다’는 포토저널리즘의 기치 아래,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는 보도사진가들이 활동해오고 있는 자유 보도 사진작가 그룹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47년에 첫 걸음을 내딛은 이 그룹은 앙리 카르티에 브레송(Henri Cartier-Bresson), 로버트 카파(Robert Capa), 데이비드 시무어(David Seymour) 등의 사진가들이 소속 회원들의 작품 저작권을 지키는 동시에 대기업화된 언론사로부터 자율성을 보장받기 위한 취지로 창립하였다. 그러므로 이들은 보도사진을 촬영하면서도 언론사에 소속된 사진가들과 달리 각자의 자유로운 입장과 시선에 따른 개성을 발휘해오고 있다. 즉, 기록과 증언이라는 포토저널리즘에 충실하면서도 사진의 예술성을 동시에 성취하는 것이 매그넘 사진가들을 세계적인 사진작가로 인정받게 해준 원동력인 것이다. 그만큼 수준 높은 ‘작품’과 보도 사진의 윤리를 철저히 지키고자 하기 때문에 매우 까다로운 가입 조건을 내걸고 있으며, 대한민국 사진가 중에는 아직 회원이 배출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국내에서는 매그넘 전시회가 여러 차례 열리면서 관객들과 꾸준한 만남을 가져왔으며, 특히 9명의 매그넘 작가들이 한국을 주제로 2년 간 사진에 담아낸 <매그넘, 사진의 비밀 - Brilliant Korea>전이 2015년에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될 때에는 필자가 한 부분의 기획을 맡아 전시에 참여하기도 했다.

매그넘 포토스에 대한 일반적인 소개는 이쯤 하고, 부산에서 파리로 떠나는 여행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자. 부산문화회관에서 <매그넘 인 파리>를 통한 시공간의 여행은 매그넘 소속 작가 39명의 300점에 가까운 사진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매우 풍요로운 정보와 더불어 시공간을 거스르는 여행에 걸맞은 다채로운 연계 프로그램들이 제공된다. 관객들은 먼저 입장권으로 부산-드골 공항의 항공 탑승권을 끊으면, 입국을 허락해줄 여권과 체험 워크북을 받게 된다. 물론 여권심사만큼 입장 전의 정확한 발열 체크는 필수이며, 프랑스 국기 모양의 스티커가 발부되어 모든 여행객의 안전 관람이 인증된다.



<매그넘 인 파리> 여행을 위한 항공 탑승권과 여권

그런데 관객이 들어서며 마주하게 되는 파리에서의 첫 여행지는 시간이 한참 되돌려진 19세기 중반의 나폴레옹 3세 시대이며, 여기에서는 당시의 풍경을 담아낸 일러스트뿐만 아니라 고(古)지도로 통해 파리의 옛 시가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전시장에 배치된 옛 도서들이나 가구 등은 매그넘 사진들을 보기 전에 작가들이 주제로 담아낸 파리에서의 시간여행을 하는 듯한 분위기를 한층 강화해준다. 그렇다면 이번 전시는 왜 파리가 배경일까? 그리고 왜 파리라는 공간으로의 여행만이 아닌, 그곳의 시간을 거꾸로 여행하는 것일까?

독일의 철학자 발터 벤야민이 예찬했듯이, 근현대의 수많은 사상가와 예술가들 및 문호들은 근대 도시의 이상적인 모델로 파리를 꼽았다. 파리가 지금의 면모를 갖추게 된 것은 1860년대 나폴레옹 3세 치하에서 당시 파리 시장이었던 오스망 남작의 재개발 프로젝트 이후부터였다. 이때 현대적인 상수도 시설을 통해 도시를 정비했고, 개선문을 중심으로 한 환상(環狀)형도로는 근대 사회의 기능성과 실용성을 표상하며 많은 도시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시민혁명으로 이룩한 새로운 사회 속의 파리는 현대적 면모를 갖추어 가며 미술, 문학, 패션, 음식 등 예술과 문화의 영역을 선도했고, 에펠탑이 상징하듯이 만국박람회를 통해 당대의 첨단 산업을 주도했다. 무엇보다도 사진과 영화가 발명된 곳 역시 파리였으며, 세계 최초의 공공미술관인 루브르미술관 역시 파리에 자리 잡고 있다. 프루스트, 발자크, 빅토르 위고, 조르주 상드, 플로베르, 에밀 졸라, 보부아르, 카뮈 등의 대문호들과 함께 마네, 모네, 르누아르, 드가, 세잔, 고갱, 마티스 등의 미술가들을 배출하거나 피카소 같은 외국

인들이 모여드는 예술적 영감의 중심지가 파리였던 것이다. 음악에서도 생상, 드뷔시, 라벨, 사티, 메시앙 등을 통해 독일이나 러시아 못지않게 서양 고전음악의 커다란 한 축을 담당했으며, 20세기에는 베르그송, 사르트르, 메를로-퐁티, 리오타르, 라캉, 푸코, 바르트, 들뢰즈, 데리다 같은 사상가들을 배출한 현대철학의 중심지였던 것이다. 매그넘 사진들을 통해 우리가 여행하는 파리라 불리는 공간은 이 파리지엔들의 생전 모습도 만날 수 있게 해주는 동시에, 세계 근현대 문화사의 족적을 남긴 도시의 시간 여정을 함께 관통하게 해준다. 이곳에서 여행객(관람객)들은 이내 보들레르가 근대 파리지엔의 특성으로 명명했던 ‘플라뇌르(Flâneur: 산책자)’가 되어 그랑 팔레(Grand Palais)의 개관 당시 일러스트, 파리 만국박람회 사진집, 에펠탑의 설계부터 건립 과정, 그리고 매그넘 사진들을 통해 193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시간 여행을 즐길 수 있게 될 것이다.

벌써부터 많은 언론매체에서 부산문화회관의 이번 전시에 대한 호평이 쏟아지고 있는 것은, 아마도 전시 자체의 충실도와 더불어 다양한 설정과 연계 특강 등 <매그넘 인 파리> 부산 전시에서만 특별히 기획된 세심한 프로그램들이 곳곳에서 체감되기 때문일 것이다. 부산에서의 <매그넘 인 파리>전은 처음 공개되는 파리의 스케치 영상과 한국에서만 구성된 ‘엘리엇

어윗(Elliot Erwit) 특별전’을 포함하며, 122컷의 비공개 사진을 영상으로 담은 자료도 함께 볼 수 있다. 여기에 ‘파리, 패션의 매혹-파리의 패션과 럭셔리한 파리의 얼굴’ 섹션은 파리를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강력한 유혹일 것이다. 이 같은 파리(Paris)라는 공간에서의 시간여행을 위해 기획된 다양한 분야의 ‘아티스트 콜라보레이션’ 작업과 함께, 부산문화회관의 이번 전시를 위해 문학, 예술사, 사진, 패션 장르의 전문가들이 초청되어 <매그넘 인 파리>를 새롭게 보기 위한 특강이 특별히 기획되었다. 실제로 이 특강을 듣고 난 직후 또 다른 감상이 가능했다며 만족감을 표현하는 관람객들을 현장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파리의 역사와 관광 명소를 알아볼 수 있는 체험코너 역시 여행객(관람객)들의 편의를 위해 마련되어 있으며, 직접 파리에 방문한 것처럼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사랑해 벽(Love Wall)’을 재현한 포토존도 갖추어져 있다. 여행이 끝나면 갈증을 채워줄 프랑스의 천연 탄산수 페리에(Perrier)는 SNS로 인증하여 받을 수 있다. 프루스트의 소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제목처럼 이번 여름에는 역사와 예술의 역사 속 상상의 여행을 떠나보기를 권해본다. 그리고 이 시간여행에서 매그넘 사진가들이 카메라 렌즈를 통해 바라보고자 했던 세상, 그들이 사진을 통해 기록한 사람의 모습들을 함께 느끼게 되는 소중한 체험의 여정이 되길 바란다.



매그넘

MAGNUM IN PARIS

문득, 파리. 눈앞의 파리



Eiffel tower 100th anniversary, Paris, France, 1989 © Elliott Erwitt/Magnum Photos

부산문화회관 전시실

2021.06.28 - 10.10

인 파 파리

부산문화회관

(재)부산문화회관 기획전
매그넘 인 파리

일 시 | 6월 28일(월)-10월 10일(일) 전시실
 입장료 | 성인(20세 이상) 1만5천원,
 청소년(14세~19세) 1만3천원
 어린이(3세~13세) 1만원
 문 의 | 가우디움어소시에이츠 070-7779-8990
 www.magnuminparis.com



세계문화수도라 불리는 파리의 다양한 모습을 조망해보는 특별한 사진전 '매그넘 인 파리'. 로버트 카파, 마크 리부, 엘리엇 어윗 등 20세기 사진의 신화로 불리는 매그넘 포토스(Magnum Photos)의 소속 작가 39명, 작품 346여 점(작품 224점, 8개의 영상으로 구성된 122점의 사진)을 통해 1930년대부터 오늘날까지 파리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살펴볼 수 있다.

전시기간 동안에는 전시와 연계한 다양한 주제의 특강도 열린다.

- 관람시간/오전 10:00-오후 6:00 (입장 마감 오후 5:00)

아트뱅크코리아 초청
소리나 피아노 듀오 리사이틀

일 시 | 8월 10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전석 2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 아트뱅크코리아 442-19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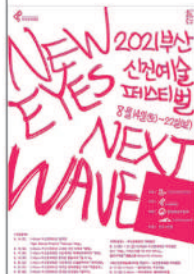


자매 피아니스트 박정희, 박미정으로 구성된 피아노 듀오 '소리나'는 어린 시절부터 듀오활동을 함께 해온 두 자매가 빛어내는 긴밀한 호흡과 리듬의 조화, 강약의 철저한 대비로 매 연주마다 관객들에게 드라마틱한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언니 박정희는 서울대학교 음대와 미국 뉴잉글랜드 음악원(석사 및 Graduate Diploma), 론지 음악원(피아노연주 Artist Diploma), 보스턴 대학교(피아노연주 박사)를 졸업하고 현재 동아대학교 교수, Trio Piacce 멤버로 활동하고 있다. 동생 박미정은 선화예고 재학 중 도미, Walnut Hill School for the Arts, 뉴잉글랜드 음악원(피아노 연주 학사 및 석사), 보스턴 대학교(피아노연주 박사)를 졸업하고 현재 미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연주 활동을 펼치고 있다.

새로운 시선, 차세대 예술
2021 부산신진예술페스티벌

일 시 | 8월 14일(토)-22일(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중극장·챔버홀·사랑채극장·야외마당, 부산민회관 소극장
 입장료 | 전석 2만원(야외마당은 공연은 무료)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630-5200



신진예술인을 위한 본격적인 등용문이자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발굴하기 위한 실험적인 공연축제 '2021 부산신진예술페스티벌'.

지난 2019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2021 부산신진예술페스티벌'은 지역의 잠재력 있는 신진예술인들의 공연예술 작품을 발굴하는 한편 시민을 위한 축제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Tiger Dance Project 'Fantasy Vlog'
8월 14일(토) 오후 5:00 중극장
 올해 1월 창단한 신생무용단 Tiger Dance Project의 창작무용.
 • 연출, 안무/조현도
 • 출연/조현도, 김윤상, 김지공, 양서진, 정철한, 이가영, 이소희

극단 시지프 '달밤'
8월 15일(일) 오후 5: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코로나 시대 지친 우리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전하는 음악극 '달밤'.
 • 원작/이태준 • 각색, 연출/유명훈
 • 출연/박찬서, 홍성락, 김다정, 윤현찬, 김선진, 김나희

빅픽처스스테이지 '코마'
8월 17일(화) 오후 7:30 사랑채 극장
 제3회 부산창작회공 공모에서 금상을 수상한 범죄 스릴러극.
 • 연출/김정환
 • 출연/최현정, 신승일, 이설

청춘나비 '살그시'
8월 19일(목) 오후 7:30 중극장
 격동의 시대였던 1980년, 한 골목시장을 배경으로 당시 시장 상인들의 애환을 그려낸 작품.
 • 원작/주형준 • 각색, 연출/박용희
 • 출연/채민수, 전자연, 배문수, 서보기, 강승환, 최지혜, 배규진, 왕준호, 정다빈 외

드림큰씨어터 '최저인간'
8월 20일(금) 오후 7:30 사랑채극장
 정체 모를 바이러스가 퍼쳐 전 세계 인구 80%가 좀비가 된 가상세계를 배경으로 한 스릴러극.
 • 작, 연출/윤준기

- 출연/엄지영, 황자미, 김병철, 김인하, 양은미, 박규한, 김성열, 김민지, 김승완 외

현대무용단 자유 '적정온도'
8월 21일(토) 오후 5:00 대극장
 타인과의 관계에서 공허와 혼돈을 겪는 우리의 모습을 표현한 현대무용작 자유의 창작무용.
 • 안무/이연주, 이혜리
 • 출연/이연주, 이혜리, 황정은, 하주은, 김규나, 박수인, 강선미, 임소희, 민혜빈 외

루츠리팀 '청신(淸神)'
8월 21일(토) 오후 5:40 야외광장
 동해안별신굿을 재해석한 월드뮤직 트랜스 그룹 '루츠리팀'의 무대.
 • 출연/최형석(전통타악&소리), 고명진(가야금&양금), 송지훈(VJ), 이광혁(Producer & DJ)

킬라몽키즈 'Future Crane'
8월 21일(토) 오후 6:00 야외광장
 스트리트 댄스팀 '킬라몽키즈'가 스트리트 댄스로 새롭게 해석한 동래학춤.

포스(FORCE) '아슬'
8월 21일(토) 오후 6:20, 22일(일) 오후 6:00 야외광장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흔들리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담은 컨템포러리 서커스 무대.

서커스 디 랩 '또 다시 서커스'
8월 21일(토) 오후 7:00, 22일(일) 오후 6:40 야외광장
 대한민국에서 손꼽는 서커스 기예자들의 집합체인 서커스 디 랩의 컨템포러리 서커스.
 • 연출/이준상
 • 공동창작 및 출연/김영주, 서남재, 이석원, 이준상, 함서울

첼로가야금 '胡蝶之夢 : Butterfly Dream'
8월 21일(토) 오후 8:00, 22일(일) 오후 7:40 야외광장
 오스트리아 출신의 첼리스트 김 솔 다니엘(Sol Daniel Kim)과 한국 출신 가야금 연주자 윤다영으로 결성된 첼로가야금의 무대.

조군댄스 '갑자기'
8월 22일(일) 오후 5:00 중극장
 춤과 마술, 서커스 등으로 쉽고 재미있게 표현한 조군댄스의 창작무용.
 • 연출, 안무/조현배
 • 출연/이은지, 조은정, 이혜인, 배진아, 김시현 외

씨드네이처 'Shape of Wind'
8월 22일(일) 오후 5:40 야외광장
 한국무용을 기반으로 공중, 고층건물 등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화려함을 선보이는 버티컬댄스 무대.

페트라아트랩 '마벤저스'
8월 22일(일) 오후 8:20 야외광장
 더운 여름을 더욱 화끈하고 화려하게 만드는 마벤저스의 쇼킹화이어.

2021년 브니엘 무용 예술제

일 시 | 8월 11일 수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무료(선착순 입장)
 문 의 | 브니엘예술고등학교 513-9710

 지난 1999년 개교 후 예술교육과 실기를 통하여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개발하는 창의성 교육을 수행해온 브니엘예술고등학교 무용과 재학생들이 선보이는 2021 브니엘 무용 예술제. 이번 무대에서는 재학생들의 창작열정과 맘이 배어있는 한국무용, 발레, 현대무용 등 전 장르의 작품을 선보인다.



이정현 첼로 리사이틀

일 시 | 8월 12일 목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 R석 5만원, S석 3만원
 문 의 | ㈜스테이지원 02-780-5054



2018 윤이상 국제음악콩쿠르에서 공동 우승하고 2017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도 입상하여 그 실력을 인정받은 첼리스트 이정현 부산공연.

이정현은 현재 퀸 엘리자베스 뮤직 사펠에서 상주 음악가 프로그램으로 게

리 호프만을 사사 중이며, 영국 왕립음악원에서 요셉 크라우치와 바로크 첼로를 연주하며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첫 데뷔앨범 'Voyage'를 발매하기도 한 이정현은 이번 전국 투어 무대에서 낭만에서 근대에 이르는 심도 깊은 레퍼토리를 선보이며 특히 부산 무대에서는 스트라빈스키, 미야스코프스키 등 러시아 대표 작곡가들의 작품만을 모아 러시아의 진한 향기로 무대를 가득 채울 예정이다.

- 피아노/일리아 라쉬크프스키

박지연 피아노 리사이틀

일 시 | 8월 21일 토요일 오후 5:00 **챔버홀**
 입장료 | 전석 2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 아트뱅크코리아 442-1941



'단단한 터치와 화려한 테크닉으로 청중의 마음을 울리는 피아니스트'라는 호평을 받은 피아니스트 박지연 독주회.

중앙대학교 피아노과를 수석으로 입학한 후 졸업 시 피아노 연주자과정 실기 최우수자로 선정되어

국내 다수의 우수 신인 음악회를 통해 정식 데뷔한 박지연은 이후 도미, 클리블랜드 음악원에서 피아노 연주학 석사 및 피아노 실내악 최고연주자과정을 취득하고 미시건 주립대학교에서 피아노 연주학 박사 과정을 밟으며 다양한 음악적 경험과 견문을 넓혔다.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활발한 활동을 펼쳐온 박지연은 귀국 후 다양한 분야에서 반주자와 연주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부산예중, 부산예고에 출강하며 후진 양성에도 열정을 쏟고 있다.

다시 부르는 거리의 노래들

일 시 | 8월 24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부산지휘자합창단 513-1009

 부산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와 부산지휘자합창단이 공동주최하는 특별기획음악회. 1789년 프랑스 대혁명부터 시작해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변혁의 순간에는 늘 공동체의 결속력을 강화시켜주던 노래들이 있었다. 이러한 노래들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 시민혁명의 역사와 함께 돌아보고 이 노래들을 새롭게 편곡하여 부산지휘자합창단과 재즈밴드가 들려준다. 특히 연주 후에는 실황영상을 해설과 함께 영상 콘텐츠로 제작, 비대면시대의 역사교육 및 문화인문학적 교육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 해설/엄상준(KNN PD)
- 연주/부산지휘자합창단과 재즈밴드



ANK Flute Ensemble Doppler & Gary Schocker와의 만남

일 시 | 8월 24일 화요일 오후 7:00 **챔버홀**
 입장료 | 일반 7천원, 학생 5천원
 문 의 | ANK Flute Ensemble 010-5406-4779



전문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갖춘 다양한 무대를 통해 관객들에게 플루트의 섬세하고 아름다움을 전하고 있는 ANK(Alt bis Neue Kultur) 플루트 앙상블의 무대.

리더 김선영의 지도 아래 전문연주자들로 구성된

ANK Flute Ensemble은 중세음악에서 21세기 음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의 음악으로 ANK Flute Ensemble만의 매력을 선보여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플루티스트이자 작곡가로 이름 높은 도플러와 개리 쇼커의 곡을 들려준다.

- 연주/김선영, 최가원, 김소위, 민지홍, 김진아, 이연화
- 우정출연/김지연, 이혜민
- 피아노/송준섭

부산예술고등학교 무용과 제33회 무용정기공연

일 시 | 8월 25일 수요일 오후 7:00 **대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부산예술고등학교 515-8106

 차세대 무용계를 이끌어갈 부산예술고등학교 무용전공자들이 마련하는 정기공연.

코로나19가 일상을 뒤흔들고 있는 와중에도 뜻과 열정을 다해 준비한 무대로, 한국무용을 비롯해 현대무용, 발레 등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프로그램

발레 '잠자는 숲속의 미녀'
 한국무용 '김홍도, 그를 그리다...'
 현대무용 'Running'

- 출연출/이은영
- 안무/이화성, 이은영, 송미란



창단 35주년 기념 부산신포니에타 제101회 정기연주회

일 시 | 8월 25일 수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전석 2만원
 문 의 | 부산신포니에타 010-8519-0448



현존하는 부산의 실내악 단 중 가장 유구한 역사를 가진 부산신포니에타가 창단 35주년을 맞아 마련한 기념무대.

현재 서울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로 있는 데이비드 이가 지휘하고 '천둥같이 나타난 젊은 천재'라는 찬사를 받으며 세계 무대를 누비던 젊은 거장 피아니스트 박중화, 스위스 최고의 오케스트라인 취리히 톨랄레오케스트라 부악장으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김재원, 윤이상국제콩쿠르 우승자이자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입상자인 첼리스트 이정현이 함께 한다.

프로그램

- 베토벤/3중협주곡 다장조 작품 56
- 베토벤/교향곡 제7번 가장조 작품 92
- 음악감독/김영희

제54회 인코리아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멀리 있는 연인에게...

일 시 | 8월 26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2만원, S석 1만5천원
 (온라인, 전화 예매시 30% 할인)
 문 의 | (사)인코리아심포니오케스트라
 626-8081, 010-8918-1535



지난 1996년 유능하고 열정있는 단원들로 결성된 법인예술전문교향악단 인코리아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그동안 53차례 정기연주회와 문화 소외지역 찾아가는 음악회, 대형오페라 연주, 도시락 보내기 등의 자선음악회 등 다양한 활동으로 부산의 대표적 인 민간오케스트라로 자리매김한 인코리아심포니오케스트라는 연주활동 외에도 아동·청소년 오케스트라인 인코리아유스오케스트라, 직장인·성인 아마추어 오케스트라인 '인코리아아카데미오케스트라'를 운영하며 클래식 의 저변확대에도 힘써오고 있다.

- 지휘/윤상운 • 클라리넷/백동훈

피아니스트 원재연 전국 투어 리사이틀

일 시 | 8월 26일 목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 R석 5만원, S석 3만원
 문 의 | (주)스테이지원 02-780-5054



2017년 부조니 국제피아노콩쿠르에서 준우승 및 청중상을 동시 수상한 후 활발한 연주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피아니스트 원재연의 첫 전국 투어 리사이틀.

지난해 베토벤을 조명한 'All That Beethoven' 공연을 통해 스토리 있는 레퍼토리로 관객들에 큰 호응을 얻은 원재연은 이번 투어 무대에서 낭만주의의 대표 작곡가 슈만과 브람스의 곡을 들려준다. 바로크부터 고전, 낭만 근대에 이르기까지 레퍼토리의 한계 없이 항상 공부하며 수많은 음악 거장들에게 극찬을 받고 있는 원재연은 지난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연주와 다양한 콘텐트에 출연함으로써 관객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더욱 가깝게 다가가고 있다.

2021 제12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메인 콘서트 개막콘서트

일 시 | 8월 27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문 의 | (사)부산마루국제음악제 조직위원회
 516-8293~4, www.bmimf.co.kr



문화도시 부산을 위한 최정상의 클래식 음악축제 '2021 제12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개막콘서트.

이번 무대에서는 대한민국 최정상급 지휘자로 평가받는 지휘자 정치용이 지휘하는 BMIMF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와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인민 예술가이자 카자흐 국립 예술대학교 총장으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아이만 무싸하자예바(Aiman Mussakhajayeva)가 출연, 밀라가 무려 6년간에 걸쳐 삶과 죽음에 대한 철학적, 종교적 성찰을 담아 작곡한 교향곡 제2번 '부활'과 차이콥스키의 유일한 바이올린 협주곡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바이올린 협주곡 35'를 들려준다.

- 지휘/정치용
- 연주/BMIMF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 협연/아이만 무싸하자예바(바이올린)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2021 스타프로젝트 프리마 돈나

일 시 | 8월 27일 금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 전석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시립합창단 여성 성악가들의 화려하면서도 서정적인 기교를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무대.

기량이 뛰어난 부산시립예술단 단원들과 부산시민들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올해부터 새롭게 시도하는 '2021 스타프로젝트' 두 번째 무대로, 평소 합창무대에서는 만날 수 없었던 단원 개개인의 솔리스트로서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시립합창단 비상인 단원 강태경, 김수린, 노연수, 배효영, 이진영과 지역의 신진 예술인 양민영, 한예린 등 7명의 프리마 돈나가 관객과 만난다. 1부 아리아, 2부 뮤지컬로 구성된 이번 무대에서는 우리 귀에 친숙한 오페라 아리아와 뮤지컬 넘버로, 연주자와 관객이 함께 소통하고 즐길 수 있는 무대로 꾸민다.

제33주년 2021 부산주니어발레컴퍼니 정기공연 Color Of Ballet Gala

일 시 | 8월 28일 토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전석 2만원(만 4세이상 입장 가능)
 문 의 | 부산주니어발레컴퍼니 010-7389-3005



지난 1988년 부산새싹발레단으로 창단, 그동안 발레 인재 발굴 및 다양한 활동으로 발레의 저변확대에 힘써온 부산주니어발레컴퍼니 정기공연.

2019년 1월 김주원 신임 감독, 정영재 신임부감독이 취임하면서 새롭게 이름을 바꾼 부산주니어발레컴퍼니는 2021년 1월부터 정영재 신임감독이 발레단을 이끌고 있으며, 그동안 정기공연 및 다양한 무대를 통해 관객들에게 발레의 멋과 아름다움을 알려왔다.

프로그램

- 루슬란과 루드밀라, 플라타 4인무, 돈키호테, 아무르, 파키타
- 객원출연/변성완(국립발레단 단원)

양은정 바이올린 독주회

일 시 | 8월 28일 토요일 오후 5:00 **챔버홀**
 입장료 | 초대
 문 의 | 양은정 010-5661-8314



영감이 배어있는 감성과 따뜻한 음색으로 울림 있는 연주를 선보이는 바이올리니스트 양은정 독주회. 중앙대학교 음악대학을 졸업한 후 대구시립교향악단에 입단,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을 거쳐 대구시립예술단 해외 연주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맨해튼 음악대학 전문연주자과정을 졸업한 양은정은 유학 당시 맨해튼 음악대학 오케스트라 수석을 역임하며 오케스트라 연주자로서의 실력과 리더십을 쌓기도 했다.

부산청소년시립교향악단 단원으로 활동하며 부산시립교향악단과 두 차례 협연무대를 갖기도 한 양은정은 현재 대구시립교향악단 단원으로 있으며 독주회 및 실내악 등 다양한 무대에 서고 있다.

- 피아노/이호정

2021 학엿농크! 페스티벌 콘서트 오페라 람메르무어의 루치아

일 시 | 8월 29일 일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장료 | R석 15만원, S석 12만원
 A석 9만원, B석 6만원
 문 의 | (사)세종솔로이스츠 02-584-5494



세종솔로이스츠가 기획한 음악 페스티벌인 '2021 학엿농크! 페스티벌'에서 만날 수 있는 환상적인 콘서트 오페라. 올해로 4회를 맞는 '2021 학엿농크! 페스티벌'은 라틴어로 '여기 그리고 지금'이라는 뜻으로, 세계 음악계의 새로운 시도와 흐름을 국내에 알려오고 있다.

올해 페스티벌의 야심작으로 선보이는 이번 무대는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의 핵심 아티스트들과 세종솔로이스츠가 의기투합한 무대로, 세계 최정상 오케스트라인 뉴욕 필 악장 프랭크 황과 메트로페라 오케스트라 악장 데이비드 찬을 비롯해 인디애나 음대 교수인 더블베이스스트 커트 무로키, 메트로페라 주역 캐슬린 김 등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화려한 출연진으로 놓칠 수 없는 감동의 무대를 선사한다.

곽소정 귀국 피아노 독주회

일 시 | 8월 31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전석 2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 아트뱅크코레아 442-19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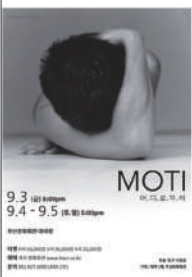


깊이 있고 풍부한 표현력을 바탕으로 세련되고 완성도 높은 연주로 국내외에서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피아니스트 곽소정 귀국 독주회. 부산대학교 4년 장학생으로 실기 수석 및 학과 최우등 졸업한 후 도

미, 인디애나 대학교에 장학생으로 진학, 석사 학위와 전문연주자과정을, 일리노이대학교에서 Teaching Assistant로 전액 장학금을 받으며 박사(피아노 연주와 문헌 전공)와 석사(피아노 교수법 전공)를 취득한 곽소정은 연주활동 외에도 교육과 학술연구에 남다른 열정으로 세계적인 학회에서 초청 발표했다. 곽소정은 현재 인제대학교, 국립군산대학교, 부산예중·고, 한국창의예술고에서 후진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21 BSCC 제작공연 시리즈 MOTI/어디로부터

일 시 | 9월 3일 금요일 오후 8:00, 4일-5일 토-일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장료 |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ARS 1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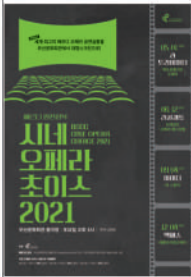


부산시립무용단 이정윤 예술감독의 신작 'MOTI/어디로부터'. 이번 공연은 (재)부산문화회관 지난 2019년 연극 '율리우스 카이사르'에 이어 자체 기획, 제작으로 선보이는 두 번째 작품으로, 부산이 낳은 걸출한 무용가인

이정윤 예술감독이 연출과 안무를 맡았다. 작품명인 'MOTI'는 'Motivation(동기의 준말)이자 '모티'를 일컫는 경상도 사투리 '모티'를 가리키는 말로 삶의 '모티'에 선 청년들의 비상을 향한 'Motivation'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작품은 지역의 젊은 예술가들이 직접 참여한 Well Made Busan 작품으로, 지난 5월부터 약 2개월 간의 오디션 과정을 거쳐 선발된 지역의 젊은 무용수들이 무대에 선다.

부산문화회관 2021 BSCC 시네 오페라 초이스 베르디 완전정복 라스칼라 '아이다'

일 시 | 9월 4일 토요일 오후 3:00 **중극장**
 입장료 | 전석 2만원 (12세 이상 관람가,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ARS 1번)



세계 각국의 유명 오페라 극장과 페스티벌의 공연실황을 생생한 영상으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무대. '오페라의 거인'이라 불리는 베르디의 대표작 4편을 소개하는 '베르디 완전정복' 세 번째 상영회로, 1872년 '아이다' 초연

시 베르디 본인이 직접 지휘했던 밀라노 라스칼라 극장에서 지난 2015년 무대에 올려졌던 '아이다'를 소개한다. 특히 이번 공연은 세계적인 지휘자 주빈 메타와 독일을 대표하는 연출가 페터 슈타인의 만남으로 새롭게 탄생된 무대로, 아이다 역에 가장 잘 어울리는 소프라노 크리스틴 루이스의 열연으로 당시 많은 박수를 받은 바 있다.

양상블 자비에 정기연주회

일 시 | 9월 5일 일요일 오후 6:00 **중극장**
 입장료 | 전석 2만원
 문 의 | 양상블 자비에 010-4006-00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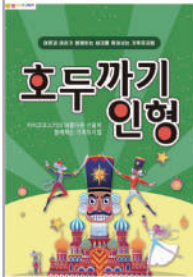
예원학교와 서울예고, 서울대학교 음대, 줄리어드 음대, 뉴잉글랜드 음악원 동문인 바이올리니스트 김다미, 유희정, 비올리스트 김규, 첼리스트 김민승, 이호찬으로 구성된 양상블 자비에의 무대. 창단 후 매년 자선음악회를 통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음악사랑을 펼쳐 오고 있는 양상블 자비에에는 이번 음악회의 모든 수익금도 부산의 보육시설인 '소년의 집'에 기부된다.

프로그램
 베토벤/바이올린 소나타 제10번 사장조
 브람스/스케르초 다단조 'F-A-E' 소나타
 슈베르트/현악5중주 다장조
 • 피아노/이시현

부산시민회관

가족뮤지컬 호두까기 인형

일 시 | 7월 31일(토)-8월 1일(일)
오전 11:00, 오후 2:00 대극장
입장료 | 전석 4만원
문의 | 동그라미그리기 1577-48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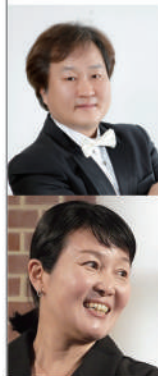
차이콥스키의 아름다운 선율이 함께하는 가족뮤지컬 '호두까기 인형'.

매년 크리스마스가 되면 전 세계 공연장에서 상연되는 동명의 발레를 전 세대대가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가족뮤지컬로 제작한 '호두까기 인형'은 다채로운 캐릭터와 화려한 무대, 12곡의 완성도 높은 무대와 서정적인 음악으로 어린이들에게는 꿈과 동심의 세계로, 어른들에게는 어린 시절 추억의 세계로 안내한다.

소시지 왕국의 공주 필리파트의 생일날, 왕을 위해 요리한 소시지를 생쥐들이 훔쳐가버리자 이에 분노한 왕이 생쥐들을 모두 잡아버리고 친척인 생쥐들을 잃은 마우제링크스 부인은 공주에게 저주를 내리는데...

광복 76주년 기념콘서트
노래여, 겨레의 노래여

일 시 | 8월 7일 토요일 오후 3:00 소극장
입장료 | 초대(사전예약, 선착순 100명)
문의 | 음악풍경 987-5005



광복 76주년을 맞아 전문예술단체 음악풍경이 마련하는 특별한 무대 '노래여, 겨레의 노래여'.

지휘자 장진이 지휘하는 부산 시민오케스트라 앙상블과 소프라노 박현진, 왕기현, 테너 양승엽, 바리톤 시영민이 출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지난 2015년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이 과거 남과 북이 함께 불렀고 지금도 애창되고 있는 노래들로 선정한 '겨레가 함께 부르는 노래 100곡' 중 엄선된 10곡과 남북이 함께 부르기 좋은 2곡을 자체적으로 추가, 관객들에게 들려준다.

프로그램

- 고향의 봄, 아침이슬, 아름다운 나라, 오빠생각, 새야새야, 다시 만납시다, 선구자, 박연폭포, 감격시대, 사공의 노래, 내 나라 내 겨레, 바다의 고향시
- 진행/이진이

2021 부산신진예술페스티벌
극단 시지프 '달밤'

일 시 | 8월 15일 일요일 오후 5:00 소극장
입장료 | 전석 2만원
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630-5200



신진예술인을 위한 본격적인 등용문이자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발굴하기 위한 실험적인 공연축제 '2021 부산신진예술페스티벌'.

한국 단편소설의 대가 이태준 선생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작품 속 배경이 되는 일제강점기, 그 시절 유행한 대중음악을 현대적인 감성으로 리메이크한 음악극인 '달밤'은 못난이 신문 배달원 황수건의 순박한 모습을 통해 코로나 시대 지친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를 전한다.

원작/이태준
각색, 연출/유명훈
출연/박찬서, 홍성락, 김다정, 윤현찬, 김선진, 김나희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21 디즈니 인 콘서트

일 시 | 8월 28일 토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장료 | VIP 10만원, R석 8만원, S석 6만원, A석 4만원(5세 이상 입장가능,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디즈니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심장을 뛰게하는 꿈의 무대 '2021 디즈니 인 콘서트'.

디즈니의 애니메이션에 삽입되었던 히트곡들을 콘서트 무대에서 만날 수 있는 무대로, 국내에서는 지난 2014년 야외 공연

장인 파크콘서트에서 첫 내한 공연을 가진 후 매년 매진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부산에서 처음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1900년대에 개봉해 오랜 기간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아온 고전 명작부터 2000년대에 개봉한 '모아나', '겨울왕국 1, 2'의 수록곡들까지 다채로운 히트곡을 만날 수 있다.

- 지휘/이병욱 • 연주/디토오케스트라

2021 제12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메인 콘서트Ⅱ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연주회

일 시 | 9월 3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문의 | (사)부산마루국제음악제 조직위원회 516-8293~4, www.bmimf.co.kr

문화도시 부산을 위한 최정상의 클래식 음악축제 '2021 제12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메인콘서트 두 번째 무대.

과천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 서진이 지휘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연주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정교하면서도 화려한 테크닉의 바이올리니스트 김현아, 따뜻하면서도 화려한 음색으로 청중을 매료시키는 비올리스트 에르완 리샤의 협연으로 바이올린과 비올라의 애절하고 우수에 찬 이중주를 감상할 수 있는 모차르트 '신포니아 콘체르탄테 작품 364'와 쇼스타코비치의 '운명 교향곡'으로 불리는 '교향곡 제5번 작품 47'을 들려준다.

지휘자 서진은 2007년 한국인 최초로 크로아티아 제4회 Lovro von Matačić 국제지휘콩쿠르에서 Papandopulo 현대음악상을 수상하여 '진지한 음악적 해석과 테크닉이 뛰어난'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현재 Cross Chamber

Orchestra 상임지휘자, hello SEM오케스트라 지휘자 및 음악감독, 파주 헤이리예술마을 음악감독, Bring Up International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다.

연세대학교 교수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김현아는 스위스 Tibor Varga 국제콩쿠르 입상을 비롯해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오디션 우승, 필라델피아 챔버 오케스트라 오디션 우승 등 세계적 무대에서 상위 입상, 우승함으로써 탁월한 기량과 풍부한 음악성을 인정받았으며, KBS 교향악단 객원수석으로 수년간 활동하며 이미 국내 음악계에서 주목을 받은 비올리스트 에르완 리샤는 현재 에라토 앙상블, 현대음악앙상블 소리, 오푸스 앙상블, 코리아나 챔버 뮤직 소사이어티, 화음 챔버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있다.

- 지휘/서진
- 연주/부산시립교향악단
- 협연/김현아(바이올린), 에르완 리샤(비올라)



음악

베토벤 탄생 250주년 기념 베토벤 현악사중주 전국연주 시리즈 한여름밤의 베토벤

일 시 | 8월 5일(목), 9월 2일(목)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
입장료 | 전석 2만원
문의 | 에델현악사중주단
070-7893-1072, 010-9700-35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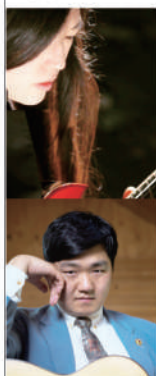


바이올리니스트 정진경, 손혜림, 비올리스트 강수이, 첼리스트 김혜지가 클래식 음악이 가진 고귀한 아름다움을 친숙하면서도 편안한 방식으로 대중들에게 전달하고자 창단한 에델현악사중주단의 무대.

지난해 베토벤 탄생 250주년을 맞아 시작된 베토벤 현악사중주 전국연주 시리즈 무대로, 8월 5일에는 베토벤의 빛나는 중기 시대를 지나 위대한 후기 시대를 여는 길목에 놓인 현악사중주제 11번 작품 95 '세리오소'를 들려준다. 에델현악사중주단은 이어 9월 2일에는 현악사중주 제12번 작품 127를 들려준다.

2021 부산기타페스티벌

일 시 | 8월 8일 일요일 오후 6: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전석 1만원
문의 | 부산페스티벌기타양상블 010-5489-2913



매년 전국의 유명 기타리스트들과 연주단체를 초청해 열리는 전국 규모의 기타 페스티벌인 부산기타페스티벌 2021년 무대.

올해는 지난 2005년부터 부산기타페스티벌을 주최해오며 클래식기타의 매력을 전하고 있는 부산페스티벌기타양상블(사희/김경태, 김현아)과 플라멩코 기타리스트 민선재, 세계적인 권위의 스페인 프란시스코 타레가 국제기타콩쿠르에서 파이널리스트 선정 및 타레가 곡 최고연주상을 수상한 기타리스트 조대연이 출연, 화려한 기타음악의 세계로 관객들을 이끈다.

- 특별출연/윤선아(플라멩코 무용수)

드미트리 시슈킨 피아노 리사이틀 with 또모

일 시 | 8월 11일 수요일 오후 7:00
드림씨어터
입장료 | VIP석 10만원, R석 8만원
S석 6만원, A석 4만원, B석 2만원
문의 | (주)또모 02-540-2706



클래식계의 유망주로 떠오르는 러시아 출신의 피아니스트 드미트리 시슈킨 리사이틀.

2019년 제16회 차이콥스키 국제콩쿠르 2위, 2018년 제네바 국제콩쿠르 1위에 수상하며 이름을 알린 드미트리 시슈킨은 이 밖에도 2015년 바르샤바 쇼팽 국제콩쿠르 파이널 입상, 2013년 제59회 페루치오 부소니 국제피아노콩쿠르 3위 등 화려한 수상경력을 자랑하며 현재 세계를 무대로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스크리아빈, 쇼팽, 슈만, 리스트 등 그의 연주력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작품들로 무대를 꾸민다.

8월 금정수요음악회

일 시 | 매주 수요일 오후 7:30(4일 공연 없음)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장료 | 전석 1만원
문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4

금정문화회관이 매주 수요일 마련하는 상설무대로, 클래식에서부터 성악, 국악 등 다채로운 무대를 만날 수 있다.



11일(제750회) 김미성 피아노 독주회

아름다운 음색과 더불어 음악적 해석력이 뛰어나다는 평을 받고 있는 피아니스트 김미성 독주회. 독일 슈투트가르트 국립음대 학사과정과 데트몰트 국립음대 석사과정,

마인츠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을 최우수성적으로 졸업한 김미성은 2019년 귀국독주회를 시작으로 다양한 무대에서 관객과 만나왔다.

18일(제751회) 플루트 콰르텟 '클랑' 제6회 정기연주회

플루트만의 섬세하고 화려한 기교를 통해 수준 높은 무대를 선사하고 클래식뿐 아니라 다양한



음악장르를 통해 관객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 2009년 10월 결성한 플루트 콰르텟 '클랑'의 무대.

유년시절부터 서로의 음악적 성장을 지켜보고 각자의 발전을 위해 독일, 미국, 헝가리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플루티스트 길명훈, 유주영, 한유주, 장예지로 구성된 '클랑'은 이번 무대에서 '플루티스트들의 수다'라는 부제로 모차르트 '4대의 플루트를 위한 안단테 바장조 KV.616' 등 다양한 곡을 들려준다.

- 해설, 피아노/이은정



25일(752회) 홍상희 피아노 독주회

풍부한 울림과 다양한 음색, 섬세한 표현력을 지닌 피아니스트 홍상희독주회 프로그램

슈베르트/피아노소나타 제13번 가장조 작품 120 D.664
쇼팽/4개의 발라드

제30회 짜장콘서트

일 시 | 8월 14일 토요일 오후 4:00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 석당박물관 로비
입장료 | 전석 1만원(사전예약, 선착순 30명)
문의 | 음악풍경 987-5005



이탈리아 유학파로 수많은 오페라 무대에 주역가수로 출연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테너 양승엽(초청 솔리스트)과 현재 양산시립합창단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소프라노 신하람(청년음악가)이 함께하는 제30회 짜장콘서트.

이진이의 진행, 양상블 '프로 무지카'의 연주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국내외 가곡 및 오페라 아리아, 뮤지컬, 기악독주 및 양상블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비롯해 지역 창작음악의 활성화를 위해 창작가곡 '독도 별자리(최정란 사·권태우 곡)'를 소개하며, 널리 알려진 대중가요를 노래에 얹힌 사연과 함께 들려주는 '톡톡(Talk Talk): 나의 노래방 1번' 코너에서는 TV예능 '미스터롯'으로 화제가 된 '고맙습니다'를 들려준다.

레이어스 클래식 라이브 콘서트 Love Signal

일 시 | 8월 15일 일요일 오후 7: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R석 6만원, S석 5만원, A석 4만원
 문 의 | 어썸클래식스튜디오 02-6951-4130



독창적인 음악과 연주력, 참신한 뮤직비디오로 국내 클래식 크로스오버의 새 지평을 열고 있는 레이어스 클래식 부산공연

바이올리니스트 JAY, 피아니스트 DMK, 첼리스트 김대연으로 구성된 레이어스 클래식은 그동안

클래식 음악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음악 세계를 조합하고 편곡하여 그들만의 개성이 담긴 음악을 선보여왔다.

현재 유튜브 구독자 26만 명을 보유하고 있는 온라인 스타이기도 한 레이어스 클래식은 이번 무대에서 정규 2집 'Love Signal' 발매를 기념해 정통과 크로스오버를 절묘히 넘나드는 더욱 화려하고 멋진 무대를 선사한다.

경상필하모닉오케스트라 특별 기획음악회 Begin Again

일 시 | 8월 17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입장료 | VIP석 3만원, R석 2만원
 S석 1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 경상필하모닉오케스트라 010-4214-1339



부산을 비롯해 경남, 대구, 울산 등 다양한 지역에서 활동 중인 음악에 대한 열정이 가득한 젊은 연주자들로부터 창단된 경상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무대.

2018년 창단 후 이듬해 창단연주회를 가진 후 다양한 무대에서 관객과 만나

온 경상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이번 무대에서 베를린 방송교향악단 최연소 수석 바순니스트로 화제를 모았던 유성권과 함께 한다.

프로그램
 베토벤/프로메테우스의 창조물' 서곡
 베버/바순협주곡
 차이콥스키/교향곡 제5번
 • 예술감독/이석중 • 객원지휘/이승원

영도문화예술회관 수요상설공연 onStage 오페라 '사랑의 묘약' 갈라콘서트

일 시 | 8월 18일 수요일 오후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전석 1만원
 문 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4



영도문화예술회관이 마련하는 어울림 상설 시리즈 22번째 무대, 오페라 '사랑의 묘약' 갈라콘서트. 소프라노 김시하, 테너 장지현, 바리톤 한정현과 음악코치 최승희가 함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이탈리아 작곡가 도니제티의

대표 희곡으로, 아름다운 멜로디와 재치 넘치는 유쾌한 이야기를 담은 오페라 '사랑의 묘약' 갈라콘서트가 펼쳐진다.

특히 소공연장에 맞는 연출은 물론 코믹 오페라다운 가수들의 익살스런 연기까지 관객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울속도문화회관과 함께하는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2021 Summer Fantasy 시간(時間)

일 시 | 8월 19일 목요일 오후 7:30
 울속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울속도문화회관 220-5812



울속도문화회관과 부산시립합창단 공동 주최로 열리는 한 여름밤의 시원한 음악선물 '2021 Summer Fantasy 시간(時間)'. 부산시립합창단 부지휘자 임희준이 지휘하고 부산시립합창단,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손한별

(소금, 대금),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성아란(첼로), 전 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 김영훈(타악기)이 출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각 시대를 거치며 많은 사랑을 받았던 국내가요와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세계적인 가수들의 히트곡을 들려준다.

박애리와 함께하는 국악 & 합창 융복합 퓨전콘서트 무브먼트 코리아 3

일 시 | 8월 20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입장료 | R석 2만원, S석 1만원
 문 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1~4



한국 연희를 중심으로 역동적인 움직임의 에너지를 총체적으로 표현하여 미래의 공연을 새롭게 제시하는 하이브리드 융복합 공연 '무브먼트 코리아 3'.

이번 무대는 광개토 사물놀이 예술단을 중심으로 전통 타악 연희 및 합창

비보이 댄서, 소리꾼, 비트박서들이 모여 그들만의 신선하고 독창적인 열정을 표현한 작품으로, 관객들과 함께 신명의 에너지를 나누며 새로운 만남을 만들어가고 있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국립창극단 시절 주연배우로 활동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으며 현재 남편인 팝핀현준과 더불어 TV방송을 통해 더욱 유명해진 국악인 박애리가 함께 출연, 코로나19로 지친 관객들에게 희망을 선사한다.

히사이시 조 영화음악콘서트

일 시 | 8월 21일 토요일 오후 5:00
 드림씨어터
 입장료 | VIP석 12만원, R석 9만원
 S석 6만원, A석 4만원
 문 의 | 클립서비스 1577-3363



영화 & 애니메이션 음악의 거장 히사이시 조의 걸작을 만날 수 있는 영화음악콘서트.

히사이시 조는 스튜디오 지브리의 미야자키 하야오와 함께 작업하며 완성도 높은 음악으로 전 세계 영화음악을 한 단계 높였

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피아니스티자 이번 무대를 통해 지휘자로 첫 데뷔무대를 갖는 김재원이 지휘하는 WE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바이올리니스트 송지원, 오보이스트 고관수, 첼리스트 배성우가 출연, 그의 첫 애니메이션 음악인 '바람계곡의 나우시카'를 시작으로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이웃집 토토로', '천공의 성 라퓨타' 등 스튜디오 지브리의 애니메이션 음악과 더불어 극영화 '기쿠지로의 여름', '키즈 리턴', '하나비' 등 다양한 곡을 들려준다.

가요합창음악회 2021 Summer Fantasy 시간(時間) ver.2

일 시 | 8월 24일 화요일 오후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무료
문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61



영도문화예술회관과 부산시립합창단 공동 주최로 열리는 한 여름밤의 시원한 음악선물, 가요합창음악회 '2021 Summer Fantasy 시간(時間) ver.2'. 각 시대를 거치며 많은 사랑을 받았던 국내가요 외에도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세계적인 가수들의 히트곡을 들려주는 이번 무대에서는 특히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퍼포먼스로 공연을 구성해 관객들과 만나다.

- 지휘/임희준(부지휘자)
- 출연/부산시립합창단, 손한별(소금/대금), 성아란(첼로), 김영훈(타악기)

영도문화예술회관 어울림 상설Series #23 플레이어즈백 초청공연 토닥콘서트 걱정말아요, 그대!

일 시 | 8월 25일 수요일 오후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전석 1만원
문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4



부산을 대표하는 클라리넷 앙상블팀인 플레이어즈백 초청공연으로 마련되는 영도문화예술회관 어울림 상설Series 23번째 무대.

지난 2014년 부산, 경남, 경북 출신의 클라리넷리스트들로 결성된 플레이어즈백은 그동안 독주, 듀오, 트리오, 콰르텟 등 편성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레퍼토리를 선정, 관객들에게 클라리넷의 아름답고 화려한 매력을 전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백(BEC)'은 프랑스어로 클라리넷의 마우스피스를 뜻한다.

- 연주/황남용, 권진우, 장일훈, 유지훈, 김정민, 박은정, 이성은, 김다솜
- 특별출연/이예찬

2021 영화의전당 마티네콘서트 시네마 뮤직 파라다이스 8월 피아니스트 조운성 재즈시네마

일 시 | 8월 25일 수요일 오전 11: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전석 2만원
문의 | (재)영화의전당 780-6060



세계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재즈피아니스트 조운성의 진행으로 열리는 영화의전당 마티네 콘서트 8월 무대. 재즈뿐 아니라 클래식, 팝, 라틴, 크로스오버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뛰어난 작곡, 편곡능력을 발휘해온 조운성은 이번 무대에서 1950년대 영화 노와르부터 2000년대 신작까지 헐리우드 영화 OST 명곡을 선곡, 시대별로 재해석하여 들려준다.

- 피아노/조운성
- 드럼/신동진
- 콘트라베이스/황호규

Ensemble Ruvato Summer Concert

일 시 | 8월 27일 금요일 오후 5:3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장료 | 초대
문의 | 앙상블 루바토 010-5447-1402



부산예술고등학교 동문인 장신아(첼로), 안지원(바이올린), 김푸름(플루트)으로 결성된 앙상블 루바토 씬머 콘서트.

장신아는 제44회 한국의 얼 전국음악경연대회 현악 전체 대상, 제22회, 제26회 글로벌전국음악콩쿠르 금상 등 다수 콩쿠르에서 입상했으며 현재 부산대학교 3학년에 재학중이다. 안지원은 제44회 한국의 얼 전국음악경연대회 바이올린 1등, 제22회, 제23회, 제24회 글로벌전국음악콩쿠르 은상을 수상했으며, 현재 경북대학교 3학년에 재학중이다. 단국대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김푸름은 한국음악교육협회 콩쿠르 1등, 부산음악교육연구회 전국학생음악콩쿠르 1등 등을 수상했으며, Moravian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와 협연한 바 있다.

제 19회 미래필하모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어린이 창작 뮤페라 공델라

일 시 | 8월 28일 토요일 오후 5:00
영도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전석 2만원(사전예매 필수)
문의 | 미래필하모니오케스트라 010-5468-4658



영도문화예술회관 상주단체인 미래필하모니오케스트라가 선보이는 어린이 창작 뮤페라 '공델라'. 영도라는 작은 섬에서 펼쳐지는 공델라의 러브스토리를 담은 작품으로, 뮤지컬과 오페라가 함께하는 뮤페라 무대로 어린이

관객들에게 보다 친숙하게 다가간다. 부산, 경남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젊고 유능한 연주자들로 결성된 미래필하모니오케스트라는 지난 2008년 부산시오케스트라로 첫발을 내딛은 후 2011년 지금의 이름으로 재창단, 그동안 다양한 무대를 통해 관객과 만나오고 있다.

- 지휘/박성은
- 연출/노현정
- 출연/권소라(공델라), 김성(왕자), 박현정(계모), 최선희(팥쥐), 박혜정(요정), 여지훈(신하)

오페라 잔니 스키키

일 시 | 9월 2일(목)-3일(금)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입장료 | R석 12만원, S석 8만원
A석 5만원, B석 3만원
문의 | 솔오페라단 1544-9373



2005년 창단 후 젊은 감각과 완성도 높은 오페라를 잇달아 발표하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고 있는 솔오페라단의 오페라 '잔니 스키키'.

푸치니가 말년에 작곡한 3부작 중 마지막 작품인 '잔니 스키키'는 짧고 유쾌한 가운데 해학과 신랄함이 예리하게 묘사되어 '3부작' 중 최고의 걸작으로 꼽힌다. 늙은 부호의 유산을 둘러싼 에피소드로, 18세기의 코메디아 델라르테(Commedia dell'arte)를 연상케 하며 오페라 부파에 가까운 작품이다.

- 예술 총감독/이소영
- 지휘/박지은
- 연출/Cristina Pezzoli
- 출연/김은근, 조지영, 김유진, 박소연, 성미진, 조운환, 김준연, 이대흠, 이산범 외

금정문화회관 기획공연 오충근의 古古한 콘서트III 노자와 베토벤

일 시 | 9월 2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장료 | R석 4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문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1~4



고전음악(古典音樂)과 고전철학(古典哲學)이 어우러지는 특별한 만남 '오충근의 고고한 콘서트' 세 번째 무대.

지난해 '행복의 비브라토', '어게인 노자와 베토벤'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온화한 마에스트로' 오충근 지휘자가 이끄는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와 더불어 다양한 무대를 통해 틀을 깨고 또 다른 가능성을 제시하며 시대의 울림을 주고 있는 실천 철학자 최진석과 함께 단순한 공연을 넘어서 관객과 교감하며 인생철학을 나누는 특별한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대중과 소통하는 철학자로 명성이 높은 최진석 교수는 서강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이자 인문·과

학·예술 분야 국내 최고 석학들이 모인 인재육성 기관인 건명원(建明苑) 초대원장으로, 그동안 삶의 지혜와 인문학적 통찰을 담은 강연 및 저술 활동을 통해 대중과 만나왔다.

협연자 김주영은 미국 맨해튼음대 최초 바이올린 박사 출신으로 현재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악장으로 있다.

프로그램

차이콥스키/현을 위한 세레나데 다장조 작품 48 제1악장

베토벤/현악4중주 제13번 내림나장조 작품 130 제5악장 '카바티나'

베토벤/로망스 제2번 바장조 작품 50

브리튼/단순교향곡 작품 4 제3, 4악장

- 지휘/오충근(부경대학교 석좌교수)
- 특별출연/철학자 최진석(서강대학교 명예교수)
- 협연/바이올리니스트 김주영
- 연주/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연극

코믹극 택시 안에서

일 시 | 4월 7일 (수)-Open run

수-금요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2:00, 5:00(월-화요일 공연 없음) 부산해바라기 소극장

입장료 | 전석 3만5천원(평일 공연 예매시 60%, 주말·공휴일 예매시 51% 할인)

문의 | 미니티켓 1600-1716



택시 안에서 벌어지는 오절복통, 좌충우돌 코믹연극 '택시 안에서'.

그동안 제대로 된 연애 한번 못해 본 하영과 소희는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운명 같은 만남으로 불같은 사랑을 시작하지만 결국 서로를 지키지 못하고 두 손을 놓게 된다. 사랑에 상처를 받은 소희는 한국을 떠날 결심을 하고 너무나 늦게 사랑을 깨달은 하영은 소희를 잡으러 공항으로 향한다. 마지막 인생이 걸린 택시에 탑승한 하영과 그런 그를 공항으로 데려다 주는 택시기사 민수. 과연, 하영은 제시한 연애 공항에 도착할 수 있을까?

코믹연극 검정고무신

일 시 | 5월 5일(수)-Open run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공휴일 오후 2:00, 5:00 용천지탈 소극장

입장료 | 전석 3만5천원(예매시 1만3천원)

문의 | 미니티켓 1600-1716



더욱 탄탄해진 스토리로 다시 찾아온 버라이어티 코믹 휴먼 드라마 '검정고무신'.

지난 1960~1970년대 힘들었던 시대, 가족과 이웃의 따뜻한 사랑을 웃음과 감동으로 그려낸 '검정고무신'은 가난했던 그때

그 시절 한 가족사를 통해 현재 우리 삶을 되돌아 볼 수 있는 시간을 선사한다.

부모 없이 할머니와 어렵게 살아가는 삼남매, 진학도 포기한 채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첫째 영일, 학교 가는 게 세상에서 제일 싫은 철부지 말쟁쟁이 둘째 영삼, 여자라는 이유로 학교도 가지 못하고 살림만 하는 게 늘 불만인 똑순이 셋째 영실, 늘 춥고 배고픈 것이 일상인 영일네 가족의 고군분투기가 진한 감동을 전해준다.

연극 '흥터' 10주년 기념공연

일 시 | 6월 3일(목)-8월 29일(일) 평일 오후 7:30
주말 오후 3:00, 6:00(월요일 공연 없음)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관

입장료 | 전석 3만원(만 13세 이상 관람가)

문의 |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공포연극의 원조로 많은 사랑을 받은 연극 '흥터' 10주년 기념공연

대학교 때부터 사랑과 우정을 이어온 동훈, 재용, 지은은 함께 등산을 갔다가 돌발적인 사고로 지은이 죽음을 맞는다. 8년 후 재용과 동훈은 지은이 사고

사로 죽었던 그 산을 다시 찾게 되고, 등산 중에 재용이 부상을 입고 길까지 잃게 되면서 과거에 벌어졌던 끔찍했던 사고의 기억이 결국 그들을 극한 상황으로 몰아가는데...

연극 '흥터'는 눈을 감으면 소리가 무섭고 소리를 막으면 분위기에 압도당하는 오감만족 공포스릴러로, 한순간도 눈을 땄수 없는 두 남자의 팽팽한 심리전이 극의 몰입도를 200% 올린다.

연극 체인징 파트너

일 시 | 6월 10일(목)-8월 15일(일) 평일 오후 7: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2:30, 5:00(월요일 공연 없음)

BNK부산은행조은극장 2관

입장료 | 전석 3만원

문의 |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3포 시대라 불리는 현대 사회에서 자신이 원하던 배우자와 정반대의 조건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되면서 벌어지는 해프닝을 그린 로맨틱 코미디극 '체인징 파트너'.

커플성공률 100%를 자랑하는 국내 최대 웨딩업체 주주의 커플매니저 김중매. 호기롭게 두 커플의 만남을 주선하지만 4명의 남녀가 비슷한 이름 때문에 맞선 상대가 바뀌게 된다. 파트너가 바뀐 것도 모르고 맞선을 시작한 그들, 이번 맞선도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모든 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맞선과 결혼이라는 소재를 코믹하게 그린 이번 무대는 관객과 웃고 떠드는 가운데 사랑과 결혼이라는 명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작품이다.

2021 작강연극제

일 시 | 8월 4일(수)-21일(토) 평일 오후 7:30
주말 오후 5:00 **울속도문화회관 소공연장, 하늘바람 소극장, 나다 소극장**
입장료 | 전석 2만원
문의 | 부산연극협회 645-3759



갈수록 대형화되는 연극제작 환경 속에서 소극장 연극 특유의 즐거움을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된 '작지만 강한' 작강연극제 2021년 무대.

극단 돕다 '아이 캔 두 (I CAN DO)

8월 4일(수)-5일(목) 오후

7:30 **울속도문화회관 소공연장**
경로당 회장 선거를 앞두고 안도식 영감의 과거 행적을 두고 여기저기서 수군대자 그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과거 집안 이야기를 풀어놓게 된다. 야쿠자 출신에 캄패였던 아버지 안풍선으로 인해 아이동에서 기장으로 아반도주해온 사연에서부터 안도식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하나 기억을 되새김하면서 자신을 되돌아 보는데... (※ 전 연령 관람가)
• 작/정경환 • 연출/박호천

• 출연/최현정, 박호천
극단 여정 '죽은 사람'
8월 8일(일) 오후 5:00, 9일(월) 오후 7:30
울속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창고와 방이 혼재되어 있는 이상한 감옥에서 눈을 뜬 여자는 대기중이던 한 낯선 남자로부터 그곳이 여자가 다니던 학교의 지하감옥이라고 말한다. 그리고는 여자더러 다짜고짜 '죽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 만 15세 이상 관람가)
• 작/이윤경 • 연출/김태호
• 출연/권혁진, 박명정, 이현욱
극단 액터스 '언덕을 넘어서 가자'
8월 11일(수)-12일(목) 오후 7:30 **하늘바람 소극장**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초등학교 동창인 세 친구의 이야기. 부자이나 고물상을 운영하며 자리고비처럼 살아가는 무뚝뚝한 성격의 구두쇠 노인 완애와 완애의 짝은 구박에도 빌붙어 살며 돈만 생기면 도박장으로 달려가는 철부지 친구 자룡. 어린 시절에는 남학생들의 선망의 대상이었지만 노년에도 팍팍한 삶을 이어가는 다혜가 등장한다.
(※ 만 8세 이상 관람가)
• 작/이만희 • 연출/손병태
• 출연/호민, 구민주, 오정국
극단 따뜻한 사람들 '자각몽'
8월 16일(월)-17일(화) 오후 7:30 **나다 소극장**

헤어지자는 이별 통보에 막아가 되어버린 남자친구 오밤의 폭력과 감금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를 정신병원에 가두어버린 주인공 시연. 그럼에도 자신을 찾아올까봐 끔찍한 악몽에 시달리는 시연은 1년간의 고통을 참다못해 꿈 속에서 그를 죽이기로 결심하는데... (※ 만 15세 이상 관람가)
• 작/이만희 • 각색, 연출/허석민
• 출연/박유진, 유병영, 허석민
극단 바다와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 '땡큐! 돈키호테'
8월 20일(금) 오후 7:30, 21일(토) 오후 5:00
나다 소극장
병원에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88세 할아버지는 치매증상까지 겹치면서 자신의 인생 마지막 막을 정리하기 위해 병원을 탈출한다. 할아버지는 우연히 창밖으로 삶의 마지막을 던지는 은주의 희곡집 돈키호테를 보는데... (※ 전 연령 관람가)
• 작, 연출/최은영
• 출연/박찬영, 이은주

2021 미스터리 공포연극 염매

일 시 | 7월 29일(목)-8월 29일(일) 목-금요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6:00, 일·공휴일 오후 2:00, 5:00(월-수요일 공연없음) **부산메트로홀**
입장료 | 전석 3만원
문의 | (주)플레이더 부산 1600-0316



선과 악이 뒤섞이고 하나가 둘이 되는 미스터리한 공포극 '염매'. 5년째 취업준비 중인 남자친구 서준이 늘 못마땅한 지극히 현실적인 직장인 가을은 어느날 서준과 취업문제로 다투고, 그런 두 사람 앞에 무당과 수행자가 나타나 미스터리한 말을 남기고 사라진다. 그 후 서준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가을은 서준이 죽기 전 마지막으로 만난 이들의 실체를 밝히고 사건을 바로 잡기 위해 그들의 존재를 파고 들며 자신이 외면했던 운명과 마주하게 된다. 연극 '염매'는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잡은 본질적인 공포를 관객들에게 선사한다.
• 출연/김지영, 백나을, 김시은, 신춘혁, 함지원

뮤지컬 팬텀

일 시 | 8월 7일(토)-8일(일) 오후 2:00, 7:00 **드림씨어터**
입장료 | VIP 15만원, R석 13만원, S석 9만원, A석 7만원
문의 | (주)공연마루 1588-0766



세계적인 추리 소설가 가스통 르루의 소설 '오페라의 유령'을 주인공 '팬텀'의 인간적인 면모에 초점을 맞추어 제작된 뮤지컬 '팬텀' 부산공연. 지난 2015년 국내에서 초연된 후 올해 네 번째 시즌을 맞은 '팬텀'은 기존에는 몰랐던 '팬텀'의 매력적인 스토리와 함께 특히 국내 최정상 뮤지컬 배우와 정통 소프라노, 클래식 발레 아티스트까지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가 함께 하면서 아름다운 음악과 무대, 영상, 조명 등 시각적인 풍부함까지 더해져 격이 다른 무대로 관객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특히 아름다운 발레 파도피(2인무)를 통해 팬텀의 탄생 비밀부터 현재에 이르는 긴 서사를 대사 하나 없이 발레 동작만으로 풀어내는 장면은 '팬텀'의 백미 중 하나다.

전승환 연극연출가 추모 1주기 기획공연 연극 '고모령에 달 지고'

일 시 | 8월 13일(금)-15일(일) 금요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3:00, 6:00, 일요일 오후 3:0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장료 | 전석 2만원
문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1, 공연예술 전위 010-4868-2862



부산 연극 지킴이였던 연출가故 전승환 선생의 1주기를 맞아 마련한 추모 무대 '고모령에 달이 지고'. 지난해 8월 6일 우리 곁을 떠난 전승환 선생의 유작이기도 한 이번 작품은 '고모령'이라는 산술집을 드나드는 사람들을 통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작품으로, 관객들에게 인생의 깊은 통찰을 느끼게 해준다. 지난 1963년 창단된 공연예술 전위의 연출가로 50년 넘게 부산 연극계를 지켜온 전승환 선생은 2012년 부산시 문화상, 2017년 한국예총 예총예술문화상 대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 작/이상용 • 연출/박현형
• 출연/권철, 허종오, 임선미

콘서트

연극 그림자의 시간

일 시 | 9월 3일(금)-12일(일)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3:00, 7:00, 일요일 오후
3:00(일요일 공연없음)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전석 3만원

문의 | (재)영화의전당 780-6060



2018 제26회 부산연극제에서 최우수작품상을 비롯해 연출상, 신인연기상, 무대예술상까지 4관왕을 수상하고 그 해 2018 제3회 대한민국연극제에서 은상을 수상한 극단 누리에의 '그림자의 시간'.

올해 2021 공연예술 창작산실 '올해의 레퍼토리로 선정된 '그림자의 시간'은 조선 후기 단발령이 내려지기 전 긴장감이 감돌던 시대를 배경으로, 조선 최초 이발사 최윤찬의 삶과 당시 조선의 혼란을 통해 역사의 소용돌이 속 개인이 짊어져야 했던 운명을 그린 작품이다.

- 작/유보배 • 연출/강성우
- 출연/이태성, 이혁우, 호민, 김성열, 이희선, 김홍식, 윤준기, 이재찬, 우지현

싱어게인 TOP10 전국투어 콘서트

일 시 | 8월 7일 토요일 오후 2:00, 7:30

백스코 제1전시장

입장료 | R석 13만2천원, S석 12만1천원

A석 9만9천원

문의 | (주)밝은누리 1566-9621

하성운 Forest & in 부산

일 시 | 8월 7일 토요일 오후 6:00 KBS부산홀

입장료 | 전석 11만원

문의 | (주)타입커뮤니케이션 02-512-9496-8

THE CROSSOVER

양준일 양지원 with 곽동현 윤성기

일 시 | 8월 15일 일요일 오후 2:00 KBS부산홀

입장료 | VIP석 9만9천원, R석 8만8천원

문의 | 위플레이 02-1833-4581

레떼아모르 미니앨범 발매 기념 콘서트 'WISH'

일 시 | 8월 14일 토요일 오후 6:00 드림씨어터

입장료 | R석 12만원, S석 10만원, A석 8만원

문의 | 포트럭주식회사 02-3210-9716



2020년 JTBC '팬텀싱어3'을 통해 결성된 4인조 크로스오버 보컬 그룹 레떼아모르가 미니앨범 'WISH' 발매를 기념해 마련한 무대.

배우 김성식(팝 보컬), 성악가 김민석(리릭 테너), 팝페라 가수 박현수(테너 바리톤), 오페라 가수 김병민(베이스 바리톤)으로 구성된 레떼아모르는 예술성과 스타성, 대중성, 장르의 확장성, 감수성을 두루 갖춘 팀으로, 서로 어느 위치라도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것이 팀의 최대 강점이다.

팀명인 '레떼아모르(Letteramor)'는 이탈리아어 '편지(Lettera)'와 라틴어 '사랑(Amor)'을 합친 말로, 마음을 담아 사랑의 편지를 보내듯 진심을 담아 노래한다는 뜻이다.

라비던스 1st TOUR <SPECTRUM> IN 부산

일 시 | 8월 21일 토요일 오후 6:00

백스코 오디토리움

입장료 | R석 13만2천원, S석 11만원

A석 9만9천원

문의 | (주)WSM 1566-5490



JTBC '팬텀싱어3'의 준수 승팀으로 베이스 김바울, 테너 존노, 소리꾼 고영열, 뮤지컬 배우 황건하로 구성된 라비던스(Rabidance) 부산콘서트.

JTBC '팬텀싱어3'에서부터 '팬텀싱어 올스타전'까지 민요 '몽금포타령', 보사노바 재즈 'Luc', 월드뮤직 'Millim Yaffot Me'Eh' 등 수많은 장르의 음악을 자신들만의 색깔로 선보이며 매 회 화제를 모은 라비던스는 준수승 이후 2개의 싱글 음원을 발매했으며 최근 첫 번째 미니 앨범 <PRISM>을 공개했다. 팀명인 '라비던스'는 'Rabid'(광적인)와 'Guidance'(안내)를 합친 합성어로 '광적인 음악으로 안내하겠다'는 멤버들의 음악적 포부를 담고 있다.

홍스프레소 콘서트 더블샷 인 해운대

일 시 | 8월 21일 토요일 오후 7:00,

22일 일요일 오후 5:00

소향씨어터 신한카드홀

입장료 | R석 13만2천원, S석 11만원

문의 | 비스카엔터테인먼트 070-8098-7006



JTBC '팬텀싱어' 시즌 1에서 최종 3위를 차지하며 많은 사랑을 받은 홍스프레소 부산무대.

베이스바리톤 권서경과 뮤지컬 배우 고은성, 백형훈, 테너 이동신으로 구성된 홍스프레소는 유니크한 퍼포먼스와 다채로운 음악적 스펙트럼을 갖춘 팀으로, 팀명인 홍스프레소는 '에스프레소의 진한 향기를 가슴에 품었다'는 뜻을 담고 있다.

지난 2018년 멤버인 고은성의 입대 이후 3년만에 열리는 이번 단독콘서트에서는 홍스프레소의 더블샷 컬렉션 앨범에 수록된 곡들을 비롯해 새로운 무대까지 오랫동안 그들을 기다려온 팬들을 위한 역대급 무대를 펼칠 예정이다.

재즈 와인에 빠지다 142nd concert 신연아 BAND

일 시 | 8월 27일 금요일 오후 8: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J석 4만원, R석 3만5천원, S석 2만5천원

문의 | 문화기획단 대공감 623-0678



최고의 가창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은 여성 4인조 '빅마마'의 리더 신연아가 들려주는 감성 재즈의 세계 '재즈 와인에 빠지다' 142번째 무대.

'재즈 와인에 빠지다'는 지난 2008년 시작된 부산의 유일한 상설 재즈콘서트로,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국내외 최고의 재즈뮤지션들과 함께 다양한 음악과 함께 와인을 즐길 수 있는 특별한 무대로 재즈애호가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코로나19 발생 후 중단되어 오다 오랜만에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최근 신곡과 함께 돌아온 '빅마마' 신연아가 답답한 일상에 힐링과 위안을 줄 수 있는 특별한 무대를 선사한다.

- 해설/재즈보컬 운영

행사

8월 시네바움 아카데미

일 시 | 매주 월요일 오후 7:00, 화요일 오전 11:00,
19일 목요일 오전 11:00 **시네바움**
입장료 | 수강료 1만5천원
(소수 정원제, 문자·예약 필수)
문 의 | 시네바움 010-2774-3455

2일(월) 오후 7:00 헤로도토스, 아리스토텔레스가
본 독재, 과두, 민주정치 & 무늬만 민주주의
· 강사/최자영(한국외대 그리스 불가리아학과
겸임교수)

3일(화), 10일(화), 17일(화), 24일(화), 31일(화)
오전 11:00 윤산의 논어아카데미
· 강사/윤산 김수청(부산대 교양교육원 외래교수,
부산 가톨릭대 인문학연구소 연구위원)

※ 입장료/무료

9일(월) 오후 7:00 짧지만 긴 여운, 단편영화와
함께하는 하루
· 강사/김경연(부산국제단편영화제 프로그래머)

16일(월) 오후 7:00 기다림, 그 잔혹한 유혹
<고도를 기다리며>
· 강사/정병언(부산대 영어영문학과 교수)

19일(목) 오전 11:00 낭송과 토크 사슴(백석 시집)
· 강사/진행(김비주, 박노경)



21일(토) 오전 8:00 역사문
화탐방 '밀양을 걷다'
· 강사/우주호(국토&환
경연구소 소장)
※ 예약 신청자, 집결지
추후 공지

23일(월) 오후 7:00
피터 싱어의 동물 해방
이야기

· 강사/김남호(울산대 철학과 교수)

30일(월) 오후 7:00 시네필의 영화 느끼기
'봉준호 감독의 단순한 세계'
· 강사/김영광(영화평론가)

제166회 알바트로스 시낭송콘서트
위로, 그리움, 바다 주제
詩 낭송회

일 시 | 8월 21일 토요일 오후 3:00
영광도서관 9층 문화홀

입장료 | 무료

문 의 | 부산알바트로스 시낭송문화회
010-6367-0149

8월 오페라바움 영상감상회

일 시 | 매주 월요일 오후 2:00, 금요일 오후 1:30
오페라바움
입장료 | 전석 1만원(중급반 이상 1만 5천원)
문 의 | 오페라바움 722-9597



오페라 전문 음악감상실
인 오페라바움이 마련하
는 8월 영상감상회.
매주 월요일에는 교향곡,
협주곡 콘서트 실황을, 매
주 금요일에는 프랑스 오
페라 시리즈를 오페라바
움 대표 심성섭의 상세한
해설로 감상할 수 있다.

특히 오페라바움에서는 매주 이어지는 성악가의
땀방울과 작은 소리까지 놓치지 않는 최신 영상
물을 통해 보다 더 쉽고 재미있게 오페라 감상을
즐길 수 있다.

6일(금) 생상스 '삼손과 데릴라'

13일(금) 오펜바흐 '아름다운 엘렌'

20일(금) 구노 '로미오와 줄리엣'

27일(금) 비제 '카르멘'

김옥균의 힐링클래식명곡여행

일 시 | 매주 목요일 오전 11:00
롯데백화점부산본점 문화센터
입장료 | 3개월 15만원
문 의 | 김옥균 010-6367-0149



MBC 부산문화방송 'FM
가정음악실' '별이 빛나는
밤에' 등 음악프로그램을
연출한 前 MBC PD이자
현재 클래식음악해설가,
시인, 음악치료사로 활동
하고 있는 김옥균의 해설
로 진행되는 클래식음악
공연실황 영상감상회.

프로그램

베토벤 교향곡 제7번, 그리그 피아노협주곡 가단조
베토벤 피아노협주곡 '황제', 라흐마니노프 교향곡
제2번

생상스 첼로협주곡 제1번, 비발디 만돌린 협주곡
브루흐 '스코틀랜드 환상곡', 홀스트 모음곡 '축상'
슈베르트 교향곡 제8번 '미완성', 라흐마니노프 피
아노협주곡 제3번

엘가 첼로협주곡, 비제 '카르멘 환상곡' 등

2021 두레라움 토요일외콘서트

일 시 | 매주 토요일 오후 5:00(21일 공연없음)
영화의전당 야외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재)영화의전당 780-6060



지난 2013년 첫 발을 디
딘 후 영화의전당의 대표
적인 프로그램으로 자리
매김한 두레라움 토요일
외콘서트 8월 무대.

가족, 친구, 연인들과 함
께 편안하게 공연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지휘자 정두환이 지휘하

는 두레라움 윈드 오케스트라 연주를 비롯해 공
연 예술집단 '판플'의 색다른 퍼포먼스, 라스칼라
오페라단의 세계가곡교실 등 다채로운 프로그
램이 펼쳐진다.

7일(토) 두레라움 윈드오케스트라(지휘/정두환)

14일(토) 판플 [영화의전당×금정문화재단]

28일(토) 라스칼라 오페라단 '노래로 세계로'

시민사회와 함께 만드는 테마연극제
2021, 그 후

일 시 | 8월 16일(월)-12월 25일(토)
호르드라마스쿨 외
입장료 | 전 과정 10만원(30명 이내 모집)
문 의 | 테마연극제 기획운영위원회 245-5919



지난해 '시선'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테마
연극제에서는 '2021, 그
후'라는 테마로, 코로나
19 이후의 삶을 상상하고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
해 아직 오지 않은 미래
를 생각하며 테마워크숍
과 창작워크숍을 거쳐 시
민들에 의해 창작된 단막극을 무대에 올린다.

주요 일정

8월 10일까지 참여자 모집

8월 17일(화)-9월 14일(화) 연극예술의 이해

9월 4일(토) 테마 포럼

9월 11일(토) 테마 심화 워크숍

9월 27일(월)-10월 26일(화) 테마 토론&극 구성

11월 1일(월)-12월 21일(화) 무대형상화 과정

12월 22일(수)-25일(토) 연극잔치

2021 문예회관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영도에서 떠나는 유럽 예술여행II

일 시 | 8월 21일 토요일 오전 10:30

영도문화예술회관 동백홀

입장료 | 무료(사전 전화예약 필수)

문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4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지원사업으로 운영되는 영도에서 떠나는 유럽 예술여행II.

서양 문화예술의 시작이라는 고대 그리스시대부터 문화예술의 찬란한 꽃을 피운 낭만시대까지의 음악미술 등 작품과 시대별

예술가들에 대해 총 4회로 나누어 진행된다. '고전시대의 미술작품과 음악 공연 감상'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강좌는 제3기 '고전시대 예술 여행' 마지막 강좌로, 10년간 유럽현지에서 활동하고 현재 국내에서 문화해설사 및 미술·음악 예술강사로 인기 높은 김성민 강사의 친근한 해설과 함께 전문 연주자들의 실제 연주를 감상할 수 있다.

영도문화예술회관 꿈다락 예술감상교육 클래식 아는 척 하기

일 시 | 8월 21일(토)~9월 11일(토) 오전 9:00

영도문화예술회관 제4연습실

입장료 | 무료(전화문의 후 신청서 접수)

문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4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지원사업으로 운영되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클래식 아는 척 하기'.

지역 초·중등 학생 및 부모들을 대상으로 감상을 통한 예술적 접근을 통해 청소년의 자발적인 문화향유 기회를 마련하고자

마련했으며 악기, 작곡가, 무용, 클래식 감상 등 4개 주제로 나누어 교육과 감상이 함께 진행된다.

일정

8월 21일 클래식 악기 아는 척하기

8월 28일 시대별 작곡가 아는 척하기

9월 4일 세계의 무용극 감상 및 체험

9월 11일 클래식 공연 감상

전시

부산시립미술관 기획전 이토록 아름다운:The Nature of Art

일 시 | 4월 23일(금)~9월 12일(일)

부산시립미술관 3층 전시실

문의 | 부산시립미술관 744-2602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술이 주는 위로와 치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마련한 기획전 이번 전시는 세계의 구조적 모순을 포착하고 상상력을 동원한 미래를 향한 제언에 귀 기울이는 '오늘로부터-상상', 재난 상황으로 외롭게 떠난 고인들과 남겨진 자들을 함께 애도하는 '공백'으로부터-사유를, 대자연이 주는 위대함, 송고, 그리고 아름다운 속에서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용기를 얻는 '대자연으로부터-용기를' 등 3가지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1년 부처님 오신 날 기념 특별전시 봄날, 부처님 나투시다

일 시 | 5월 18일(화)~8월 29일(일) 부산박물관

문의 | 부산박물관 610-7111

상상마당 부산 특별전 상상바캉스:썸머바이브 강목, 변대용, 보은, 신혜림, 엔조

일 시 | 6월 12일(토)~8월 25일(수)

KT&G상상마당 부산 갤러리

입장료 | 균일 7천원

문의 | KT&G상상마당 부산 070-8893-0892-4



지루한 일상과 더위에 지친 관람객과 예술로 소통하기 위해 기획된 특별전 '상상바캉스:썸머바이브'. 강목, 변대용, 보은, 신혜림, 엔조 등 다섯 작가들의 다양한 장르의 작품이 관객들에게 다채로운 경험과 신선한 자극을 선사한다.

• 관람시간/오전 11:00~오후 8:00(휴관일 없음)

이중근 초대전 'Chaosmos'

일 시 | 6월 12일(토)~8월 29일(일)

고은사진미술관

문의 | 고은사진미술관 746-0055

부산박물관 2021년 제2회 신수유물 소개전 다시 그리는 왜관-초량화관지도 草梁和館之圖

일 시 | 6월 15일(화)~10월 17일(일)

부산박물관 부산관

문의 | 부산박물관 610-7111

이소현 개인전

일 시 | 7월 8일(목)~8월 15일(일) 조현화랑

문의 | 조현화랑 747-8853

초현실적 무대를 통해 자신의 내면세계를 회화로 표현하는 이소현 개인전 '잠옷을 소재로 한 신작과 더불어 미발표되었던 동물시리즈를 선보인다.

2021 부산박물관 특별전 부산의 뿌리, 동래

일 시 | 7월 9일(금)~8월 29일(일)

부산박물관 동래관

문의 | 부산박물관 610-7111

부산의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의 역사와 문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기획된 '부산의 뿌리, 동래'. 특히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재 174호로 지정된 '김지금니묘법연화경'을 별도의 독립장에 전시, 관람객으로 하여금 고려 사경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신진작가 특별전 따뜻한 위로

일 시 | 7월 27일(화)~8월 22일(일)

금정문화회관 생활문화관 제2전시실

입장료 | 관람료 1만원

문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4

부산에서 활동하는 젊은 작가 서예지, 정효은, 장은혜, 정민경의 작품 20여점이 전시되는 신진작가 특별전. ※월요일 휴관

B



부산공동어시장

박희자 지음 / 책퍼냄열린시
128p / 1만원

'부산공동어시장' 부산시민들에게는 언론에서 거의 매일 듣는 낯익은 단어이다. 하지만 시집 제목으로 등장한 시장 이름은 조금 낯설다. 박희자 시인은 부산공동어시장 판매장에서 일한다. 어시장에서 경매되는 생선은 판매장에서 중소상인에게 팔리고, 다시 소비자의 식탁에 오른다. 박 시인은 새벽마다 경매를 지켜보면서, 영진수산의 이름으로 좋은 생선을 받아 상인들에게 팔고 있다. 경남지역에서는 바다가 가장 먼 고장이라는 거창에서 태어났지만, 이제는 매일 아침마다 바다를 만난다. 그에게 공동어시장은 삶의 현장이면서 시를 길어올리는 귀한 공간이기도 하다. 어선에서 경매장으로 쏟아지는 생선, 팽팽한 긴장이 감도는 경매 현장, 공동어시장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상인들, 어느새 밝아오는 부산의 새벽이 모두 시가 된다. 고향과 가족들도 시로 다시 태어난다. 그는 만학도로 국문학을 전공하면서 시를 계속 써왔다. 문학상도 여럿 받았으나, 이번 시집이 그의 소중한 첫 시집이다. 시집을 펼치면 공동어시장의 싱싱한 활력, 땀 흘리며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인다. 문학적 감성을 담은 제목보다 '부산공동어시장'이라는 제목이 더 멋있게 다가온다.

북칼럼니스트 박희자

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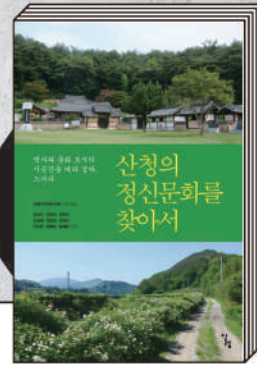


나는 어쩌다 그만두지 않았을까

정옥희 지음 / 엘도라도
268p / 1만 4,800원

발레 무대는 화려하다. 무대 위의 발레 스토리는 꿈속에 들어온 듯 다가온다. 무용수들은 근사하고 우아하다. 겉으로 드러난 그 아름다움 뒤에 숨은 무용수들의 땀, 눈물, 숨소리는 어떤 것인지 말해주는 책이 나왔다. 저자는 이화여자대학교 무용학과에서 학사와 석사 학위를, 미국 템플대학교에서 무용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유니버설 발레단과 중국 광저우 시립발레단의 정단원으로 활동했으며, 현재 성균관대학교 무용학과 초빙 교수로 강의하고 있다. 그는 춤과 춤이 아닌 것, 무용수와 무용수가 아닌 이의 경계에 대해 탐구하며 여러 권의 책을 냈다. 이 책은 발레를 전공하고 발레 무용수로 살았던 그가 들려주는 무대 뒤의 이야기들이다. 성실한 군무 무용수의 낯은 레오타드, 헝거워진 발레 스타킹, 필연적인 다이어트 잔혹사, 파스와 땀 냄새로 후텁지근한 연습실, 무대 뒤의 기약 없는 대기 시간, 엄마 발레리나에게 주어진 비장한 육아의 풍경, 발레가 쥐고 있는 기득권, 유색인 무용수가 무대에 설 때마다 체감해야 하는 백인 주류의 문화 양상 등. 동화처럼 아름답다고만 생각해 온 발레의 숨은 이슈들을 꺼내어 인문학적인 환기를 이끌어 낸 책이다.

K



산청의 정신문화를 찾아서

산청지역학연구회 기획 / 알렘
268p / 2만원

산청 지역민의 눈으로 지역을 다시 보고, 산청 지역민이 생각하는 산청의 오랜 정신문화를 담은 역사문화답사기. 산청지역학연구회는 2018년 8월에 탄생했다. 이후 산청에서 나고 자라서 지금도 생활하는 지역민, 귀향한 지역민, 제2의 고향으로 안착한 귀촌 지역민들이 함께 산청에 대해 공부하고, 직접 발품을 팔아 산청의 정신문화를 찾았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면서 골짜기마다 물이 넘쳐흐르는 산청은 정치에 뜻을 두지 않는 산림채사들의 은거지였다. 자연스레 '선비의 고택'이 되었으며, 남명 조식 선생의 '칼 찬 선비의 정신을 이어가고, 삼우당 문익점의 효와 애민 정신을 기리는 곳이다. 이 책에는 3년의 시간을 함께하며 많은 어려움을 헤쳐 온 산청지역학연구회 회원들의 노고가 스며 있다. 회원들은 선사시대 지석묘부터 청동기를 거쳐 가야의 흔적을 찾고, 신라 때에 지어진 절에 안기도 하고, 조선 때에 살았던 선비들의 흔적을 만나고, 현재 삶의 현장에도 찾아갔다. 이 책은 산청을 지켜온 것은 '항거와 치유'의 정신이라고 말한다. 지역학 연구는 지역을 사랑하는 사람들에 의해 깊어지고, 대한민국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게 하는 책이다.

**부산시립합창단,
區 문화회관 공동주최
2021 Summer Fantasy_時間**



부산시립합창단이 지리적으로 거리가 멀어 부산문화회관을 찾을 수 없는 영도구, 사하구 구민들을 위해 특별한 무대를 선사한다.

영도문화예술회관과 을숙도문화회관 공동주최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 부산시립합창단은 한여름 무더위를 날려줄 시원한 음악선물 '2021 Summer Fantasy_時間(時間) ver.2'를 선보인다. 'Summer Fantasy'는 매년 여름 주옥같은 국내가요를 풍성한 합창음악으로 들려주는 부산시립합창단의 대표적인 브랜드 공연으로, 그동안 하나의 테마가 있는 특별한 무대로 관객들에게 신선한 감동의 무대를 선사해왔다.

부산시립합창단 부지휘자 임희준이 지휘하고 부산시립합창단,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손한별(소금, 대금),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단원 성아란(첼로), 전 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 김영훈(타악)이 출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를 시작으로 Memories, Happy,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은, 짝이야, 내게 애인이 생겼어요, 무조건, 인연, 녹턴, 용두산 엘리제,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 빛, Show 등 각 시대를 거치며 많은 사랑을 받았던 국내가요 외에도 마룬파이브(Maroon 5), 퍼렐 윌리엄스(Pharrell Williams) 등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세계적인 가수들의 히트곡을 들려준다.

이번 공연은 8월 19일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24일 영도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만날수 있다.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객석 송출용 영상시스템 설치**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회장 변원탄)에서는 2021년 지정기부금 사업으로 부산문화회관 중극장과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에 객석 송출용 영상시스템을 설치했다.

이번 영상시스템 설치 지원사업은 지난해 12월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 이어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가 두 번째로 진행하는 후원사업으로, 극장 두 곳의 무대 프로시니엄 기준 좌우측에 설치되면서 필요한 영상제공은 물론 자체공연 홍보 및 관객들을 위한 안내방송 등 효율적인 정보전달을 위한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부산문화회관



플러스 **무료** 회원 가입 캠페인

일상을 컬러 **플** 하게
문화를 파워 **플** 하게



(재)부산문화회관에서는

품격 높은 문화도시부산의 대표적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 **플러스 회원 가입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온라인 무료 회원인 플러스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문자를 통한 공연 알림뿐만 아니라 이메일을 통해 공연 정보가 담긴 뉴스레터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플러스 회원 가입으로 설렘과 감동의 순간을 함께하고 푸짐한 경품 혜택도 누리세요!

대상

캠페인 기간 중 가입한 회원

가입기간

2021년 7월 1일(목) — 12월 31일(금)

참여방법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 또는 모바일

당첨자 발표

2022년 1월중, 당첨자 개별공지

경품내용

선물1	20명	부산문화회관 VIP회원권(10만원 상당)
선물2	30명	부산문화회관 스페셜회원권(5만원 상당)
선물3	50명	부산문화회관 예술단회원권(3만원 상당)
선물4	100명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2만원/모바일)
선물5	100명	해리스 카페 아메리카노 쿠폰(5천원/모바일)
선물6	100명	부산문화회관 월간지 <예술의초대> 1년 구독권
선물7	100명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5매

플러스 회원 가입 신청서



이름

아이디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위해 필요합니다.

전화번호

홈페이지 로그인 시 최초 비밀번호로 설정됩니다.

이메일

주소

이벤트 당첨 시 기재해 주신 주소로 경품 발송됩니다.

SMS/이메일 수신동의

플러스 무료 회원의 혜택인 공연 문자 알림과 뉴스레터 수신을 위하여 SMS/이메일 수신동의는 필수입니다.

정보제공 활용동의

제공해주시는 개인정보는 (재)부산문화회관의 회원 가입 및 공연정보 등을 제공하고 경품 추첨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으신 경우 플러스 회원 가입이 불가능하며, 경품 추첨에 제한이 있습니다.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홍보팀
Public Relations Team

문화를 꽃 피우다

(재)부산문화회관의 스토리텔러

정소진 (재)부산문화회관 홍보팀 주임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김춘수 시인 ‘꽃’에서 말하는 ‘이름을 부르는 일’이 홍보팀의 업무와 닮아 있다. 공연, 전시에 필요한 이름과 이야기를 만들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콘텐츠의 진정한 가치를 찾아주는 일, 그로 인해 문화를 꽃피울 수 있는 힘을 가진 일! 바로 이것이 홍보팀의 매력이고 이 팀에서 내가 더 배우고 성장하고자 하는 이유다.

씨앗에서 꽃을 피우기까지

(재)부산문화회관 홍보팀에서의 홍보업무는 단순히 공연과 전시를 ‘알리는 것’에만 그치지 않는다. 하나의 공연과 전시가 만들어지기 전과 막을 내린 후까지 모든 과정을 홍보팀이 함께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먼저 홍보팀에서는 하나의 문화콘텐츠가 멋지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협찬과 대외협력 업무를 맡고 있다. 이러한 지원을 바탕으로 공연, 전시 콘텐츠가 기획되고 무대에 오를 준비가 되면, 이와 동시에 홍보팀에서는 사람들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매력적인 ‘이야기’를 만든다.

매달 찾아오는 문화예술정보지 ‘예술의 초대’와 ‘배시시 뉴스레터’, 아침 저녁으로 확인하는 SNS 속 공연과 전시 소식들, 그리고 TV와 인터넷에서 확인하는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민회관의 언론 기사들까지! 이렇게 기획공연과 부산시립예술단의 공연, 기획전시, 회관 전체의 다양한 사업들까지 모든 ‘이야기’는 홍보팀을 거쳐 간다. 이 모든 것이 끝나고 나면 공연과 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고 좋은 콘텐츠는 사회 공헌 업무를 추진하며 문화 나눔을 실천한다. 또한, (재)부산문화회관이 더 좋은 서비스로 관객들을 만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후원회와 문화 소식을 열정 넘치게 전하고 있는 SNS서포터즈도 홍보팀에서 운영하고 있다.

내 부캐는 성장캐

이러한 홍보팀에서 나의 포지션은 바로 SNS와 온라인 상에 부산문화회관과 부산시민회관의 공연, 전시를 홍보하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소통 채널을 관리하는 것이다. 현재 (재)부산문화회관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트위터, 카카오토티 그리고 유튜브까지 무려 6개의 채널을 통해 보이지 않는 수많은 사람과 소통하고 있다. 언제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소통해야 하기 때문에 출근과 퇴근의 구분이 없고 24시간 내내 (재)부산문화회관 SNS와 함께한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침대에서 페이스북으로 출근하고, 잠드는 순간 인스타그램을 보며 퇴근하는 것이 SNS를 담당하는 나의 하루다. 거의 요즘 말하는 부캐(원래의 내가 아닌 또 다른 나의 캐릭터)를 키우는 것과 같은 느낌일까?

이 업무에서 제일 재밌는 것은 정사각형 한 컷에 공연과 전시의 포인트들을 잡아내어 담는 작업이다. 빠르고 쉽게 읽고 넘기는 SNS 채널 특성상 하나의 이미지와 문구로 모든 느낌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공연과 전시의 기획 의도와 주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출근을 하면 주로 '예술의 초대'와 기획팀에서 보내준 공연 자료들을 읽고 또 읽으며 공부하고, 주제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카드뉴스와 영상을 제작한다.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지식도 가장 많이 쌓을 수 있고 디자인에 대한 안목도 넓혀갈 수 있는 업무라 일을 하면 할수록 배우고 자신을 발전시켜 나가는 재미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자리에서 더 많이 배우고 도전하며 문화예술 홍보 전문가로 성장해 나가고 싶다.

역주행의 신화를 노려본다

최근에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부분은 SNS 채널 활성화 아이디어 기획이다.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이 출범한 지는 5년이 되었지만, 부산문화회관과 부산시민회관이 시민들과 함께한 지는 꽤 오랜 시간이 되었다. 그러다 보니 시민들에게 이곳은 여전히 오래되었다거나 역사적인 공간이라는 느낌이 강하고 새롭고 신선한 느낌을 받지는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어느 하나가 더 좋은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도 부산의 대표 공연장, 시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줄 복합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새롭고 다이내믹한 브랜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 젊은 세대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이고 따라서 SNS 채널의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부담감을 안고 채널을 활성화할 콘텐츠를 기획할 때마다 매번 마주하는 것들이 있는데, '과연 어디까지 고삐를 풀어야 하는가?'라는 고민이다. 최근 B급 감성이나 과감하고 꾸밈없는 콘텐츠들로 채워지는 채널들이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를 보며 주목을 끌 수 있는 과감함과 공공 공연장의 채널로서 지켜야 할 것들이 매번 머릿속에서 상충된다. 이 고민 속에서 올해 초에 시도했던 웹툰 형식의 카드뉴스 2편이 큰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웃긴 캐릭터와 친근한 반말 콘셉트로 달라진 부산시민회관을 소개한 콘텐츠였는데, '좋아요' 수가 쭉쭉 올라가고 웃긴다는 댓글과 함께 질문들도 꽤 많이 올라왔다. 고민했던 시간이 무색하게 정말 많은 분들이 친근하고 유머러스한 (재)부산문화회관을 기다려온 것처럼 느껴졌다. 오히려 어렵게 여기고 쉽게 다가가지 못한 것은 SNS 담당자인 나였을지도! 그래서 지금 SNS 채널을 정비하고 다양한 컨셉의 기획 콘텐츠들을 준비 중에 있다. 요즘 대세가 '역주행'인 만큼 (재)부산문화회관 SNS도 역주행을 한번 노려본다. 공공 공연장계의 브레이브걸스로 도전!



홍보팀 정소진 주임 어릴 적 부산문화회관 앞 계단에 앉아 찍은 사진을 최근에 발견하고 바로 이곳에서 이렇게 일을 하게 되다니! 라고 웃었는데요. 알게 모르게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민회관과 많은 접점을 가지고 자라온 것 같아서 (재)부산문화회관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게 더 자랑스럽고 뿌듯합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막내를 믿고 응원해주시는 홍보팀 식구들에게 이 기회를 틈타 감사함을 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부산문화회관과 부산시민회관의 소식을 발 빠르고 재미있게 전달해 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2021-22

2021-22 BSCC
SEASON PROGRAM

(재)부산문화회관·부산시립예술단
2021-22 시즌 프로그램

b s c c s e a s o n p r o g r a m

부산을 품다 _ 세상을 잇다 _ 예술로 함께 하다

(재)부산문화회관 2021-22 시즌 프로그램

※ 문화 부산문화회관 / 시민 부산시민회관

연극/뮤지컬

라이브 스크린으로 즐기는 영국 연극계 화제작
NT-Live <워 호스 War Horse>

문화 | 중극장 4.24.(토) 3:00pm
All Seats 20,000원

※ NT-Live는 공연실황을 녹화하여 상영하는 작품입니다.



세익스피어 고전에 대한 한국적 재해석
낭만희극 <십이야>

시민 | 소극장 9.17.(금)~9.18.(토)
금 7:30pm 토 3:00pm

R 40,000원 S 30,000원 A 20,000원



전설의 리틀농구단

문화 | 중극장 10.9.(토) 15:00pm, 19:00pm
R 60,000원 S 50,000원



가해자와 피해자의 숨막히는 심리게임
<흑백다방>

시민 | 소극장 10.23.(토)~10.24.(일) 3:00pm
R 40,000원 S 30,000원 A 20,000원



라이브 스크린으로 즐기는 영국 연극계 화제작
NT-Live <리어왕 King Lear>

문화 | 중극장 10.23.(토) 3:00pm
All Seats 20,000원

※ NT-Live는 공연실황을 녹화하여 상영하는 작품입니다.



얼어버린 두 손의 천재음악가
뮤지컬 <라흐마니노프>

문화 | 중극장 11.5.(금)~11.6.(토)
금 7:30pm 토 3:00pm
R 50,000원 S 30,000원 A 20,000원



스승의 삶을 흠뻑 체자의 딜레마

<단편소설집>

시민 | 소극장 12.17.(금)~12.18.(토)
금 7:30pm 토 3:00pm
R 40,000원 S 30,000원 A 20,000원



무용/발레

2021 BSSC 제작공연 시리즈 I

이정운 안무 신작 <MOTI/어디로부터>

문화 | 대극장 9.3.(금)~9.5.(일)
금 8:00pm 토-일 5:00pm

R 50,000원 S 30,000원 A 20,000원



2021 BSSC 제작공연 시리즈 II

(재)부산문화회관 & 파리 테아트르 드 라 빌 /
리옹댄스비엔날레 공동제작

안은미컴퍼니 <A-드레곤>

문화 | 중극장 11.26.(금)~11.27.(토)
금 7:30pm 토 3:00pm

R 50,000원 S 30,000원 A 20,000원



한국 발레 대표 국립발레단의 12월 선물
국립발레단 <호두까기인형>

시민 | 대극장 12.1.(수)~12.2.(목) 7:30pm
V 80,000원 R 60,000원 S 40,000원



음악/클래식

한국을 대표하는 형제 피아니스트의 첫 듀오무대

피아니스트 임동민&임동혁 듀오 리사이틀

문화 | 대극장 3.6.(토) 5:00pm

R 90,000원 S 70,000원 A 50,000원 B 30,000원



빈 필과 베를린 필의 매력적 만남

비엔나 & 베를린 챔버 오케스트라 [취소]

문화 | 대극장 6.22.(화) 7:30pm

V 100,000원 R 70,000원 S 50,000원 A 30,000원



성악과 기악의 정점에서 만나는 바로크 음악

조수미 & 이 무지치(I Musici)

문화 | 대극장 12.18.(토) 5:00pm

V 150,000원 R 120,000원 S 90,000원 A 70,000원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2021 제야음악회

문화 | 대극장 12.31.(금) 10:30pm
R 30,000원 S 20,000원 A 10,000원

※ 패키지 제외



국악

전국팔도 핫한 탈꾼들의 제대로 보여주는 탈춤판
천하제일탈공작소<가장무도>

문화 | 중극장 4.3.(토) 5:00pm
R 30,000원 S 20,000원



오페라

BSCC Cine Opera Choice - 베르디 완전정복 I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문화 | 중극장 5.1.(토) 3:00pm
All Seats 20,000원

※ BSCC Cine Opera Choice는 공연실황을 녹화하여 상영하는 작품입니다.



BSCC Cine Opera Choice - 베르디 완전정복 II
브리젠츠 오페라 페스티벌 <리골레토>

문화 | 중극장 6.12.(토) 3:00pm
All Seats 20,000원

※ BSCC Cine Opera Choice는 공연실황을 녹화하여 상영하는 작품입니다.



BSCC Cine Opera Choice - 베르디 완전정복 III
라 스칼라 <아이다>

문화 | 중극장 9.4.(토) 3:00pm
All Seats 20,000원

※ BSCC Cine Opera Choice는 공연실황을 녹화하여 상영하는 작품입니다.



2021 BSCC 제작공연 시리즈 III
<피가로의 결혼>

문화 | 대극장 10.15.(금)~10.17.(일)
금 7:30pm 토·일 5:00pm

V 100,000원 R 70,000원 S 50,000원 A 30,000원
※ 패키지 제외



마린스키극장 오페라단 내한 공연
콘서트 오페라 <이고르 공>

시민 | 대극장 11.10.(수) 7:30pm
V 90,000원 R 70,000원 S 50,000원



BSCC Cine Opera Choice - 베르디 완전정복 IV
베를린국립오페라 <맥베스>

문화 | 중극장 12.4.(토) 3:00pm
All Seats 20,000원

※ BSCC Cine Opera Choice는 공연실황을 녹화하여 상영하는 작품입니다.



다원예술

브로드웨이를 매료시킨 미스터리 퍼포먼스
<스냅 SNAP>

문화 | 중극장 5.20.(목) 2:00pm 7:30pm
R 30,000원 S 20,000원



콘서트

한국인이 사랑하는 피아니스트
2021 유기 구라모토 콘서트

시민 | 대극장 5.28.(금) 7:30pm
R 70,000원 S 50,000원 A 30,000원

※ 패키지 제외



감동을 넘어선 마법의 시간
2021 디즈니 인 콘서트

시민 | 대극장 8.28.(토) 5:00pm
V 100,000원 R 80,000원 S 60,000원 A 40,000원

※ 패키지 제외



그때 그 시절 우리들의 영원한 히어로
썸머 나이트 콘서트

시민 | 대극장 12.16.(목) 7:30pm
R 70,000원 S 50,000원 A 30,000원



BSCC 인문학* 콘서트 : 향연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행복의 조건
문화심리학자 김정운

문화 | 중극장 3.26.(금) 11:00am
All Seats 20,000원

공연 부산시립합창단



어디서 살 것인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공간)
건축가 유현준

문화 | 중극장 4.30.(금) 11:00am
All Seats 20,000원
공연 부산시립합창단



진정성의 시대
빅데이터 전문가 송길영

문화 | 중극장 5.28.(금) 11:00am
All Seats 20,000원
공연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명작의 조건과 장인정신
미술사학자 유홍준

문화 | 중극장 7.30.(금) 11:00am
All Seats 20,000원
공연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부산시립무용단



영원한 광대 김명곤의 풍류정담(風流情談)
공연예술인 김명곤

문화 | 중극장 9.24.(금) 11:00am
All Seats 20,000원
공연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부산시립무용단



뇌과학에 묻다, 예술의 미래는?
뇌과학자 김대식

문화 | 중극장 10.29.(금) 11:00am
All Seats 20,000원
공연 부산시립교향악단



가족·어린이·청소년

공연장 예술진로교육 프로그램
스쿨 온 스테이지 School on Stage

문화 | 중극장 5.26.(수) 11.17.(수)
10:00am 2:00pm
All Seats 10,000원



온가족과 함께하는 판타스틱 모험의 세계
<신비아파트> 뮤지컬 시즌 4

시인 | 대극장 6.19.(토)~6.20.(일)
토 11:00am 2:00pm 4:30pm
일 11:00am 2:00pm
1층 60,000원 2층 50,000원
※ 패키지 제외



백희나 작가의 원작을 넘어선 감동
뮤지컬 <알사탕>

문화 | 중극장 7.10.(토)~7.11.(일)
7.16.(금)~7.18.(일) 금 4:00pm
토일 11:00am 2:00pm 4:00pm
1층 50,000원 2층 40,000원
※ 패키지 제외



생존경쟁 끝자락에서 마주하는 우정
<XXL레오타드 안나수이 손거울>

문화 | 중극장 9.9.(목)~9.10.(금)
목 7:30pm 금 2:00pm(단체관람) 7:30pm
R 30,000원 S 20,000원



문화가 있는 날

당신을 웃게 하는 또 다른 감동, 스크린으로 만나다
(재)부산문화회관 <문화가 있는 날>

시민 | 소극장 4.28.(수), 5.26.(수), 6.30.(수),
7.28.(수), 9.29.(수), 10.27.(수) 11.24.(수),
12.29.(수) 7:30pm
All Seats Free



지역프로젝트

부산 시민들의 유쾌한 문화놀이터
2021 시민뜨락축제

시민 | 야외무대 상반기(4~5월)
하반기(9~10월) 12:20pm
All Seats Free



비대면 시대, 온라인으로 즐기는 배시시한 콘텐츠
2021 배시시 프로덕션 온택트

배시시(BSCC)TV 2021년 하반기
BSCC 온라인 플랫폼 Free Streaming



새로운 시선, 차세대 예술
2021 부산신진예술페스티벌

문화 | 시민 8.14.(토)~8.22.(일)
평일 7:30pm, 주말·공휴일 5:00pm
All Seats 20,000원



실내악의 향연, 음악의 온기를 전하다
2022 (재)부산문화회관 챔버 페스티벌

문화 | 중극장&챔버홀 2022.1.18.(화)~1.30.(일)
평일 7:30pm 주말 5:00pm



※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공연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산시립예술단 2021 시즌 프로그램

※ **문화** 부산문화회관 / **시민** 부산시민회관

부산시립교향악단_정기연주회

제571회 정기연주회 부산시향의 신년음악회

문화 | 시민 1.14.(목)~1.15.(금)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지휘 최수열 | 피아노 이경숙&김규연



제572회 정기연주회 선후배

문화 | 중극장 3.12.(금)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지휘 최수열 | 첼로 정재윤 | 바이올린 김덕우



제573회 정기연주회 슈트라우스 어게인!

시민 | 대극장 4.2.(금)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지휘 최수열 | 피아노 임윤찬 | 작곡 김택수(2021 올해의 예술가)



제574회 정기연주회 부산시향의 말러 [하반기 연기]

문화 | 대극장 4.30.(금)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객원지휘 이병욱



제575회 정기연주회 열정

시민 | 대극장 5.27.(목)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지휘 최수열 | 클라리넷 김한



제576회 정기연주회 비제의 교향곡 제1번

문화 | 중극장 6.18.(금)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지휘 이민형 | 피아노 이윤수



제577회 정기연주회 프랑시스 뉴앙스 [취소]

문화 | 대극장 7.16.(금)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객원지휘 아드리안 페뤼송



제578회 정기연주회 합창

문화 | 대극장 9.16.(목)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지휘 최수열 | 소프라노 박은주 | 메조소프라노 백재은
테너 국윤중 | 베이스 장세종 | 합창 부산시립합창단



제579회 정기연주회 스키

시민 | 대극장 10.14.(목)~10.15.(금)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지휘 최수열 | 바이올린 조진주



제580회 정기연주회 보헤미안

문화 | 대극장 11.4.(목)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지휘 이민형 | 피아노 홍민수



제581회 정기연주회 모차이름

문화 | 대극장 11.26.(금)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객원지휘&피아노 김대진



제582회 정기연주회 시작 아니면 끝

문화 | 중극장 12.16.(목)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지휘 최수열 | 피아노 최희연
작곡 김택수(2021 올해의 예술가)



부산시립교향악단_기획연주회

부산시향의 미완성음악회 I

문화 | 대극장 1.12.(화) 7:30pm
All Seats 5,000원



제76회 청소년협주곡의 밤

시민 | 대극장 2.18.(목) 7:30pm
All Seats 5,000원



부산시향의 미완성음악회 II

문화 | 중극장 3.10.(수) 7:30pm
All Seats 5,000원



부산시향의
미완성음악회III
시민 | 대극장 3.30.(화) 7:30pm
All Seats 5,000원



부산시향의
실내악공장 I
문화 | 챔버홀 4.16.(금) 7:30pm
All Seats 1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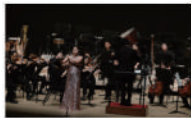
부산시향의
미완성음악회IV
시민 | 대극장 5.25.(화) 7:30pm
All Seats 5,000원



부산시향의
실내악공장II
문화 | 챔버홀 7.2.(금) 7:30pm
All Seats 1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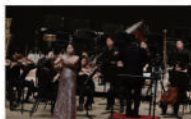
부산시향의
클래식은 내친구 [취소]
문화 | 대극장 8.10.(화) 3:30pm 7:30pm
All Seats 10,000원



부산시향의
심야음악회 I [취소]
문화 | 중극장 8.27.(금) 9:00pm
All Seats 10,000원



제77회
청소년합주곡의 밤
문화 | 중극장 9.30.(목) 7:30pm
All Seats 5,000원



부산시향의
미완성음악회V
시민 | 대극장 10.13.(수) 7:30pm
All Seats 5,000원



부산시향의
실내악공장III
문화 | 챔버홀 10.21.(목) 7:30pm
All Seats 10,000원



부산시향의
우리아이음악회
문화 | 대극장 11.11.(목)~11.12.(금) 11:00am
All Seats 5,000원



부산시향의
심야음악회II
문화 | 중극장 12.3.(금) 9:00pm
All Seats 10,000원



부산시향의
미완성음악회VI
문화 | 중극장 12.14.(화) 7:30pm
All Seats 5,000원



부산시립합창단_정기연주회

제181회 정기연주회
뮤지컬 칸타타 '아! 나의 조국!'
문화 | 대극장 5.13.(목)~5.14.(금) 7:30pm
R 20,000원 S 10,000원
사능시스, 작곡 이진실 | 지휘 이기선



제182회 정기연주회 / 대규모 합창음악회
위로의 메세지
문화 | 대극장 6.24.(목) 7:30pm
R 20,000원 S 10,000원
지휘 이기선 | 바리톤 고성현 | 연주 부산시립교향악단
합창 부산시립합창단, 춘천시립합창단



제183회 정기연주회
해설이 있는 현대 합창의 밤 III
문화 | 대극장 10.7.(목) 7:30pm
All Seats 10,000원
지휘 이기선



제184회 정기연주회
**정격연주기법에 의한
헨델의 메시아 대연주회**
시민 | 대극장 12.9.(목) 7:30pm
All Seats 10,000원
지휘 이기선 | 반주 카메라타안티파(고음악 전문 연주 오케스트라)
소프라노 강혜정 | 알토 양송미 | 테너 조성환 | 베이스 박흥우



부산시립합창단_특별연주회

유명지휘자 초청연주회 1
새봄을 꿈꾸며
문화 | 대극장 3.4.(목) 7:30pm
All Seats 10,000원
객원지휘 이상길



가요합창음악회
2021 Summer Fantasy '시간(時間)'

문화 | 대극장 7.22.(목) 8:00pm
All Seats 10,000원
지휘 임희준 | 연주 이삼열 밴드 외



합창으로 하나되는 부산
제33회 부산합창제 [취소]

문화 | 대극장 10.25.(월)~10.28(목) 6:00pm
All Seats Free
출연 부산시립합창단 외 부산지역 아마추어 합창단



유명지휘자 초청연주회 2
Healing for you

문화 | 대극장 11.9.(화) 7:30pm
All Seats 10,000원
객원지휘 이수은



부산시립무용단_정기공연

제83회 정기공연
한국춤 명품 컬렉션 '본색'

문화 | 대극장 5.27.(목)~5.28.(금) 8:00pm
R 20,000원 S 10,000원
안무 이정윤



제84회 정기공연
소생

문화 | 대극장 12.10.(금) 8:00pm
12.11.(토) 5:00pm
R 20,000원 S 10,000원
안무 이정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_정기연주회

제209회 정기연주회
명품 재창작 관현악

문화 | 대극장 3.18.(목) 7:30pm
1층 10,000원 2층 5,000원
지휘 김종욱



제210회 정기연주회
전통음악의 밤

문화 | 중극장 6.10.(목) 7:30pm
1층 10,000원 2층 5,000원
집박 김수일



제211회 정기연주회
국악칸타타 [취소]

문화 | 대극장 9.8.(수)~9.9.(목) 7:30pm
1층 10,000원 2층 5,000원
지휘 김종욱 | 작곡 김은혜 | 작시 이청산



제212회 정기연주회
명인·명창·명기의 무대

문화 | 중극장 10.21.(목) 7:30pm
1층 10,000원 2층 5,000원
지휘 김종욱
판소리 박성희, 정선희 | 태평소 김경수 | 가야금 송영남, 하지희
※ 대통령상 수상자 무대



제213회 정기연주회
2021 송년음악회

문화 | 대극장 12.28.(화) 7:30pm
1층 10,000원 2층 5,000원
지휘 김종욱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_특별연주회

협주곡의 밤

문화 | 대극장 4.22.(목)~4.23.(금) 7:30pm
1층 10,000원 2층 5,000원
지휘 김종욱
해금 서은영, 안은경, 김준희, 윤해승(22일)
가야금 광수은, 오해향, 윤경선, 최미란(23일)



신축다례연(辛丑茶禮宴)

문화 | 대극장 5.7.(금) 7:30pm
1층 10,000원 2층 5,000원
지휘 김정수 | 행다시연 (사)한국차인연합회 부산지연
차용무 부산시립무용단 | 시조 이아미



스타 프로젝트
그대를 그리올다

문화 | 중극장 7.8.(목) 7:30pm
1층 10,000원 2층 5,000원



팔빙수 같이 시원한 콘서트 [취소]

시민 | 대극장 8.11.(수) 7:30pm
1층 10,000원 2층 5,000원
지휘 김종욱
가야금 김혜진 | 소프라노 남순천, 김나영
사물놀이 전학수, 이주현, 최오성, 박재현



제46회
청소년 협주곡의 밤

문화 | 대극장 11.24.(수) 7:30pm



부산시립극단_정기공연

제69회 정기공연
a point of CONTACT

문화 | 중극장 4.9.(금)~4.11.(일)
평일 7:30pm 주말 5:00pm
R 20,000원 S 5,000원
작·연출 김지용



제70회 정기공연
벚꽃 동산

문화 | 중극장 7.1.(목)~7.3.(토)
평일 7:30pm 토 5:00pm
R 20,000원 S 10,000원
원작 안톤 파블로비치 체홉 | 객원연출 강성우



부산시립예술단 연합공연
찰스 디킨즈 '크리스마스 캐럴'

문화 | 대극장 12.23.(목)~12.24.(금) 7:30pm
R 30,000원 S 20,000원 A 10,000원
원작 찰스 디킨즈 | 각색/작사/연출 김지용
지휘 이기선 | 연주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출연 부산시립극단, 부산시립합창단, 부산시립무용단,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부산시립극단_특별공연

어린이 뮤지컬 아카데미 제1기
어린이 뮤지컬 '피터팬'

미정
원작 제임스 매튜 베리 | 대본, 작사 강보람
작곡 전현미 | 연출 김지용



안데르센
'미운오리새끼'

문화 | 사랑채 9.28.(화)~10.23.(토) 11:00am
(일요일 공연 없음) ※ 평일 단체, 토요일 일반
All Seats 10,000원
원작 안데르센 | 연출 김지용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_정기연주회

제64회 정기연주회
화려한 전성기, CLIMAX

문화 | 대극장 3.19.(금) 7:30pm
All Seats 2,000원
지휘 이명근 | 협연 피아노



제65회 정기연주회
노련함, VETERAN

문화 | 대극장 9.14.(화) 7:30pm
All Seats 2,000원
지휘 이명근



제66회 정기연주회 및 2021년 송년음악회
겨울...차이콥스키

문화 | 대극장 12.2.(목) 7:30pm
All Seats 2,000원
지휘 이명근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_특별연주회

2021 솔로리스트들의 축제

문화 | 중극장 5.21.(금) 7:30pm
All Seats 2,000원
지휘 이명근



점점 Poco a poco

문화 | 대극장 10.6.(수) 7:30pm
All Seats 2,000원
지휘 이명근



청소년 실내악의 밤

문화 | 챔버홀 10.23.(토)~10.24.(일) 5:00pm
All Seats 2,000원
지휘 이명근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_정기연주회

제158회 정기연주회
제비던

문화 | 대극장 5.29.(토) 7:00pm
All Seats 2,000원
지휘 김수현



제159회 정기연주회
양탄자타고 음악여행 II

문화 | 대극장 9.11.(토) 5:00pm
All Seats 2,000원
지휘 김수현



제160회 정기연주회
Santa, Jazz Unplugged

문화 | 대극장 12.17.(금) 7:30pm
All Seats 2,000원
지휘 김수현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_특별연주회

향상음악회

문화 | 챔버홀 2.19.(금)~2.20.(토)
금 7:30pm 토 5:00pm
All Seats Free



제34회 부산청소년합창제 [취소]

문화 | 대극장 11.5.(금)~11.6.(토)
금 7:30pm 토 5:00pm
All Seats Free



※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공연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Package Ticket

2021-22
BSCC

프리미엄 패키지(40%) [판매종료]

▪ V+R 320,000 192,000 R 300,000 180,000 S 210,000 126,000

- 프리미엄 1. 피아니스트 임동민 & 임동혁 듀오 리사이틀
- 프리미엄 2. 낭만희극 <십이야(十二夜)>
- 프리미엄 3. 안은미컴퍼니 <A-드래곤>
- 프리미엄 4. 뮤지컬 <라흐마니노프>
- 프리미엄 5. 콘서트 오페라 <이고르공>

* 최고등급 V+R 교차 예매 가능

연극/뮤지컬 패키지(30%)

▪ R 170,000 119,000 S 120,000 84,000 A 80,000 56,000

- 연극/뮤지컬 1. 낭만희극 <십이야(十二夜)>
- 연극/뮤지컬 2. 연극 <흑백다방>
- 연극/뮤지컬 3. 뮤지컬 <라흐마니노프>
- 연극/뮤지컬 4. 연극 <단편소설집>

발레/무용 패키지(30%) [판매종료]

▪ V+R 240,000 168,000 R 200,000 140,000 S 120,000 84,000

- 발레/무용 1. 에이프만 발레<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 <안나 카레리나> (작품 중 택 1)
- 발레/무용 2. 샹트 페테르부르크 국립 아이스발레단 <호두까기인형>
- 발레/무용 3. 이정윤 안무신작 <MOTI/어디로부터>
- 발레/무용 4. 안은미컴퍼니 <A-드래곤>

* 최고 등급 V+R 교차 예매 가능

클래식/오페라 패키지(30%) [판매종료]

▪ V+R 310,000 217,000 R 260,000 182,000 S 190,000 133,000

- 클래식/오페라 1. 피아니스트 임동민 & 임동혁 듀오 리사이틀
- 클래식/오페라 2. 프레데리크 기 피아노 리사이틀
- 클래식/오페라 3. 비엔나 & 베를린 챔버 오케스트라
- 클래식/오페라 4. 콘서트 오페라 <이고르공>

* 최고 등급 V+R 교차 예매 가능

NT Live 패키지 [판매종료]

▪ 40,000 28,000

- NT Live 1. 워 호스 War Horse
- NT Live 2. 리어왕 King Lear

<인문학+ 콘서트> 패키지

- 인문학+ 콘서트 6편 동시 구매 시 40% 할인 [판매종료]
- 인문학+ 콘서트 4편 이상 동시 구매 시 30% 할인 [판매종료]
- 인문학+ 콘서트 2편 이상 동시 구매 시 20% 할인

Season Program

<시네 오페라 초이스> 패키지

- '시네 오페라 초이스' 4편 동시 구매 시 40% 할인 **[판매종료]**
- '시네 오페라 초이스' 3편 동시 구매 시 30% 할인 **[판매종료]**
- '시네 오페라 초이스' 2편 동시 구매 시 20% 할인

자유 패키지

- 부산문화회관/시민회관 기획공연 중 5편 동시 구매 시 30% 할인
- 부산문화회관/시민회관 기획공연 중 3편 동시 구매 시 20% 할인
- NT-Live, 인문학* 콘서트, 시네 오페라 초이스, 유키 구라모토 콘서트, 2021 디즈니 인 콘서트, 신비아파트 시즌4, 알사탕, 피가로의 결혼, 조수미&이무지치, 2021 제야음악회 공연은 패키지에서 제외
- 자유 패키지는 동일 등급에 한해 구입 가능

패키지티켓 오픈: 2021. 1. 19.(화) 오후 2시

패키지 구매 시 유의사항

- 패키지 예매는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와 고객센터에서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온라인예매: www.bscc.or.kr
 - 고객센터센터 전화예매: 051-607-6000
- 모든 패키지는 동일 좌석등급으로 선택 가능합니다. (동일공연 중복선택 불가)
- 모든 패키지는 묶음구성이므로, 공연별 편당 취소는 불가합니다.
- 모든 패키지는 구성공연의 첫 공연 시작 이후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 패키지 취소는 첫 공연 전날 오후 5시까지, 전화 취소만 가능합니다.
 - 단, 첫 공연이 일요일 또는 월요일일 경우, 그 전 주 금요일 5시까지 취소 가능합니다.
- 패키지 구성 공연 중 일부 취소가 발생할 경우, 해당 공연은 패키지 할인율을 적용해 환불됩니다.
- 패키지 구성공연의 상황에 따라 패키지 예매가 조기매진될 수 있습니다.

오시는 길

부산문화회관



지하철 2호선 대연동역 하차,
5번 출구로에서 유엔 교차로 방향으로
도보 10분



• 시내버스 51번, 68번, 134번, 138번
• 마을버스 남구9번, 남구10번



셔틀버스

• 저녁시간
공연 시간 1시간 전 / 30분 전 2회 운행
(※ 공연 시작시간에 따라 운행시간 변경)
• 낮시간
모든 공연 시작 30분 전 1회 운행

부산시민회관



1호선 범일역 하차; 2번 출구(도보 10분 소요)
2호선 문현역 하차; 3번 출구(도보 3분 소요)



버스

• 시내버스
2번, 68번, 11번, 80번, 99번, 83-1번, 63번, 57번, 138번, 23번, 83번, 10번, 108번, 81번, 43번, 52번, 5-1번, 22번, 40번, 134번, 27번, 26번, 41번, 82번, 101번, 42번, 1583번, 24번
• 마을버스 남구3번, 남구5번
• 좌석버스 1000번, 1003번, 1004번

공연문의 및 전화예매

- 가능시간
평일 09:00~18:00
- (재)부산문화회관 고객센터
051-607-6000
ARS ① 한국어 문의
ARS ② 외국어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MEMBER OF THE ASSOCIATION FOR THE BUSAN CULTURAL CENTER

회장

변원탄 의료법인 양산병원 이사장

명예회장

최수기 (주)휴넷 회장

부회장

박정삼 백송건설 회장
도용복 (주)사라토가 회장
김정기 (주)경동건설 대표이사
임현경 신주레약국
임현숙 (사)아름다운 사람들 이사장

사무처장

김홍재 (전)연제구의장

이사회원

강서룡 효승테크 대표이사
곽국민 (주)파크랜드 대표이사
권한상 부경대학교 교수
김기호 (주)이디에스 보안물류 대표이사
김성우 (재)해뜨락 요양병원 이사장
김신호 (주)덕신체인 대표이사
김암우 세무법인 중추 대표이사
김충석 국제로타리3661 부산지구 총재
류용주 삼신고통(주) 회장
박영기 에스더블유팜 대표이사
박장호 (주)피에스제이 대표이사
서현석 한국고무산업 대표이사
손명찬 서원건설산업(주) 대표이사
윤철원 (주)정우 대표이사
이수영 (주)유환 대표이사
이진영 돌고래마취통증의학과의원 원장
임성국 하이원해운항공 대표이사
임정덕 예술과부산 대표이사

장문호

(주)천영스틸 대표이사

장세비

우리은행 부산금융센터 및
부산영업 그룹장

정문흠

(주)태영버스 대표이사

정연택

디씨엠(주) 대표

정용환

서번산업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조기종

조기종치과의원 원장

일반회원

강득용 (주)프리미엄 에셋 대표이사
김말순 인창요양병원 대표이사
김영수 세종월드건설 대표이사
김영욱 김&정 세무회계사무소 대표이사
김종부 다올테크 대표이사
김종식 주식회사 JJK 회장
김 철 춘해병원 의무원장
김형우 (주)천마 대표이사
김희규 효성의약품(주) 대표이사
도재철 (주)좋은세상 대표이사
문민우
박성복
박성환 대동병원 이사장
박혜빈 세종기획 이사
박흥근 구포성심병원 이사장
성원기 삼강종합건설(주)
양은진 세무법인 인성
이경철 세무법인 프로텍 세무사
이에리카정애 르네상스피부과 원장
이현숙 이현숙 정신건강의학과 원장
임은자
정민섭 정민섭 산부인과 원장
정의화 (전)국회의장
조성락 속편한내과 원장
조종래 라이프온(주) 대표이사
하정태 주식회사 일신케미칼 사장
한원우 법률사무소 담헌 변호사



보람 있는 후원, 명예로운 모임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가입안내

GUIDE A MEMBER OF THE ASSOCIATION FOR THE BUSAN CULTURAL CENTER

■ 기본 예우



후원회 전용 룸 이용



대극장 좌석 네이밍



예술의 초대
소식지 발송



연(분기 또는 반기)
후원회원 대상 음악회 개최



후원 회원명단 게재
(후원회 홈페이지, 월간지 등)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무료 관람 제공
(동반 1인 포함 / 사전 신청자에 한함)



후원회 멤버십 카드 발급



회원패 증정



무료 주차혜택 제공
(본인 차량에 한함)

■ 회원별 예우

단위 : 만 원

구분	후원 금액	법인/개인	기획공연 및 전시 무료 초대		아카데미	좌석 네이밍 (대극장)
			기획공연(연간)	전시		
이사 회원	500 이상	법인/개인	- 기획공연 8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30~50%)	본인·배우자 무료	본인·배우자 무료	2개 좌석
	300		- 기획공연 6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30~50%)	본인 무료, 동반 1인 50% 할인	본인 50% 할인	
일반 회원	100	개인	- 기획공연 4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30%)	본인 무료, 동반 1인 50% 할인	본인 10% 할인	1개 좌석

- ※ 법인회원은 300만 원부터 가능하고, 후원회원 예우는 개인 및 법인의 대표와 배우자에 한함.
- ※ 공연(기획공연, 예술단공연) 무료초대는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하여야 하며, 조기매진 시 초대권 제공 불가함.
- ※ 일부 공연의 경우 공동주최 등의 사유로 예우사항(할인율 등)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 전시, 아카데미(1강좌에 한함)의 경우 반드시 사전 신청자에 한하며 내부 사정에 따라 예우사항 등은 조정 될 수 있음.

가입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사무처장 김홍재(010-3560-2511)

특별한 혜택

(재)부산문화회관
VIP회원에게만 드리는

Busan Cultural Center

VIP

다양한 할인혜택으로 문화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제도는 높은 할인율과 초대권 증정 등 다양한 혜택으로 보다 많은 관람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부산문화회관 VIP 회원에 가입하시면 지정 기획공연 중 초대권 4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초대권 사용이 가능한 공연은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의 초대>나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를 통해 공지되며, 공지된 공연 중 원하는 공연을 선택하셔서 전화로 사전 예약하시면 됩니다. 아래 공연은 2021년 예약이 가능한 기획공연으로 공연예매 시작과 함께 전화로 예약가능하며 선착순 마감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형제 피아니스트의 첫 듀오 무대
피아니스트 임동민 & 임동혁 듀오 리사이틀
3월 6일(토)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선착순 R석 20매) **종료**

라이브 스크린으로 즐기는 영국 연극계 화제작
NT-Live <워 호스(War Horse)>, <리어왕 (King Lear)>
4월 24일(토), 10월 23일(토) 오후 3: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회차별 선착순 20매)

뉴에이지의 거장, 피아노의 음유시인
2021 유키 구라모토 콘서트
5월 28일(금) 오후 7:3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선착순 R석 20매) **종료**

프랑스를 대표하는 베토벤 스페셜리스트
프레데리크 기(Frédéric Guy) 리사이틀
6월 15일(화)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선착순 R석 20매) **취소**

빈필과 베를린필의 매력적 만남
비엔나 & 베를린 챔버 오케스트라
6월 22일(화)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선착순 R석 20매) **취소**

은반 위에 펼쳐지는 한여름의 크리스마스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 아이스발레단
호두까기인형
7월 31일(토) 오후 2:00, 5:00, 8월 1일(일) 오후 2: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회당 선착순 R석 20매) **취소**

감동을 넘어선 마법의 시간
2021 디즈니 인 콘서트
8월 28일(토) 오후 5: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선착순 R석 20매) **종료**

새로운 시선, 차세대 예술
2021 부산신진예술페스티벌
8월 14일(토)~15일(일) 오후 5:00, 17일(화) 오후 7:30,
19일(목)~20일(금) 오후 7:30, 21일(토)~22일(일)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및 부산시민회관(회차별 선착순 R석 30매)

(재)부산문화회관
VIP회원에게만 드리는
특별한 혜택

2021 BSCC 제작공연 시리즈 I

이정운 안무 신작
<MOTI/어디로부터>

9월 3일(금) 오후 8:00, 4일(토)~5일(일)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회차별 선착순 R석 30매)

생존경쟁 끝자락에서 마주하는 우정

XXL레오타드 안나수이 손거울

9월 9일(목)~10일(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회차별 선착순 R석 20매)

셰익스피어 고전에 대한 한국적 재해석

낭만희극 <십이야>

9월 17일(금) 오후 7:30, 18일(토)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선착순 R석 20매)

꿈꾸는 청춘들의 치열한 농구 한판

창작뮤지컬 <전설의 리틀 농구단>

10월 9일(토) 오후 3:00, 7: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오후 3:00 공연에 한해 선착순 S석 20매)

가해자와 피해자의 숨막히는 심리게임

흑백다방

10월 23일(토)~10월 24일(일)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선착순 R석 20매)

얼어버린 두 손의 천재음악가

뮤지컬 <라흐마니노프>

11월 5일(금) 오후 7:30, 6일(토) 오후 3: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회차별 선착순 R석 20매)

2021 BSCC 제작공연 시리즈 II

(재)부산문화회관&파리 테아트르 드 라 빌
리옹댄스비엔날레 공동제작

안은미컴퍼니 <A-드래곤>

11월 26일(금) 오후 7:30, 27일(토) 오후 3: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회차별 선착순 R석 20매)

그때 그 시절, 우리들의 영원한 히어로

썸머 나이트 콘서트

12월 16일(목) 오후 7:3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선착순 R석 40매)

스승의 삶을 흠친 제자의 딜레마

단편소설집

12월 17일(금) 오후 7:30, 18일(토)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선착순 R석 20매)

성악과 기악의 정점에서 만나는 바로크 음악

조수미 & 이 무지치

12월 18일(토)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선착순 R석 10매)

- * 1인 1~2매에 한해 예약 가능하며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 공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코로나19로 인한 해외 아티스트들의 입국상 어려움으로 해외초청공연이 부득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문의 | 고객개발팀(051-607-6116)

Busan Cultural Center
VIP

일상에 문화를 더하다, 문화생활의 필수품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회원가입

가입신청 홈페이지(www.bscc.or.kr) 또는 전화 051)607-6000
 단체가입 할인 20명 이상(10%), 30명 이상(20%), 50명 이상(30%)

공통혜택

- 가입기간(1년) · 정기회원 카드 발급(10일 이내) · 선 예매 서비스제공(일부공연 제외)
-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의 초대' 우송(1년) · 공연정보(SMS) 제공(대관공연 제외)
- 아카데미 수강료 할인(10%~) · 부산문화회관 주차요금 50% 할인(입차시 회원카드 제시)
- 정기회원 라운지 무료 이용(회원카드 제시 시 음료 등 제공)
- 부산시내 외부공연 및 대관공연 입장료 할인(주최 측 협의에 한함)



연 회 비 : 10만원
초 대 권 : 8매(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공연 4매,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4매)

할인매수 : 6매(공연당)

특별혜택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지정된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5개 단체) 공연 초대권 각 4매 증정

- 지정된 기획공연, 지정된 객석 수에 따라 선착순 예약 마감
- 지정된 기획공연, 지정된 좌석 중에서 예약 가능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전화 사전예약)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공연(전시)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입장료 할인(10~50%)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10매

※ 지정된 기획공연은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의 초대>를 통해 따로 공지 (조기마감)

※ 부산시립예술단: 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합창단, 무용단, 극단



연 회 비 : 5만원
초 대 권 : 4매(부산시립예술단 공연 4매)
할인매수 : 4매(공연당)

특별혜택

부산시립예술단(5개 단체) 공연 초대권 4매 증정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전화 사전예약)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공연(전시) 및 부산시립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10~30%)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6매



연 회 비 : 3만원
초 대 권 : 2매(부산시립예술단 공연 2매)
할인매수 : 2매(공연당)

특별혜택

부산시립예술단(5개 단체) 가입단체 공연 초대권 2매 증정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전화 사전예약)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공연(전시) 및 부산시립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10~30%)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4매
- ※ 가입단체 초대권 증정, 비가입단체는 예술단 공연입장료의 할인이율이 달라질 수 있음.

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합창단, 무용단, 극단

(재)부산문화회관 유료회원을 위한 선예매 서비스 제공

(재)부산문화회관에서는 2021년부터 유료회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선 예매 제도를 도입합니다. 선 예매는 일반 예매에 앞서 유료회원에게 사전 예매기간을 제공함으로써 회원들이 보다 좋은 좌석을 미리 예매할 수 있습니다. 대상공연은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일부 공연 제외)입니다. 부산문화회관은 앞으로도 유료회원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입 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고객센터 TEL. 051)607-6000 FAX. 051)607-6119 * 평일 09:00~18:00(토·일·공휴일 제외)

법인 가족과 나누는 특별한 시간, 더 큰 문화의 감동을 선사합니다

(재)부산문화회관 법인회원

BSCC Business Membership

법인회원을 위한 비즈니스 멤버십은 문화 혜택과 더불어 회관의 홍보 채널을 제공합니다. 한 장의 카드로 혜택을 모으고, 문화를 즐기고, 기쁨을 나눕니다. 법인이라면 기업의 품격을 높여줄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 비즈니스 멤버십에 가입하세요.

비즈니스 멤버십 주요 혜택

- 01 **부담은 줄이고 문화는 풍성하게** 공연과 전시(20~50%), 아카데미 수강(10%), 회관 주차장(50%) 등을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프로그램 북 교환권으로 유료 판매하는 공연 프로그램 북을 교환해 공연을 더욱 풍성하게 즐기세요. ※ 선예매 서비스 제공
- 02 **멤버십 전용 카드 및 이벤트 제공** 회원카드에 기업 로고를 표기해드립니다. 법인회원 멤버십을 위한 회원 전용 초청 이벤트로 예상치 못한 초대와 즐거움까지 함께 누리보세요.
- 03 **최고의 혜택과 홍보를 한 번에** 회관의 온·오프라인 홍보 채널을 이용해 기업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 월간 <예술의 초대>, 회관 내 DID, 회관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해 기업을 홍보하세요.

비즈니스 멤버십 등급별 혜택

등급 (가입기간 1년)		루비 레드 (Ruby Red)	에메랄드 그린 (Emerald Green)	사파이어 블루 (Sapphire Blue)
연회비(발급 카드)		500만 원(50매)	300만 원(30매)	100만 원(10매)
공통혜택		회원카드 기업 로고 표기 공연 및 전시할인(20~50%) 아카데미 수강료 할인(10%)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의 초대> 발송 회원 라운지 무료 이용(회원카드제시 시) 회원 대상 초청 이벤트 실시 문화회관 주차장 무료 이용(회원카드 제시 시) 제휴업체 할인(업체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등급별 추가 혜택	기획공연 유료 프로그램 북 교환권	90매	60매	30매
	회관 홈페이지 배너 광고	6개월	3개월	1개월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의 초대> 광고	2회	1회	-
	회관 내 DID 법인 홍보	6개월	3개월	1개월
	회관 공식 SNS 홍보(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카카오토리, 블로그)	6개월	3개월	1개월

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고객개발팀(051-607-6114~7, www.bscc.or.kr)

Pick!

세계 최고의 베르디 오페라 공연실황을
부산문화회관에서 대형스크린으로!



베르디 완전정복

시네 BSCC
CINE OPERA
CHOICE 2021

오페라 초이스 2021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 토요일 오후 3시 | 전석 2만원

주최  부산문화회관

예매 및 문의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www.bscc.or.kr) 또는 고객센터 (051-607-6000, ARS 1번)

시네 오페라 초이스 패키지 구매혜택

4편 동시 구매 시 40% 할인 | 3편 동시 구매 시 30% 할인 | 2편 동시 구매 시 20% 할인

05.01.^{SAT}

라
트라비아타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06.12.^{SAT}

리골레토

브레겐츠
오페라 페스티벌

09.04.^{SAT}

아이다

라 스칼라

12.04.^{SAT}

맥베스

베를린국립오페라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MOTI

어.디.로.부.터

9.3 (금) 8:00pm

9.4 - 9.5 (토.일) 5:00pm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티켓 R석 50,000원 S석 30,000원 A석 20,000원

예매 부산 문화회관 www.bscc.or.kr

문의 051.607.6000 (ARS 1번)

연출 / 안무 이정윤
기획 / 제작 (재) 부산문화회관

COUPON



30% Discount

갤러리안경(전 지점)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COUPON



20% Discount

노벨안경콘택트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COUPON



10% Discount

밥을 짓고, 국을 담다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술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Busan Cultural Center

배시시(BSCC)TV

(재)부산문화회관 공식 유튜브채널

(재)부산문화회관 공식 유튜브 채널 '배시시(BSCC)TV'입니다.
'배시시' 이름처럼 많은 분들의 입가에 배시시 미소를 짓게 할
다양한 이야기들을 담아 전달합니다.
'구독'을 누르시면 부산의 문화 소식을 쉽고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검색

유튜브 검색창에 '배시시tv'를 검색해보세요.

COUPON



20% Discount

해리스커피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COUPON



20% Discount

BNK부산은행 조은극장

- 쿠폰 소지자에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
됩니다.
- 예매 후 티켓 수령 시 본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COUPON



1만원 썸머니
(\$100 이상 구매 시)

신세계면세점 부산점

쿠폰 소지회원 출국당 1월 1회,
당사 규정에 따라 증정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한
(재) 부산문화회관 공연장

이용수칙

안전한 공연관람을 위한 공연장 이용수칙을 안내드리오니
관객 여러분의 양해와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 공연장 입장 전 발열체크 및 문진표 작성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 ✓ 마스크 미착용 시 공연장 입장이 제한되오니 개인 마스크를 필히 착용 후 방문해주세요.
- ✓ 티켓을 직접 절취하신 후 티켓의 왼쪽 부분(또는 작은 쪽 부분)을 수표함에 직접 넣어주세요.
- ✓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거리두기 객석'에 맞게 지정된 좌석에 착석바랍니다.



신세계면세점 부산점

증정 기간 : 2021. 8. 31까지
증정 장소 : B1 고객 서비스 데스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4로 15
1661-8778



BNK부산은행 조은극장

입장권 20% 할인

부산광역시 중구 구덕로34번길 4
1588-27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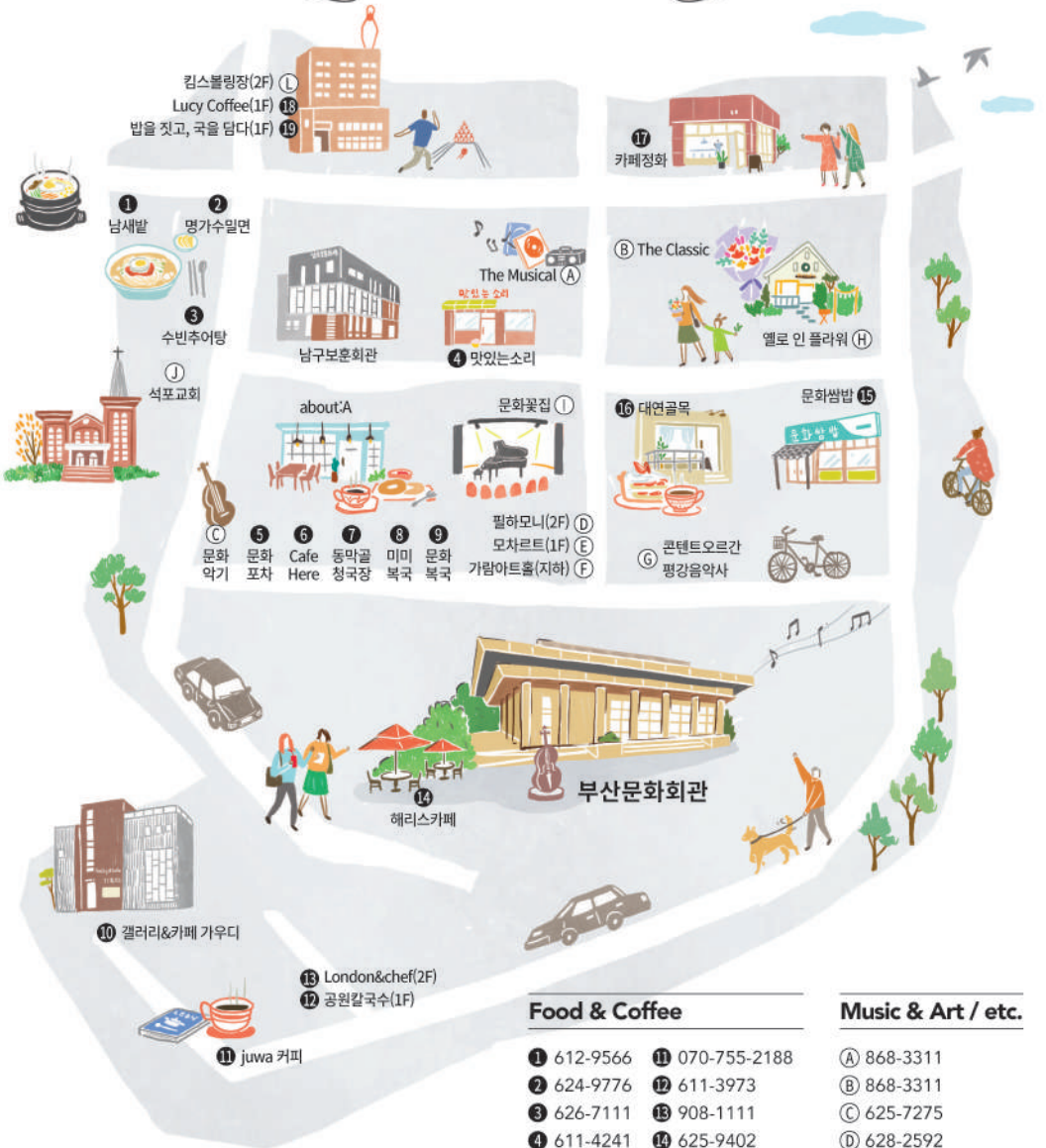


해리스커피

음료 20% 할인(정기회원 카드 제시 시)

부산문화회관 내
1577-2307

Surrounding map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Food & Coffee

- 1 612-9566
- 2 624-9776
- 3 626-7111
- 4 611-4241
- 5 626-4448
- 6 622-7412
- 7 611-3589
- 8 628-8009
- 9 621-7040
- 10 621-5788
- 11 070-755-2188
- 12 611-3973
- 13 908-1111
- 14 625-9402
- 15 626-2292
- 16 010-3996-6498
- 17 623-0772
- 18 628-3832
- 19 714-3559

Music & Art / etc.

- A 868-3311
- B 868-3311
- C 625-7275
- D 628-2592
- E 622-1456
- G 621-6669
- H 626-7900
- I 080-337-3370
- J 622-9722
- L 625-8704

COUPON



밥을 짓고, 국을 담다

정식 10% 할인(정기회원 카드 제시 시)

대연스포츠펀터 킹스볼링장 1층
051)714-3559

COUPON



노벨안경콘택트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전 상품
20% 할인(일부품목 제외)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152-2
051)626-8263

COUPON



갤러리안경(전 지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대상
30% 할인(일부품목 제외)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교로 50
051)513-4500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받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INVITATION TO THE ARTS
2021 8 AUGUST

독자의견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세요.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1. 이번 호에서 유익했던 기사는?

2. 앞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은?

3. 개선해야 할 점은?

CJ ENM PRESENTS

뮤지컬

광화문 연기

2021.9.11~12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윤도현
엄기준
강필석
차지연
김호영
김성규
전혜선
리사
문진아
송문선
양지원
황순중
홍서영
이채민
심수영

시간 토 3시, 7시 30분 / 일 2시, 6시 30분 예매 인터파크, 네이버예약, 예스24, 11번가티켓 문의 1566-5490

작사·작곡 이영훈 | 작·교선용 | 연출 이지나 | 편곡·음악감독 김성수 | 안무 서병규 | 무대디자인 오필영 | 조명디자인 신호 | 음향디자인 양석호 | 영상디자인 박준 | 의상디자인 도연 | 소품디자인 최혜진 | 분장디자인 김유선 제작 CJ ENM | 주최 (주)월드쇼마켓

◆◆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할인 1566-5490 전화예매시 ◆◆